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영상학석사 학위논문

資料包絡分析法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2008년 2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영 상 학 과

장 준 규

영상학석사 학위논문

資料包絡分析法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남인용

이 논문을 영상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영 상 학 과

장 준 규

장준규의 영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12월 12일

주 심 문학 박사 이 상 기 ㊞

위 원 철학 박사 김 무 규 ㊞

위 원 문학 박사 남 인 용 ㊞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1

가. 연구배경 ····· 1

나. 문제제기 ····· 4

2. 연구방법과 구성 ····· 6

Ⅱ.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1. 우리나라 문화정책 ····· 9

가. 1990년 이전의 문화정책 ····· 15

나. 제 6공화국의 문화정책 ····· 16

다.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 17

라.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기조 ····· 18

마. 참여의 정부 문화정책 기조 ····· 20

2. 문화시설의 의의 ····· 22

가. 도서관 ····· 25

나. 박물관·미술관 ····· 27

다. 문예회관 ····· 28

라. 문화의집 ····· 30

3. 문화시설의 기능 ····· 33

Ⅲ.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1. 지역문화정책 ····· 36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현황 ····· 38

3. 문화시설의 향후 효율성에 의한 정책방향 ····· 57

Ⅳ. DEA에 의한 문화시설 효율성 측정

1. 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이론 ····· 61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효율성 측정 ····· 67
가. DEA에 의한 도서관 효율성 분석 ····· 67
나. DEA에 의한 박물관 효율성 분석 ····· 71
다. DEA에 의한 미술관 효율성 분석 ····· 74
라. DEA에 의한 문예회관 효율성 분석 ····· 78
마. DEA에 의한 문화의 집 효율성 분석 ····· 83
3. 분석결과의 의미 ····· 87

Ⅴ. 결론

1. 연구요약 ····· 108
2. 분석결과 시사점 ····· 110
3. 연구한계 ····· 113

참고문헌

국내문헌 ····· 116
해외문헌 ····· 118

부록1: 문화시설의 종류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119
부록2: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변화추이 ····· 122

표 목차

<표 2-1> 중앙정부 문화관련 중장기 계획 ····· 13
<표 2-2> 중앙문화행정조직의 업무영역 ····· 14
<표 2-3> 문화정책 추진목표 ····· 22
<표 2-4> 문화시설의 유형별 분류체계 ····· 32
<표 2-5> 문화시설의 차이점 ····· 32
<표 3-1> 전국의 각 지역별 총괄 현황 ····· 39
<표 3-2> 지역별 인구 대비 ····· 40
<표 3-3> 2006 각 지역별 인구수 대비 이용자 수 비교 ····· 42
<표 3-4>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현황 ····· 43
<표 3-5>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현황 ····· 44
<표 3-6>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이용 현황 ····· 45
<표 3-7>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현황 ····· 46
<표 3-8>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소장 자료 및 이용자 현황 ····· 47
<표 3-9> 지방자치단체 미술관 현황 ····· 48
<표 3-10> 지방자치단체 미술관 소장 자료 및 관람자 수 ····· 49
<표 3-11> 문화기반시설의 인력현황 ····· 50
<표 3-12>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현황 ····· 51
<표 3-13>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현황 총 이용자 수 및 유·무료 관객 현황 ····· 51
<표 3-14> 문화의집 현황 ····· 53
<표 3-15> 문화의집 이용자 수 ····· 54
<표 3-16>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 55

<표 3-17> 정부예산대비 문화관광부 예산<총규모> 점유율 변화 ····· 56
<표 3-18>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 56
<표 4-1>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현황 ····· 67
<표 4-2>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 68
<표 4-3>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 68
<표 4-4> 도서관 DEA 분석결과 ····· 69
<표 4-5> 도서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 70
<표 4-6> 도서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 70
<표 4-7>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현황 ····· 71
<표 4-8>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 72
<표 4-9>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 72
<표 4-10> 박물관 DEA 분석결과 ····· 73
<표 4-11> 박물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 73
<표 4-12> 박물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 74
<표 4-13> 지방자치단체 미술관 현황 ····· 75
<표 4-14>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 75
<표 4-15>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 76
<표 4-16> 미술관 DEA 분석결과 ····· 77
<표 4-17> 미술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 77
<표 4-18> 미술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 78
<표 4-19>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현황 ····· 79
<표 4-20>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 79
<표 4-21>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 80
<표 4-22> 문예회관 DEA 분석결과 ····· 81
<표 4-23> 문예회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 82
<표 4-24> 문예회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 82

<표 4-25> 지방자치단체 문화의집 현황 ····· 83
<표 4-26>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 84
<표 4-27>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 84
<표 4-28> 문화의 집 DEA 분석결과 ····· 85
<표 4-29> 문화의 집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 86
<표 4-30> 문화의 집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 86
<표 4-31>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도서관 투입변수의 차이 ····· 88
<표 4-32> 부산광역시 도서관 투입변수의 차이 ····· 89
<표 4-33> 경상남도 도서관 투입변수의 차이 ····· 90
<표 4-34>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박물관 투입변수의 차이 ····· 91
<표 4-35> 부산광역시 박물관 투입변수의 차이 ····· 93
<표 4-36> 경상남도 박물관 투입변수의 차이 ····· 94
<표 4-37>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미술관 투입변수의 차이 ····· 95
<표 4-38> 부산광역시 미술관 투입변수의 차이 ····· 97
<표 4-39> 경상남도 미술관 투입변수의 차이 ····· 97
<표 4-40>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문예회관 투입변수의 차이 ·· 98
<표 4-41> 부산광역시 문예회관 투입변수의 차이 ····· 101
<표 4-42> 경상남도 문예회관 투입변수의 차이 ····· 102
<표 4-43>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문화의 집 투입변수의 차이 103
<표 4-44> 부산광역시 문화의 집 투입변수의 차이 ····· 105
<표 4-45> 경상남도 문화의 집 투입변수의 차이 ····· 106

그림목차

<그림 2-1> 2006년 문화관광부 비전 및 기본방향 ····· 24
<그림 3-1> 인구동향 ····· 40
<그림 3-2> 문화시설 현황 ····· 40
<그림 3-3> 도서관 수 ····· 41
<그림 3-4> 박물관 및 미술관 수 ····· 41
<그림 3-5> 도서관 자료현황 ····· 44
<그림 3-6> 도서관 이용현황 ····· 44
<그림 3-7> 박물관현황 및 이용자 수 ····· 46
<그림 3-8> 미술관현황 및 이용자 수 ····· 48
<그림 3-9> 문예회관 직원 및 전문 인력 ····· 52
<그림 3-10> 문예회관 공연일 수 및 전시일 수 ····· 52
<그림 3-11> 문화의 집 현황 ····· 53
<그림 3-12> 문화의 집 이용자 수 ····· 53
<그림 4-1> Technical 및 Scale의 효율성 ····· 66

Study on measurement of efficiency on local government's cultural infrastructure by using Data Analysis Development

Jang, Jun-Kyue

Pukyu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Media Image Art and Technology Studies Department

Abstract

It is hard to define what the culture is as it is one of the most complicated concept. Even experts who study this find it difficult to make an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culture.

The purpose of cultural infrastructure is to offer the proper circumstances to the public who accept culture, to promote to set up cultural infrastructures by analyzing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 and to make a government policy of cultural globalizaion based on cultrual infrastructures. Currently, a real globalizaion is proceeding based on cultural infrastructure by moving from cultural art to cultural industry. We face the era of culture where people are interested in human-oriented culture and value. The cultural infrastructure will encourage the harmony and mutual exchange of communities, industrialization of advanced culture, and glob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rough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The study of the efficiency of cultural infrastructure and practical accessibility is required to develop a unique culture in each region, to be in harmony with other regions, and to enhance the nation's status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fficiency of infrastructure means that it has to agree with the functions and purpose of it. It also includes usibility, value, and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ccording to this, this study will find out the negative factors to cultural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by analyzing cultural infrastructures of domestic local governments. It covers all the cultural infrastructures built by 2006 including libraries, museums, art galleries, arts centers and cultural house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infrastructure nationwide, the effectiveness of efficiency of cultural 'creative Korea' is analyzed.

This thesis adopted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hich enables the study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cultural infrastructure without the specific function with inputs and outputs from various theories, discussion and practical analysis on each local government.

It is good to use DEA method as it can measure the efficiency without depending on a specific function like cost function. The method also finds out the most efficient group among the sample groups and gives us a specific number. For example, it shows what kind of factor of inefficient group gives how much input and produces how much output.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restriction of study, this thesis measured and analyzed the efficiency on the cultural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by DEA.

資料包絡分析法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장준규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영상학과

요약문

문화의 개념은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문화기반시설의 목적은 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문화에 대한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며, 각 지방 자치제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시설을 기반으로 한 문화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문화예술에서 산업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문화정책에 의한 문화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세계화를 추진 중인데, 이는 최근 인간 중심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시설중심의 지역 활성화와 화합, 상호교류, 첨단문화의 산업화, 우리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통한 세계화와 우리문화정착 등 문화국민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문화들을 발굴하고 이에 창조적 개념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문화국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점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의 근간이 되는 시설의 효율성 검토와 활용 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설의 효율성이란 각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며, 활용성이나 이용의 가치와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이용자 분석을 통해 문화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와 기반시설의 분포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하여 2006년까지 건립 운영 중인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에 대해 범위를 설정하고 고찰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전국적 현황과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문화 '창의한국'으로서의 효율성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과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각 지방별 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에 대한 여러 학설의 이론적 논의 및 기존의 실증분석에 관한 검토 작업을 거친 투입과 산출에 대한 특정함수의 설정 없이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되어져 있고 실제 운영되어지는 문화기반시설 상호간의 효율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資料包烙分析) 모형을 채택하였다.

DEA에 의한 방법은 비용함수 등과 같이 특정함수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표본 집단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단을 찾아내고 그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집단의 어느 요소가 얼마나 투입되고 얼마나 투입대비 산출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에 입각하여 전국 지방자체단체의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효율성 여부를 DEA 모형에 의해 측정 분석하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가. 연구배경

20세기가 경제의 시대로 비유 된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불릴 만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1982년에 Mexico City에서 열린『세계문화정책회의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Declaration of Mondiacult)』에서는 문화를 “사회와 사회 집단을 특징짓는 뚜렷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함으로써 문화를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문화는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대상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소위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념인 문화 복지(cultural welfare), 문화권(cultural right), 생활문화 등이 이러한 문화의 범주에 포함된다.[2)]

문화정책에 근거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정부정책지원은 1994년 문화 산업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종전의 문화개념은 다분히 정치적 개념으로 국민들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려는 국가정책의 홍보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편적 도구로 사용되었고, 문화기반시설의 목적 또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건립되어졌기 때문에 정부 주도적 행사 혹은 집회 목적의 복합적인 다목적 홀의 기능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지어진 문화기반시설의 시설형태나 구조, 장비설비 등 형태

1) 박광국. (1999). 문화정책의 상황론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서론.
2)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학도서, 20.

나 형식이 유사하게 건립되어진 것은 각 지역별 혹은 문화장르별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민주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인 문화통제 체제가 불가능해지고 사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원화, 다양화 되면서 자연 국가의 문화정책 또한 통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광의적 문화개념에 입각한 국민문화생활 지원우선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설건립에만 치중하던 시대에서 문화의 장르별, 혹은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전문 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 예로 서울 '예술의 전당' 건립이 그 목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설의 목적이 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지역의 환경과 사용목적, 활용측면에서 장비시설, 편의시설, 등과 시설 외형에 대한 디자인 개념 도입 등 전문적 특성이 드러나는 다목적 홀의 기능이 아닌 합목적성에 근거한 문화 전문기반시설로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질 높은 삶의 추구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여유 등이 이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제조업에서 지식정보화산업의 발전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더해져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예전의 양과 규모지향에서 품격과 질 중심의 시대로, 또한 정보화, 지식, 문화, 예술,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관리 시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면서부터 지역별 무한경쟁의 지방화 시대를 열었다.[3] 이는 지식정보산업이 산업사회 형성의 기본구조가 되면서 국가발전의 가치기반이 정치와 경제 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의 이동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문화의 근간이 될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독창적 문화유지와 창조적 노력에 의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며, 이러한 발판은 문화를 통한 국가기간산업이 각 지역별

3) 박광국·최상일·주효진 (2000).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行政論叢, 38권 2호, 재구성.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문화를 중심 가치에 두는 문화주의를 표방하고, 문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4]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 하였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구체적 실천사업으로 1998년부터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공간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제공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준다는 목적 하에 전국 각 기초단체마다에 1지역 1문예회관 건립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 기본지원정책(전문문화기반시설)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보다는 시설건립에만 치중하고 있고,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소홀히 하면서 지역별 특성 및 문화 혜택의 다양성에 대한 문화기반시설의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문예회관 운영평가제'를 도입하고 매년 양적확충,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평가는 문화기반시설 전반에 걸친 형식상의 운영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시설운영주체인 '행정관리주체'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과 운영주체에 대한 평가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5] 앞서 밝힌 여러

---

4) 창의적 문화 복지 국가건설의 10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21세기 문화국가건설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②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③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기반조성 ④ 창조적 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 ⑤ 문화 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⑥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계승·발전 ⑦ 문화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체계 구축 ⑧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 ⑨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 지향 ⑩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세계주의적 지향이다.

5) 전국문화시설 평가 작업은 문예회관의 지속적인 변화, 발전정도를 정책적인 자료와 기초적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하드웨어 200점, 소프트웨어 300점 등 5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하드웨어는 조직, 인력(100점), 재정(40점), 시설(60점), 소프트웨어는 목표설정, 비전(50점), 사업(150점), 교류협력(100점), 산하단체(50점)로 구성되어있다.

가지 문제들로 인해 문화기반시설로서의 효율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및 분석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론적 정립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기반시설의 의미는 시설의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의 고유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작업과 나아가 지역 간 문화교류를 통한 화합과 문화 세계화로의 기본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시설의 효율성은 인구수대비 이용률과 그에 따른 전문적 문화기반시설 수와 지역의 경제성장, 지역민의 지적수준 등에 따라 효율적 가치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소 정책적인 측면을 우선시 하다 보니, 국가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의 청사진이 부족하게 되었고, 특히 지역주민의 수요 및 특색에 대응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제시가 미흡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부족했고, 문화국간 확충과 지역 특색에 맞는 운영상의 문제와 문화기반시설 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별 문화격차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91,022명당 1관, 박물관 및 미술관 92,386명당 1관, 문예회관은 318,286명당 1관, 문화의 집은 290,202명당 1관으로 OECD 가입 선진국 평균 보유 수준에 미달되고 있다.[6] 2001년 기준 OECD 가입 선진국 평균 도서관은 82,000명당 1관, 박물관과 미술관은 40,000명당 1관 수준이며, 수도권에 공공도서관 25.1%, 박물관 40.6%, 미술관 63.5% 등으로 집중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문화 충족공간과 공공문화 시설 면에서 많은

6) 문화관광부 (2004). 『새예술정책』. 제 6장 지역문화·예술, 600.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의 핵심인 운영 프로그램 역시, 중앙 및 대도시권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다소 나은 대도시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고 있으나, 중·소도시 시민들은 지역의 환경 등 제약에 따른 요건들에 의해 제한적 문화향수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술전시회의 80.8%, 양악공연 73.8%, 국악공연 61.9%로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국가행사 및 국제행사 역시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 주요 공연들은 지역의 시설, 지역민의 생활여건과 환경적 요인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공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는 불균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의 도시에는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시·군·구 차원의 지역 전통문화 발굴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미흡하여 실제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결국 부족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채우기 위해서는 중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중·소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결국 KTX나 항공 등을 이용 서울의 문화예술시설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별 시설의 효율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 지역에 맞는 시설 즉,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의 환경과 생활습관 등 많은 부분에서 그 특성과 특징을 나타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형태와 기능, 목적들이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부산의 부산문화회관이 그 좋은 예이다. 둘째, 각 지역별 공연장 및 문화시설의 규모나 시설설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지역의 인구수 대비, 생산 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수와 전체 공간, 수용 공간, 활용 공간 등의 확충과 그에 따른 행정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산업 측면에

서의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한 클러스터(cluster) 즉, 집약적 연관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 시설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대한 주위 환경요건이 미흡하다. 넷째, 각 지방자치 단체들 마다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 없이 시설에 대한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여 문화국민의 자질을 갖추는데 있어서, 문화생활화, 대중화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또 다른 원인들로는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안배와 지역에 맞는 시설로서의 기능적 측면의 활용 등에 대한 많은 전문 인력에 의한 연구가 필요 한데 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아 앞서의 문제 해결에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즉 문화기반시설의 전문 인력 운영에 있어서 대도시의 경우는 전문교육기관운영을 통한 인력 양성과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 인력 수급이 원활한 반면 소도시에서는 이러한 전문 인력기반 자체가 미흡하여 시설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기반시설의 기능과 목적, 활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분야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로 하며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환경, 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며 문화국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2. 연구방법과 구성

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효율적 측면이 명확하지가 않은 이유는 문화라

는 매우 복잡 다양한 복합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효율성 측면을 논하기에 앞서 문화기반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자면, 정의는 모든 문화행위의 결과물들은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공간에서의 창출로 보아야 하고, 범위로는 행위에 대한 시설이용율의 산출결과로 규정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각 지역별 투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검토하기 위해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資料炮烙分析)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7] 왜냐하면, 시설과 관련한 효율성 연구들은 주로 시설물(institution) 자체 혹은 시설물대비 수익을 대상으로 하여 투입자원의 배분적 효율성의 측면을 주로 연구하였다. 즉, 문화시설의 효율성 측정에는 단순 투입 비 산출의 비용측정,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지표 반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화폐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투입과 산출의 분석에 이용할 수 있으면서 효율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포락분석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8] 성과평가에서의 효율성(effciency)은 투입의 비율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ciency), 배분의 효율성(allocative effciency), 규모의 효율성(scale effciency)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별 문화시설의 분포, 문화시설의 수, 이용률을 통한 수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설 이용자 수

---

7)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은 1978년 Charnes, Cooper, Rhodes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Bouyssou(1997)은 "DEA는 OR(Operations Research)에 있어서 최근의 "성공 스토리"의 하나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과학분야에 DEA가 끼친 높은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다.

8) 라이벤슈터인은 X-효율성의 측정에 있어서 자료포락분석기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이 자료포락분석기법의 방법이 다른 방법론에서 드러나지 않는 효율성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Leibenstenin, 1992: 428) 투입요소는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요소만이 아니라 관리자의 특성이나 동기부여 같은 다양한 형태로 측정이 가능하며, 자료포락분석에서 계산되는 투입요소별 가중치계수는 어떤 투입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가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등 시설로서의 활용범위에 대한 전국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써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그리고 연구방법과 구성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문화시설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정책과 문화시설에 대한 의의와 기능을 서술하였다.

제3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로써 지역문화 정책을 서술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즉,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향후 정책방향을 서술하였다.

제4장은 DEA에 의한 문화시설 효율성 측정으로써 DEA 방법론을 기술하고, DEA 방법론에 의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즉,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써 연구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Ⅱ.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1. 우리나라 문화정책

본 논문에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에 대한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고, 문화행위를 위한 공간제공이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한 정책결정과 시대별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이 건립되어져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을 “정부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예술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9]이라고 정의하고, 문화정책의 범위에 정부의 지원과 규제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자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이유는 나라마다의 개념과, 정부의 역할과 개입에 대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10]

문화정책의 바탕이 되는 문화행정의 개념을 “문화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공권력의 배경 하에 문화예술정책을 형성 내지 결정하며 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합동행위”로 이해했고[11], 『문학과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행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12] 즉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지원

9) S. Globerman (1983). Cultural Requlation in Canada, Montreal, *Institute for Research in Public Polict.*
10)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학도서, 53.
11) 이종인 (1986). 『문학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관한연구,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2) 정홍익 (1992). 『문화행정연구-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하기 위해서 문화기반시설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문화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문화정책 추세는 가장 오래된 정책방법인 문화재 보호정책과 예술 진흥정책으로부터 보다 넓은 범위로 전환되고 있다. 문화정책의 범위가 민속예술, 대중예술을 포함하고 교육, 외교, 경제 분야들이 중첩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정책은 계획정책으로부터 유도정책으로 그리고 방향제시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정책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창립되면서부터였다. 일제식민시대에 문화재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관리 및 진흥정책은 한국정부 수립 이후부터이며,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50년대 문화정책은 전쟁의 소용돌이와 이후 전후복구사업과 반공주의 속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형태를 지니지 못하였다. 이런 양상은 1970년대 초까지 근대화라는 경제성장의 논리와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일관된 정책이 불가능했으며,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도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라는 역할에 국한되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문화정책의 시행은 문화정책의 이념, 목적, 방법, 효율성, 형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 '제1차 문예중흥계획'(1974~1978)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때까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보처, 문교부, 공보부를 거쳐 1968년 발족한 문화공보부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1980년대 제5공화국은 문화진흥의 의무를 헌법에 명기하면서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문화부문 계획'은 문화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문

229-245

화복지, 문화적 주체성 확립과 문화 창조능력 활성화에 따른 문화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민정부는 세계화 속에서 문화 창조력의 제고와 문화 환경 개선, 문화산업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문화재 중심의 행정으로부터(제3, 4공화국), 예술진흥의 행정기와(제5, 6공화국), 문화산업 중심의 행정 기(문민정부)를 거쳐 왔다. 현재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문화의 분권화,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정보화가 중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계획 접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1970년대부터 2006년까지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문화관련 중장기 계획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문화부의 나라별 형태의 조직체계로는 한국의 문화관광부, 프랑스의 문화부, 일본의 문화청,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캐나다의 문화유산부, 호주의 통신예술부, 네덜란드의 교육문화과학부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주로 문화예술, 문화재보호, 저작권, 국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문화부처에서 행정, 방송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예술행정 외에도 관광, 문화산업, 방송미디어, 레크레이션 등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호주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영화, 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프랑스는 연극, 공연, 음악, 무용, 조형예술, 영화, 지역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문화유산과 공연예술을 구분하여 왔으며, 1959년 설립된 관광연예부(The Ministry of Tourism and Entertainment)와 1975년 신설 문화유산부(ministry of cultural heritage)로 환경, 건축, 고고학, 역사, 고문서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담 부처의 형태로 구조화 되어 있지 않은데 1965년 "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Act"에 근거 독립된 기관으로 연방예술기금(NE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독일은 연반내무국의 문화부, 연방외무국의 문화부, 공보처의 국외홍보국 등으로 다

른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독일의 연방정부는 문화정책에 대해 주정부와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공공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는 정부관료 조직 뿐 아니라 독립 혹은 비영리 조직의 형태 등 다양한데, 정부관료 조직 중심모델로서의 조직체계를 이루는 나라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준 정부 지원체계의 모델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국문화예술진흥원, 일본 문화예술진흥회,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Model 등이 속한다. 정부관료 및 준정부지원조직의 혼합 형태를 가지는 한국의 문화체육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영국문화예술진흥원이 산하단체로 속하며, 비영리단체로는 호주의 통신예술부와 호주문화예술진흥원, 스웨덴의 교육-문화부와 문화진흥원(Staatens Kulturrad)이 이에 속한다.[13] 이와 같이 문화정책의 관장업무가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뿐 아니라 방송, 생활체육, 관광행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표 2-2>에서 보듯이 세계 주요 국가들의 행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다. 또 다른 변화로는 문화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창작 진흥에서 점차 문화복지,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적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미디어와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유사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와 교육, 공보, 복지, 보건, 체육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경우는 나라마다 다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문화정책의 범위가 문화생산자로부터 문화향유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고급문화나 순수문화예술로부터 문화산업과 미디어 예술 등으로 문화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도 1990년대 이후부터 생산자나 공급자 중심에서 점차 수용

13)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학도서, 289-293.

자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기반시설로의 접근성, 교육기회 확대와 같은 문화 복지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점차 관광정책, 방송 등 미디어정책, 스포츠,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정책, 정보통신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14)]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업무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문화정책이 점차 전문화되고 있으며, 문화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문화행정가들은 문화가 지니는 산업이나 관광 차원에서의 경제적 가치이외에도 고용과 활력의 원천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서, 한 도시나 지방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문화행정가들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은 문화정책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다.

<표 2-1> 중앙정부 문화관련 중장기 계획

○ 제1차 문화발전 5개년 계획(1974~1978) ○ 제2차 문화발전 5개년 계획(1979~1983) ○ 새문화정책(1982~1986)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부문 (1992) ○ 문화 창달 5개년 계획(1993~1997)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 복지 기본구상 (1996) ○ 관광 진흥 10개년 계획(1996~2005) ○ 문화정보화추진 기본 계획(1997~2010)	○ 문화정보화추진 기본 계획(1997~2010) ○ 문화비전2000(1997) ○ 국민의정부 새문화관광정책(1998~2002) ○ 공연예술진흥 기본 계획(2001) ○ 콘텐츠 코리아비전21:문화콘텐츠산업발전 추진 계획(2001) ○ 제2차 관광개발 기본 계획(2001) ○ 문민정부 기본계획 '삶의 질 향상'(2002) ○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2003) ○ 참여정부의 문화기본계획 "창의한국'(2003~2006)

14) 문화관광부 (2001). 『문화정책백서』. 제5장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144.

<표 2-2> 중앙문화행정조직의 주요 업무영역

국가	조직명	주요 영역
미국	연방예술기금	예술교육, 무용, 디자인, 전통예술, 문학, 미디어예술, 음악, 오페라, 뮤지컬 연극, 시각예술, 청소년예술, 지역문화, 예술 확산, 국제문화교류, 박물관
영국	문화매체체육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광, 자원봉사 및 지역문화, 방송, 미디어, 예술 정부예술컬렉션, 시설·기념물·사적, 도서관 및 정보, 영국국립도서관 프로젝트, 박물관 및 갤러리, 문화재, 국민복권, 인사관리, 왕궁 및 왕립공원 등
일본	문화청	예술문화, 지역문화진흥, 국어, 저작권, 종무, 전통문화, 기념물, 미술공예 건조물,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캐나다	문화유산부	예술, 방송, 문화산업, 문화유산, 정체성, 언어, 다문화주의, 스포츠, 국립공원
호주	통신예술부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예술, 문화발전, 문화유산, 영화, 방송미디어, 저작권 문서보관, 홍보, 온라인 산업 및 통신기술 등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유산, 박물관, 공연예술, 조형예술, 건축 및 디자인, 영화, 예술교육과 아마추어 교육, 방송 언론 미디어, 문학, 도서관
프랑스	문화통신부	정부대변, 문서보관, 도서 및 독서, 문화재 인력개발 및 양성, 연극 및 공연 음악 및 무용, 조형예술, 영화 및 영상,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언어, 시설 및 건축, 지역문화
싱가포르	공보예술부	예술, 도서관, 문화재, 방송, 정보, 영화, 광고
이탈리아	문화환경스포츠 스펙터클부	역사·문화유산, 경관, 고고학, 건축, 예술, 문화 복지, 예술작품 복구, 도서 문화정책, 문서 및 기록보존, 출판, 스포츠
중국	문화부	예술, 예술교육, 도서관, 문화관계 및 교류, 문화시장, 대중문화, 아동문화 민족문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추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문화발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의 본격적인 추진은 시·도별 광주시(1991, 1997, 2000). 전남(1992), 서울시(1994), 경기도(1998), 인천시(1998), 충북(1999), 양평군(1999), 전북(2000), 전주시(2001) 등이 시·도의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1990년대 이전의 문화정책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시작된 1950년대에는 문화정책의 이념과 내용에 있어 뚜렷한 정책이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이념이 사회에 확산되었고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이념체계가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설치,「문화재보호법」과「저작권법」제정 등 문예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문화정책의 이념보다는 반공과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은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 문예진흥이라는 역할에 제한되었다.

제3, 4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이념지향은 근대화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꾀하던 시기였다. 모든 분야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던 시기였던 만큼 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미약하였다.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으로는 민족사관의 정립, 민족주의적 경향,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민족예술 창조였다. 문화정책의 이념은 주체, 목적은 민족의식의 함양, 영역은 문화유산보존이었다. 이 시기에 기본적인 법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졌으며 이때의 문화입법은 부분적으로 일제하의 법들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문화와 예술을 진흥과 장려보다는 행정절차 위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는데 치중해 있었다. 1966년 창설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창작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효시로서 사전심사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일단은 문화행정의 법체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이념은 평등과 효용이고, 목적은 국민정서 충족과 가치적 계도, 영역은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규범전파로 분석할 수 있다. 정책기조는 문화적 주체성확립, 문화 복지(문화민주주의)의 구현, 문화창조

능력의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문화시설의 사회교육역할 제고) 등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과 그에 연계된 문화운동의 전개는 문화의 정치적 실천력과 저항으로서의 문화적 기능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 강화된 문화운동이 민족적 자각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의 도구화를 가져온 운동의 하나로 예술의 상대적 자율성을 도외시한 채 관념성과 도구성을 강화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15]

나. 제6공화국의 문화정책

제6공화국은 문화정책의 이념은 창의, 목적은 예술발전, 영역은 창작 지원이었다. 그리고 문화 분야 전담 독립행정부처인 문화부가 탄생(1990. 1. 3)하였다. 이 기간의 문화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적인 슬로건을 설정하고 새로운 문화전략으로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관리, 통제, 규제보다는 참여, 진흥, 조장에 초점을 두었다. 문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화주의 전략을 새롭게 표명하였다.

문화예술의 보존개발이나 예술창작환경 조성이라든가 문화향수권의 신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정책 자체를 문화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문화정책을 구상하였다. 즉 문화를 국가 발전전략의 중추적 기능의 일환으로 격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조역량의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 치중한 반면, 1990년대부터는 수용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특히 제6공화국 문화정책의 특징은 제5공화국의 문화향수 기반시설 조성을

15) 문화관광부 (2001). 『문화청백서』. 제2절 문화정책의 변화, 25.

바탕으로 하여 제6공화국 기간에는 국민생활 속에 문화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문화의 내용에 접근하는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의 생활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다.[16]

다.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문화발전을 국가발전의 두 축의 하나로 인식하고 문화 창달을 통해 질적으로 풍요로운 신한국 건설에 두었다. 주요 문화 사업은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 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문민정부 문화정책에서 문화 복지가 강조된 점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복지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드는 문화를 가꾸기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들과 풍부한 문화행사, 생활권역 내의 소규모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거주 지역 중심의 문화행사의 활성화와 같은 문화행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향유와 자발적인 참여와 이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기초생활권역의 문화시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환경 조성이었다. 추진 방향은 전문 예술인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중심계층 중심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문민정부는 1995년 8월『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6년 6월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문화체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16) 문화관광부 (2001). 『문화청백서』. 제 2절 문화정책의 변화, 26.

관련된 ‘문화정보화기본계획’이 1996년에 수립되었고, 이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를 목표 년도로 하여 종합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문화정보화 여건조성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문화정보화는 문화체육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종교 등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하여 컴퓨터 기기의 확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의 구축을 통하여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정보화사업을 망라하는 의미로 사용하며, 문화정보화 결과물로서의 종합문화정보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과 결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접근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렴하게 제공, 우수한 문화자원을 적극개발, 세계에 널리 홍보,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추진, 민간의 자율적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이 기본방침을 통해 문화부문 정보화사업이 구체화되었다.[17)]

라.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기조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은 1998년 국정 100대 과제 가운데 문화관광부 관련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항목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작활동 보장을 위해 심의면제대상 확대, 성인전용 영화관 설립 검토, 영상물 제작업 등록대상 완화, 민간예술 단체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문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종합영상 지원센터 조성, 국산 애니메이션의 텔레비전 방영비율 명문화, 지역별 관광문화권 개발 촉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17) 문화관광부 (2001). 『문화청백서』. 제 2절 문화정책의 변화, 27.

경기단체 재정자립 기반 지원 및 법인화 추진, 체육기구 국산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학교사회사업전담교사제도 도입, 가족의 문화예술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청소년 보호 연령의 통일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강화, 선진방송 체제 구축을 위해 위성방송 근거 마련을 위한 통합방송법 조기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방식 개선, 한국방송공사 등 공영방송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한 소유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채널 묶음별 차등가격제도 도입, 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권 폐지, 언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보 사전방지 기구 신설 및 제도화, 언론중재위를 국가기관으로 위상 강화, 오보에 대한 소송비용 재정보조 검토 등이다.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은 1998년 발표한 새 문화관광정책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하에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며, 문화주의를 통한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열린 문화'의 구현이 새문화정책의 지향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IMF관리체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상대적으로 문화정책 부문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으로, 일반국민들의 소비생활 위축과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활동으로 인한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위축, 예술문화 부문과 여가 부문의 소비감소는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의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출판계의 위기와 공연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정부가 번번이 약속만 해놓고 실현하지 못했던 문화예산 1%확보라는 과제를 국가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000년에 실현하여 문화국가건설을 위한 의지를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각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등 대폭적인 규

제개혁이 추진되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단체들도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장기적인 문화발전을 위한 초석을 닦아 놓았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립과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수 및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문화향수기회 확충에 정책적 해결 등을 통해 문화향수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진하였다.

마.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국민 참여의 힘으로, 국민 참여를 통한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취지 아래 2003년 2월 25일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3대 국정목표가 세워졌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설정했다. 기본방침 4대 국정 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제시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③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⑨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⑪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이다.[18)]

새 정부의 시대적, 사회적 과제 중에서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첫째, 문화관광부의 과감한 행정 시스템의 개혁, 즉 '문화의 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각 조직을 정비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18) 문화관광부 (2003). 『문화청백서』. 제 1장 참여정부. 문화관광 정책, 3-7.

제1과제로 삼았다. 둘째, 경기의 침체 조짐으로 인한 균형사회발전을 통해 개방과 자율, 성장과 분배, 균형발전 사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진동력 발굴과 개발,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확산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생산과 유통을 기반으로 정보혁명을 통한 문화산업, 관광산업, 여가산업이 국가발전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있다. 넷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부각되는 문화 분야의 지역 간 불균형,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결국 국민의 삶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시대라 불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지역문화혁신체계의 구축'과 아직 기반이 취약한 곳에서의 지역문화혁신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①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②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창조적 문화역량강화 ③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정책 - 문화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해 문화관광부는 민간 전문인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체계의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TF팀으로는 지방문화 분리TF, 행정수도문화TF, 여성문화TF, 주5일제근무TF, 광주문화중심도시TF 등이 있다.

<표 2-3> 문화정책 추진목표

년 도	정 책 목 표
1990년 이 전	• 민족예술창조 (제 3, 4공화국) • 한국문화윤리위원회창설 '문화행정의 법체계 확립' (1966) • 전통문화유산보존관리, 문예 진흥(1970) • 문화적 주체성확립, 문화의 복지구현(제 5공화국)
1990년 이 후	• 문화전략프로그램개발, '문화의 생활화' 추진 창의를 목적으로 한 예술발전, 창작지원(제 6공화국) •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문화부 탄생(1990) • 문화예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과 확산(1980)
문민정부	• 문화 복지'정보화촉진 기본법'제정(1995) • 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 문화정보화기본계획'(1996) •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1996~2010)
국민의정부	•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국정 100대 과제(1998) • 새 문화관광 정책 추진,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제정 (1998) • 창작활동 보장(심의면제, 성인전용영화관설립, 민간예술단체 세제, 금융지원 등) • 문화예산 1% 계획 추진(2000)
참여 정부	• 3대 국정 목표 및 4대 국정원리 발표(2003)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문화산업 육성 • Task Force팀 구성 (지방문화 분리, 행정수도문화, 여성문화, 주5일제근무, 광주문화 중심도시TF 등)

2. 문화시설의 의의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화 환경조성 및 문화 인프라확충 정책의 노력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에 대한 문화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 참여 확대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 인프라의 구축은 문화의 수준과 질 이전에 양적인 차원에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국 사회현상에서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문화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부

족한 문화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두어졌고,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문화시설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문화 생활력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문화기반시설의 규정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이란 공연·전시·문화보급·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8345호 법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 제2조에 의하며, 문화기반시설에는『도서관법』상 도서관[19],『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진흥법』상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이 있으며 각 시설별 법령은 다음과 같다.[20]

문화기반시설의 의의는 '문화는 삶의 질이자 행복의 원천'으로,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간다운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핵심적 요소로 정의된다. 문화는 창의성에 기반을 둔 지식정보화사회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가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로 들면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창의한국의 구현'으로 설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본다. 한편 '창의한국'은 계층·지역·장르 간 문화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책목표로는 ①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②기초예술의 진흥 ③우리문화의 세계화 ④문화산업 핵심역량 강화 ⑤한국관광의 도약 ⑥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예술을 통해 선진한국을 건설하고 '2006문화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취지로 설정 되었다.

---

19) 도서관은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독서진흥관련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도서관이 국가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 되고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20) 문화관광부. 『공연법령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문화예술법시행령[별표], 참조.

창의적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영역이나 인간과 문화 중심의 도시 공간조성 시책 등이 문화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문화되고, 과학화된 시설을 통하여 문화 재창조와 발전을 꾀하게 되었으며,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기본적 활동의 영역이다. 그동안은 양적인 차원에서의 일정한 문화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었고, 이제는 조성된 문화시설을 토대로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질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지역적인 안배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지역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기술 유입을 시설확충과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1> 2006년 문화관광부 비전 및 기본방향

가. 도서관

도서관은[21]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국가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기관이다. 따라서 국가는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사회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의 기여 국민의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지적 문화향유로의 기여를 통한 국가 지식정보에 의한 문화기반조성 및 국가경쟁력향상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002년 8월『도서관 발전종합계획 2003-2011)』을 수립하여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정보도서관 지식과 정보가 함께하는 문화 사랑방을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역점추진과제로 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확대로 도서관 협력기반조성에 의한 전문 인력양성 및 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활성화,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내실화, 지역 내 커뮤니티의 구심체로서 도서관의 환경개선, 시민단체 언론계 등과 연계한 도서관 문화운동 전개를 역점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즉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역할강화', '환경개선', '협력체계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고 11개 주요사업과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과 함께 도서관 정책은 문교부에서 주관하여 오다가 1990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부가 신설되고 이와 함께 도서관진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원하는 도서관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1년 4월 8일 도서관 정책업무가 문화부로 이관 되었다. 이는 도서관정책의 지향점이 교육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확산되었

21) 문화관광부 (2006). 『문화청백서』.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6절 도서관 정책, 261

음을 의미 한다. 이관과 함께 어문출판국 도서출판 과에서 도서관 및 국민 독서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17일에는 어문출판국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 하고 ①도서관 발전종합정책의 수립 및 조정 ②도서관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도서관 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④국민독서운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⑤도서관 협력 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⑥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⑦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⑧기타 도서관 진흥업무에 관련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 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4년 5월 4일 어문출판국의 폐지와 함께 도서관 정책과는 생활 문화국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1994년 12월 23일『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부가 신설 되었고 12월 24일에 생활 문화국이 폐지되면서 도서관 정책과, 박물관과를 통합하여 문화정책국에 도서관·박물관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 하였다. 이로써 문교부로부터 도서관 정책을 이관 받아 도서관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던 전담부서가 3년여 만에 폐지됨으로써 도서 관계 전체에 도서관 행정 및 정책의 약화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를 낳게 하였다.

200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지식문화강국'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각 부분의 업무 및 기능혁신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문화관광부는 조직개편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개정을 대통령령 제8588호를 단행하였고, 도서관 정책수립 및 집행, 기능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대폭 이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써 도서관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려 도서관 전체를 아우르면서 도서관이 국가지식정보센터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보존 등 새로운 정보자원의 발굴과 제공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 문헌의 수집, 보존,

정리와 지적문화유산의 계승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제전문사서제도'를 도입하여 사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용자의 연구 및 학술정보의 참고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처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정부 각 기관 935개 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부간행물수집 및 정부정책 입안 자료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가경쟁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정책과의 신설과 함께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점차 축소하여 국가도서관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지식 정보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4월에는 작은 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고 동네 주변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표준모델을 지향하는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개관하고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0월 4일『도서관법』전면개정과 2006년 12월 28일『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00호)의 재정으로 국가 도서관 정책체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박물관·미술관

박물관은[22] 인류의 발생과 함께 생성된 모든 문화적 산물인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전시와 박물관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강조 되고 있

22) 문화관광부 (2006). 『문화청백서』. 제6절 박물관정책. 기본방향, 278

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박물관 기본정책방향은 박물관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문화체험 및 평생교육의 공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방향을 두었다. 즉, 앞서 설정한 기본방향의 충실한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대표 박물관격인 국립중앙박물관을 규모와 내용면에서 크게 확장, 개선하여 지난 2005년 10월 용산에 신축 개관 하였다. 이와 함께 박물관 정책기능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해 줌으로써 국립 중앙박물관이 향후 한국박물관의 진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강화 시켰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계승, 유지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규모에 걸맞은 그리고 국민과 국제문화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설정과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3]

박물관 정책주관 부서로는 박물관정책업무는 2004년까지 문화관광부 내의 도서관·박물관 과에서 수행해 왔으나 보다 현장에 가까운 업무수행을 위해 정책 기능의 소속기관 이관 방침에 따라서 2004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정책기능 이관 전에도 관련법에 의거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정책기능 이관에 따라 박물관 협력만 구축 박물관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공·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등 정책업무를 본격 수행하고 있다.

다.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24] 약칭 문예회관은 현재는 공연예술 중심의 시설로써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고, 다른 기반시설에 비해 활용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기도하다.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향수의 기회 제공에 있어서도

23) 문화관광부 (2006). 『문화청백서』. 제 6절 도서관·박물관 정책. 박물관 정책, 298
24) 문화관광부 (2006). 『문화청백서』. 제2절 공연예술정책, 332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공연문화의 지식기반으로서 기능과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창조적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상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의 하나인 공연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은 종합공연장으로 자치단체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이상의 중 규모 공연장은 일반공연장으로 구별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 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이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로 정의 되어 있음을 감안 한다면 문예회관은 앞서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공연장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개별 지자체당 1관씩 250관의 문예회관을 확충 한다는 목표 아래 1997년부터 1관 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건립과 운영 경향을 보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 공연장, 문화의집, 독서실, 체육시설과 정보화교육 등으로 건립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과 이용자 중심의 복지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예회관의 주된 기능은 각 지역에서 공연예술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문화향수와 창조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기본적 중심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55관의 문예회관이 운영 중에 있다.

문예회관은 공연법 시행으로 공연예술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공연예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매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고 있으며, 동 계획은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진단, 전망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공연예술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공연예술육성시책의 지속성과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25] 또한 국가는 전문가의 자문과 공연예술계 의견을

25) 문화관광부 (2006). 『문화청백서』. 제4장 예술정책,

최대한 반영한 중·장기공연예술발전방향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방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자율참여 분권을 근간으로 하는 공연예술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예회관은 시설로서의 기능과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문화의 보존과 계승, 외국문화와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되고 있다.

라. 문화의집

문화의집은[26]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민이 생활권역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마인드를 높이도록 조성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즉 문예회관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 단위가 아닌 구 혹은 동 단위의 문화지식전달기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문화의 가장 기초단계를 습득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의 장으로써 매우 유용한 공간이다.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노인층의 여가 활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교류의 장이면서, 소규모의 문화활동을 통한 각 지역 간의 문화정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다. 단순히 보고 듣는 수동적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능동적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생활문화공간이다. 문화의 집은 문예회관이나 공공도서관처럼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150평 내외의 기존 건물 공간을 활용하여 안내데스크, 정보자료실, 음악감상부스, 인터넷부스, 문화관람실(다목적 홀), 문화창작실, 영상감상실(AV감상실), 비디오부스, 문화 사랑방, 어린이놀이방, 휴게라운지, 기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적인 문화공간

26) 문화관광부 (2003). 『문화청백서』. 제5장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166

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향유하고, 자율적 운영으로 문화민주주의를 체험케 함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뿌리 내리도록 하는 주민 밀착형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일상 생활권에서 문화공간이 전무했던 1996년 4개소(서대문, 풍기, 정읍, 김해)의 문화의 집이 개관 되어 생활권 문화시설로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후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새문화관광정책'의 추진으로 대폭 증대하여 2003년 12월 현재 총 135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개개인의 창의성 함양과 자율성을 모태로 하는 문화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5일제 근무환경에 대비하여 여가문화 시설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에 대한 계속적인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적 소외감을 없애고, 기존의 문예회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나은 문화국민의로서의 자질 향상과 지적수준을 높여 나가고, 국민 모두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문화 복지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체험프로그램사업은 각 지역별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가족단위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보급토록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여가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문화 체험에 전국 73개 문화원에서 8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만 여명이 참여, 농어촌 소재 소외계층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방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 프로그램은 문화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의 올바른 관계형성과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소외감 해소로 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의 문화와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또한 새터민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체험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5개 지역에서 5000여명이 참여 새터민과 지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표 2-4> 문화시설의 유형별 분류체계

구 분	내 용	
시설명		
공연시설	종합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공 연장, 대학공연장	
전시시설	국공립미술관, 화랑	
커뮤니티시설	시·군·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보급·전시설	문화원(문화의 집), 국악원, 전수회관	
교육·보존시설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특수도서관, 대학도서관
	박물관	국공립박물관, 시립박물관, 대학박물관

<표 2-4> 위에서 나타난 유형분류는 지방 문화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유형의 주 기능에 의한 분류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구분이 정석 화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표 2-5> 문화시설의 차이점

구 분	문화의 집	문예회관	문 화 원
목적	지역생활권내에 지역민 대상 문화교육·체험을 위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공연·전시·행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문화공간	지역 향토문화 연구 및 지역문화행사를 개발 보급하는 법인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 2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기능	계층별 문화교육 체험공간 퓨터강좌·종이접기·풍물교실 등 소규모 문화프로그램 운영	무용, 오페라 등 공연행사 및 전시회 개최, 지역행사 학술행사 등 장소활용	지역향토문화연구, 사료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강좌 실시
현황	○ 전국 170개소	전국 155개소	전국 224개소
시설내용	인터넷·비디오 등 문화 창작공간, 문화강좌, 체험 공간 (서예·도자기) 등 100평 내외	공연장(300~1,000석 이상) 전시장(200~500평 규모)	향토자료실, 교육공간 (100평~2200평)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 일부 민간위탁 운영	지방자치단체 * 일부 민간위탁 운영	사단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3. 문화시설의 기능

문화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를 담는 그릇인 문화시설의 개념 또한 명확하지가 않다.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총체적인 형상이 정신적 생활능력으로 구체화되고 다시 행위 패턴화 되어 이것이 발현 되는 곳으로 모든 문화 활동이 담길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27]

일반적 기능으로는 첫째, 참여의 장으로서의 기능이다. 현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혜택의 제공을 통한 욕구해소와 적합한 참여활동의 기회를 마련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시설의 완벽성 보다는 피수용인들의 욕구에 부흥하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방성으로서 각 시설별의 다양한 영역의 확대와 장르간의 융합과 그에 따른 새로운 장르의 개발 등을 통해서 영역을 확대해야하며, 문화시설공간으로서의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성 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회성을 들 수 있는데 앞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일반 대중에게 사회적 환경을 만련 해 주어야 한다. 공간 확보 등 다소 어려운 점이 많지만 시설 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시간의 여유를 문화시설공간 안에서 해결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시설확충을 통해서 정보공유, 지식습득 등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며, 또한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성을 가져야하는데 자신의 지역 내에서 창조적 문화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전문적 지식전달에 대한 활용 및 교육 등의 기능이 포함될 때 매우 효과적이다. 현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맞

27) 송종석 (1993). 『우리나라 사회공공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계획에 관한연구』. 한국과학재단, 286-287.

는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청소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환경이 미치지 못하는 다수에게서 사치품으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층과 젊은 세대들에게 전문적 지식제공을 통한 문화와의 어울림과 아울러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제공해 주어야하며, 전문 예술인들의 활용공간을 통해 앞서의 기능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친숙과 그로인한 친밀한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28)]

셋째, 노동시간의 축소로 여가 시간이 확대 될 경우 그동안 문화시설의 중심 이용자였던 학생과 주부 이외에도 중장년층 남성들과 노년층의 문화시설 이용 기회 역시 대폭 확대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세대별, 성별로 문화시설 이용자층이 확대 될 경우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시설운영 방식 역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확충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시설의 기능과 위상 역시 강화 될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아날로그 매체에서 디지털 영상매체로 보편화되면서 제작비나 감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존 문화시설 또는 신규 시설에서 영상정보기자재를 이용하려는 수요 역시 증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상미디어센터 및 영상정보아카이브의 구축 등을 통해 영상문화교육에 대한 점증하는 국민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양적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지만 향후 읍·면·동사무소 전체가 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의집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4,000여 개 상당의 이런 시설들과 현재 문화관광부와 관계된 1,200여 개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사이의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양적 규모는 결코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

28) 조석현 강병근 (1990). 『지역문화시설의 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권 2호, 271-276 재구성.

며,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며, 지역민들에게 더욱 더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것이다.

문화기반시설의 기능 또한 시대의 변화정도에 따라 목적이나 기능 역시도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현대는 소유의 시대가 아닌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라고 진단하고 있다. 개인의 체험과 상상력, 창의성, 이미지, 이념 등 지적자본이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9] 즉 이러한 자본들을 문화기반시설을 통하여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네트워크 시대, 접속의 시대로 사회가 전환 되면서, 물적 자본이 아닌 상상력과 창조력에서 창출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접속 시대에는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이 문화생산(cultural production)으로 전환되고, 문화적 경험(cultural experience)과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30]

향후 이러한 기능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연구와 문화생산에 따른 문화자원의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문화기반시설의 기능적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 가치로 다가서야 할 것이며, 현대의 사회적 발전에 따른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 문화생활의 근간이 되어야하고 문화지식의 발판이 되어야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서 창작과 발전을 이루는 바탕이 되어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을 때 문화기반시설의 진정한 기능적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29) J. Rifkin (2000). The Age of access, New York : Penguim Putnam Inc., 3-15
30)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학도서, 22.

Ⅲ.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1. 지역문화정책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확립과 시스템 구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지역문화의 현실은 급격한 근대화와 불균형 성장정책에 기인한 지역경제 격차로 지역 간 문화의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경제·사회·교육 불균형과 맞물리면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역의 문화향수실태는 매우 불균형적이다. 지역별 주요 문화시설의 보유현황 시설운용 및 주민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격차가 극심하여 미술관이 1개소도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3곳이나 있으며 가장 대중적인 영화관이 없는 군이 전체 군의 약 95%에 달하고 있다.

지역 문예회관의 약 42%가 연간 100일 미만의 공연실적을 보이고 있고 지역 군 단위 소재 문예회관으로 갈수록 공연 전문 인력 보유현황과 운영프로그램 기획 및 주민이용도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도 지역의 역사와 전통, 지역의 문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인 지역축제만 양산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상실되고 주민 참여적인 지역 문화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시설 건립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 단체장의 과시적 대규모 문화시설들의 건립으로 인해 양적팽창으로 인한 운영의 부실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는 관련 없는 선심성 대형 행사들로 문화의 무관심을 부추기는 역 현상이 발생 되고 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문화와 교육의 양극화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불균형은 앞으로 지역 간 격차로

심화 될 것이다. 지역 간 격차는 필연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생활문화가 재편될 것이며, 지역 공동화의 심화현상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아닌 왜곡되고 가분수적인 형태가 국가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역문화를 되살리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복원 시키는 것이자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문화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여 지역 문화진흥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31] '지역문화의 진흥'은 경제적 고도성장을 그 동안 희생 시켰던 '사회적 제가치의 분배문제'와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로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은 '문화 복지의 형평 분배'를 통해 완성 될 수 있다.

문화복지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를 넘어서 모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의 완성은 모든 국민이 문화권을 누리고 모든 지역에서 문화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진흥'은 문화복지 달성의 목표 가치이자 이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 수단 가치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것으로서 이는 21세기 지식산업시대의 도래로 '문화'가 경제·사회 발전에의 중심적 가치 및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문화진흥정책 방향으로 획기적인 지역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성을 인식하여 거시적이고도 종합적인 시각에 입각한 지역 문화진흥기반 마련을 위해「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광철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32]

31) 문화관광부 (2006). 『문화청백서』. 제3장 문화정책. 제3절 지역문화정책, 224
32) 문화관광부 (2006). 『문화청백서』. 제3장 문화정책. 제3절 지역문화정책, 224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현황

전문적인 대공연장이나 대학로에 밀집해 있는 소극장들은 주로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로서는 문예회관과 시민회관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회관은 주로 전문적인 공연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시·구민회관은 주로 집회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시설중심의 문화예술 공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광의적인 문화공간 즉 다수의 주체 행위를 포괄 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문화관광부는 2007년 정책발전계획에서 문화기반시설을 지속 확충(2011년 까지)하기 위해 도서관 750관, 박물관 500관, 문예회관 248관, 문화의 집 500개소, 각 지자체별로 지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위주의 공공문화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 문화체험, 교육,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추진배경으로는 2004년도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기본계획(2004. 2. 16)토대로,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제1장, 새문화정책) 수립, 발표(1998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수립(2002. 8),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방향 마련(2003. 6. 13), 2004년도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기본계획(2004. 2. 16)을 세웠으며 추진계획은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건립방안검토(2005년 하반기), 문화기반시설연구용역을 완료(2005년 상반기)한 상태이다.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인구수, 재정자립도, 국·공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을 통해서 지역별 인구대비 이용자 및 지역문화기반시설 현황 중심으로 비교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은 다음 <표 3-1>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에 대한 총괄 자료는 문화관광부(200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한

<표 3-1> 전국의 각 지역별 총괄 현황 (2006. 12. 31 기준)

시·도	인구수	재정자립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박물관				미술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49,334,402	48.35	1,431	572	315	227	30	534	431	155	169	107	103	24	75	4	155	170
서울	10,356,202	88.7	230	69	32	22	15	122	91	13	49	29	31	3	26	2	13	26
부산	3,635,389	70.2	53	26	11	12	3	18	15	6	0	9	3	1	1	1	5	4
대구	2,513,219	61.9	31	16	2	12	2	7	7	1	3	3	0	0	0	0	7	1
인천	2,644,871	67.7	24	12	4	8	0	6	3	1	1	1	3	1	2	0	5	1
광주	1,415,953	56.6	32	13	8	5	0	10	6	3	0	3	4	1	2	1	5	4
대전	1,466,158	71.7	39	15	13	2	0	19	16	3	6	7	3	1	2	0	2	3
울산	1,088,910	65.7	16	7	3	4	0	2	2	1	0	1	0	0	0	0	2	5
경기	10,906,033	79.9	248	99	82	10	7	109	86	31	43	12	23	4	19	0	22	18
강원	1,505,420	27.5	100	42	20	22	0	33	29	15	8	6	4	1	3	0	13	12
충북	1,511,885	33.3	69	26	11	15	0	28	23	9	6	8	5	2	3	0	8	7
충남	2,000,844	27.7	99	43	23	20	0	34	30	14	12	4	4	0	4	0	12	10
전북	1,881,840	23.9	91	38	20	17	1	24	21	11	4	6	3	2	1	0	15	14
전남	1,954,828	17.6	91	48	28	20	0	20	13	7	4	2	7	2	5	0	13	10
경북	2,718,298	20.8	120	52	23	28	1	39	35	18	6	11	4	1	3	0	16	13
경남	3,172,857	30.5	122	45	21	24	0	39	34	18	12	4	5	3	2	0	16	22
제주	561,695	29.9	66	21	14	6	1	24	20	4	15	1	4	2	2	0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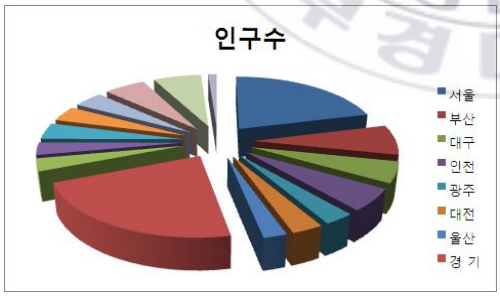
자료이다. 우리나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즉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을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등으로 나누어 내었다. 전체적인 총괄을 보았을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된 문화시설을 한눈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2%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다. 수량적으로 불균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을 논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인구대비 설치된 문화시설을 단순한 개수로 평가한다거나, 많은 운영비가 투입되는 문화시설과 그렇지 못한 문화시설을 비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의 자원에 투입된 요소와 산출된 요소의 결과로 효율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2> 지역별 인구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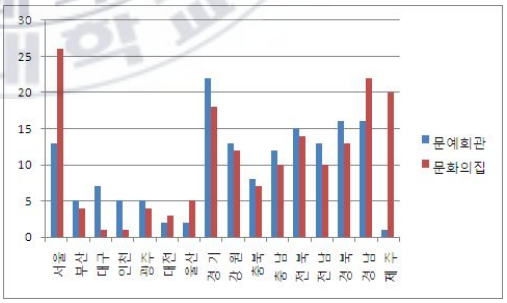
서 울	10,356,202	21%	강 원	1,505,420	3%
부 산	3,635,389	7%	충 북	1,511,885	3%
대 구	2,513,219	5%	충 남	2,000,844	4%
인 천	2,644,871	5%	전 북	1,881,840	4%
광 주	1,415,953	3%	전 남	1,954,828	4%
대 전	1,466,158	3%	경 북	2,718,298	6%
울 산	1,088,910	2%	경 남	3,172,857	6%
경 기	10,906,033	22%	제 주	561,695	1%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06년도 전체인구수 49,334,402, 공공도서관 572개소, 박물관 431개소, 미술관 103개소, 문예회관 155개소, 문화의집 170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인구수 대비 공공도서관 86,248명당 1개소, 박물관 114,464명당 1개소, 미술관 478,974명당 1개소, 공연, 전시, 행사의 목적으로 하는 문예회관은 318,286명당 1개소, 기존의 소규모 시설을 활용한 문화의 집은 290,202명당 1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3-1> 인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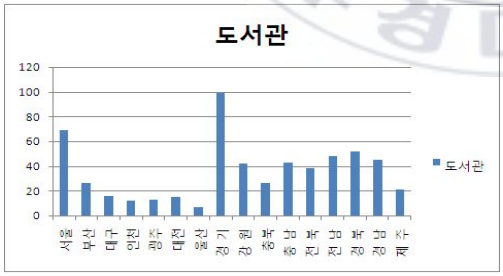
<그림 3-2> 문화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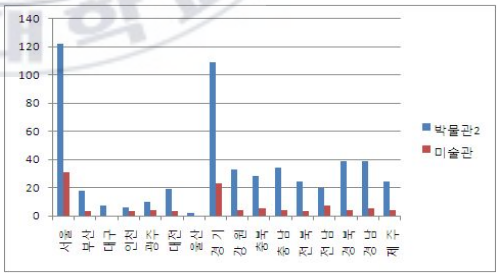
2006년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인구의 경기도 22%, 서울 21%, 부산 7% 등으로 특정지역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편차 또한 매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예회관에 비해 공간 확보의 용이한 점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가능한 문화의집 비율은 서울이 상위를 차지했고, 문예회관은 경기도가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새로운 문예회관 건립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 전국의 주요도시 내부에서는 건립이 어렵고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경기도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비교분석만으로도 지역의 문화시설 보유와 그에 따른 활용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1970년대의 대도시로의 이주로 인한 인구밀집현상이 낳은 결과 또한 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시설집중화 현상과 경제, 사회구성, 문화 등에 대한 편차가 심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체제로 인한 문화자율정책이 앞섰다면 이러한 결과치의 격차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인구수 감소 추세에 의해 지역에 대한 인구수 대비는 더 많은 편차를 보일 것이므로 기존의 인구수대비 문화기반시설의 건립에 대해 새로운 방향전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림 3-3> 도서관 수



<그림 3-4> 박물관 및 미술관 수



이미 문화기반시설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 까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인구수 대비 신도시 건설의 장점까지 가지는 경기도가 단연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또한 한편에

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문화의 세기’에 걸 맞는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중·장기사업을 통한 향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시설의 적절한 확충을 통한 지역별 격차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기반시설에서 진정한 문화에 의한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문화적 유산들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며,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세계화 추세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표 3-3> 2006 각 지역별 인구수 대비 이용자 수 비교

지 역	인구수	이용자수	%
서 울	10,356,202	2,430,544	23.4 %
부 산	3,635,389	706,927	19.4 %
대 구	2,513,219	1,117,620	44.4 %
인 천	2,644,871	685,922	25.9 %
광 주	1,415,953	610,258	43.0 %
대 전	1,466,158	266,992	18.2 %
울 산	1,088,910	435,514	39.9 %
경 기	10,906,033	4,105,391	37.6 %
강 원	1,505,420	1,040,546	69.1 %
충 북	1,511,885	1,155,499	76.4 %
충 남	2,000,844	806,872	40.3 %
전 북	1,881,840	1,076,837	57.2 %
전 남	1,954,828	1,001,636	51.2 %
경 북	2,718,298	1,286,545	47.3 %
경 남	3,172,857	1,502,698	47.3 %
제 주	561,695	225,083	40.0 %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인구대비 충북으로 총 인구수 1,511,885명, 이용자수 1,155,499명 76.4%에 달하는 시설(공연 등)의 이용률을 보였고, 경북 총 인구수 2,718,298명, 이용자수 1,286,545명으로, 경남의 총 인구수 3,172,857명, 이용자 수 1,502,698명으로 47.3%로 동률

을 차지했고, 대전 1,466,158명, 이용자수 266,992명으로 18.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기반시설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는 총 인구수 10,356,202명, 이용자수 2,430,544명으로 23.4%로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은 16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환경과 시설에 대한 선호도 혹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편향적인 선호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의 수준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예상보다 달라지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이용 결과로, 문화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 지역의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수준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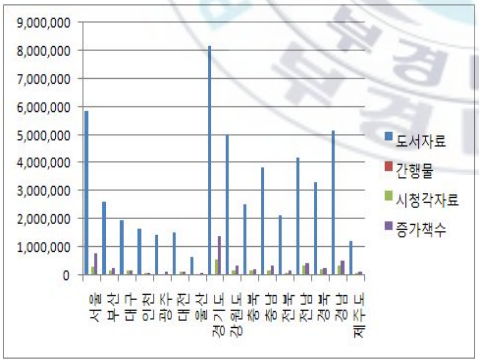
<표 3-4>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현황

도서관	시설규모				자료			
	부지(㎡)	건물(㎡)	열람석(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연간 증가책수
서 울	200,384	284,613	25,383	438,336	5,866,302	19,498	305,544	769,058
부 산	110,921	64,822	13,316	2,055	2,637,927	51,953	173,468	240,833
대 구	98,097	78,796	12,042	2,651	1,972,313	3,733	175,899	165,267
인 천	54,217	44,731	11,251	1,820	1,667,607	2,743	79,567	97,064
광 주	78,571	66,536	13,064	1,666	1,438,789	711	56,601	127,339
대 전	92,256	63,405	10,239	1,814	1,547,752	2,401	122,609	110,651
울 산	24,797	14,677	5,239	940	650,804	1,693	64,212	82,741
경 기	571,390	294,334	48,102	2,530	8,166,247	14,123	549,520	1,407,042
강 원	213,529	126,100	25,687	5,222	5,039,915	9,020	196,464	351,928
충 북	192,021	89,784	7,107	1392	2,536,032	2,971	166,056	213,550
충 남	264,615	128,588	22,234	6,845	3,841,658	3,987	160,420	340,544
전 북	181,700	74,888	14,186	3,817	2,142,157	1,309	86,629	189,119
전 남	307,958	111,400	25,644	6,056	4,213,301	4,259	359,569	418,960
경 북	221,857	87,751	21,124	2,525	3,340,359	6,462	231,614	275,749
경 남	292,539	131,858	24,990	6,221	5,138,921	10,495	334,635	538,805
제 주	171,935	38,620	6,768	2,468	1,243,415	740	78,872	151,452
합 계	3,076,787	1,700,903	286,376	486,358	51,443,499	136,098	3,141,679	5,48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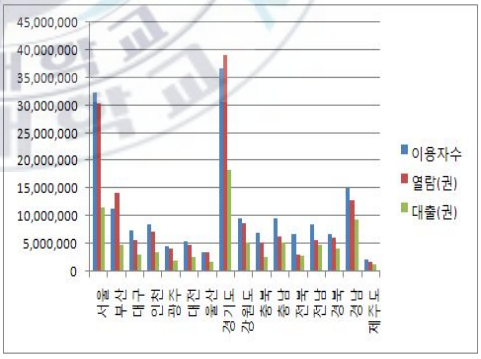
<표 3-5>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현황

도서관	직원 수		운영예산				이용현황		
	전체직원	사서직	소계	인건비	자료구입	기타운영비	이용자수	열람(권)	대출(권)
서 울	1016	466	59,329,790	45,119,144	5,152,304	18,955,395	32,404,579	30,280,489	11,483,422
부 산	413	162	25,744,048	14,641,766	2,331,337	8,770,945	11,385,596	14,143,488	4,716,655
대 구	328	127	19,484,446	13,094,509	1,586,175	4,821,762	7,507,169	5,758,725	3,036,596
인 천	237	115	14,841,154	9,174,768	866,667	4,808,718	8,465,148	7,270,816	3,524,609
광 주	250	85	18,874,725	9,450,436	940,486	8,383,803	4,548,412	4,242,844	2,060,005
대 전	227	101	14,110,218	8,675,636	929,184	4,475,378	5,552,867	4,745,097	2,577,165
울 산	128	52	6,516,105	4,112,569	633,062	1,897,785	3,527,956	3,561,472	1,768,383
경 기	904	405	87,388,093	21,573,085	12,070,800	53,744,208	36,643,527	39,141,061	18,288,064
강 원	558	222	23,089,401	10,576,697	2,744,339	10,638,385	9,594,773	8,782,911	5,349,010
충 북	348	141	23,589,452	13,211,932	1,541,536	8,835,984	6,940,709	5,343,483	2,593,711
충 남	489	146	29,112,769	13,908,372	3,280,576	11,852,499	9,610,098	6,346,013	5,287,772
전 북	1,450	88	18,776,733	8,431,824	1,754,457	8,630,052	6,786,654	2,987,837	2,929,139
전 남	499	191	32,304,870	17,184,690	3,937,931	11,180,253	8,511,514	5,752,724	4,719,133
경 북	390	144	25,613,232	13,688,301	2,617,862	7,100,549	6,762,846	6,150,688	4,060,613
경 남	659	295	42,268,357	20,594,517	5,792,796	15,881,044	15,025,846	12,991,130	9,479,524
제 주	154	47	7,593,453	3,695,538	1,169,700	3,408,369	2,264,858	1,796,195	1,254,046
합 계	8,050	2,787	448,636,846	227,133,784	47,349,212	183,385,129	175,532,552	159,294,973	83,127,847

<그림 3-5> 도서관 자료현황



<그림 3-6> 도서관 이용현황



<그림 3-5>에서 가장 많은 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으로 나타났고 도서의 증가 또한 경기도가 가장 많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6>의 이용률, 열람, 대출에 있어서도 단연 경기도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또한 경기도의 지식습득에 따른 사회전반의 환경적 요인 등을 살

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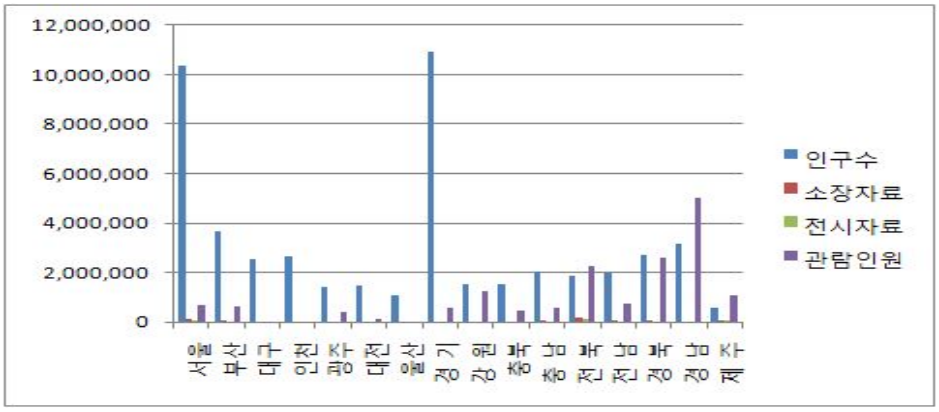
구 분	도서자료	증가책 수	%	이용자수	비율	열람(권)	비율	대출(권)	비율
서 울	5,866,302	769,058	13.10	32,404,579	5.52	30,280,489	5.16	11,483,422	1.95
부 산	2,637,927	240,833	9.12	11,385,596	4.31	14,143,488	5.36	4,716,655	1.78
대 구	1,972,313	165,267	8.37	7,507,169	3.80	5,758,725	2.91	3,036,596	1.53
인 천	1,667,607	97,064	5.82	8,465,148	5.07	7,270,816	4.36	3,524,609	2.11
광 주	1,438,789	127,339	8.85	4,548,412	3.16	4,242,844	2.94	2,060,005	1.43
대 전	1,547,752	110,651	7.14	5,552,867	3.58	4,745,097	3.06	2,577,165	1.66
울 산	650,804	82,741	12.71	3,527,956	5.42	3,561,472	5.47	1,768,383	2.71
경 기	8,166,247	1,407,042	17.22	36,643,527	4.48	39,141,061	4.79	18,288,064	2.23
강 원	5,039,915	351,928	6.98	9,594,773	1.90	8,782,911	1.74	5,349,010	1.06
충 북	2,536,032	213,550	8.42	6,940,709	2.73	5,343,483	2.10	2,593,711	1.02
충 남	3,841,658	340,544	8.86	9,610,098	2.50	6,346,013	1.65	5,287,772	1.37
전 북	2,142,157	189,119	8.82	6,786,654	3.16	2,987,837	1.39	2,929,139	1.36
전 남	4,213,301	418,960	9.94	8,511,514	2.02	5,752,724	1.36	4,719,133	1.12
경 북	3,340,359	275,749	8.25	6,762,846	2.02	6,150,688	1.84	4,060,613	1.21
경 남	5,138,921	538,805	10.48	15,025,846	2.92	12,991,130	2.52	9,479,524	1.84
제 주	1,243,415	151,452	12.18	2,264,858	1.82	1,796,195	1.44	1,254,046	1.00

<표 3-6>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이용 현황에서 도서관 자료수와 이용자수에 대해 각 지역별 도서관 활용도를 살펴보면 도서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시·도는 경기도로 도서자료 수 8,166,247권, 서울 5,866,302권, 경남 5,138,921권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수에서는 경기도 이용자수 36,643,527명, 4.48명 중 1명, 서울 이용자수 32,404,579명중 4.48명 중 1명, 경남 15,025,846명 2.92명 중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의 경우는 도서보유량이 16 개 시·도 중 최하위이면서 이용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도서 1권당 5.42명으로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도서이용이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도로 도서1권당 1.82명으로 도출 되었다. 단 그 지역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 자료의 다양성과 자료의 수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표 3-7>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현황

박물관	운영인력		시설현황								자료현황		관람인원 (명)
	합계 (명)	학예사 (명)	계(㎡)	전시실 (㎡)	수장고 (㎡)	연구실 (㎡)	세미나실 (㎡)	도서실 (㎡)	기타 (㎡)	기타부지 (㎡)	소장 자료(점)	전시자료 (점)	
서 울	120	21	81	30,054.00	1,872	2,240	288	726.5	936	8,086	113,103	53,187	677,264
부 산	97	14	33,190.00	21,910.00	5,352.00	272.10	1,471.00	327.27	3,858.95	16,084.00	69,950	-	620,755
인 천	14	4	2,692	762	226	40	-	35	1,629	-	5,791	-	휴관
광 주	37	9	8,459	3,970	424	214	488	60	3,303	-	10,957	-	366,561
대 전	11	1	2,117	1,246	66	178	-	89	538	-	29,831	28,751	97,750
울 산	-	-	-	-	-	-	-	-	-	-	-	-	-
경 기	65		29,782	9,379	743	418	313	469	5,436	136,375	9,783	-	579,505
강 원	96	10	25,302.00	11,791.00	2,327	683	977.9	495	8,454	163,484.00	27,821	3,309	1,249,081
충 북	48	6	16,525	6,754	948	400	1213	302	6,932	146,018	11,732	2,473	460,061
충 남	92	9	13,435.00	8,205	1,358	319	223	283	3,025	104,668	40,730	-	544,954
전 북	86	3	195,788.00	10,760.00	2,018	701	584	465	5,943	381,605	172,732	134,991	2,225,765
전 남	58	3	78,431	6,738	786	513	465	754	1,747	50,064	79,116	4,218	731,497
경 북	117	9	26,934	19,101	1,917	357.8	983	297	3,791	36,816.5	53,955	8,227	2,603,545
경 남	80	12	35,710	10,374	1,265	537	1,109	429	7,351	145,623	21,349	791	5,002,390
제 주	78	8	15,419	7,824	638	581	1,044	927	4,405	97,5104	58,320	58,320	1,079,513

<그림 3-7> 박물관현황 및 이용자 수



<표 3-8>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소장 자료 및 이용자 현황

박물관	인구수	소장자료(점)	비율(명)	전시자료(점)	비율(명)	관람인원(명)	비율(명)
서 울	10,356,202	113,103	91.56	53,187	194.71	677,264	12.73
부 산	3,635,389	69,950	51.97	-	-	620,755	-
광 주	1,415,953	10,957	129.22	-	-	366,561	-
대 전	1,466,158	29,831	49.14	28,751	50.99	97,750	3.39
경 기	10,906,033	9,783	1,114.79	-	-	579,505	-
강 원	1,505,420	27,821	54.11	3,309	454.94	1,249,081	377.47
충 북	1,511,885	11,732	128.86	2,473	611.35	460,061	186.03
충 남	2,000,844	40,730	49.12	-	-	544,954	-
전 북	1,881,840	172,732	10.89	134,991	13.94	2,225,765	16.48
전 남	1,954,828	79,116	24.70	4,218	463.44	731,497	173.42
경 북	2,718,298	53,955	50.38	8,227	330.41	2,603,545	316.46
경 남	3,172,857	21,349	148.61	791	4,011.19	5,002,390	6,324.13
제 주	561,695	58,320	9.63	58,320	9.63	1,079,513	18.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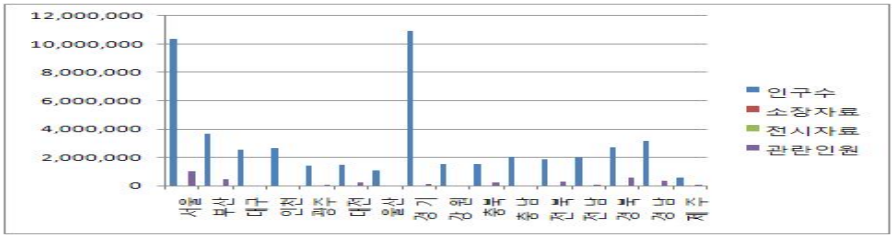
<표 3-8> 각 지역 박물관의 소장 자료 보유 면에서 전북, 서울, 전남 순서로 나타났고, 인구수 대비 소장 자료가 1점당 1,114.79명인 경기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점당 9.63명, 전시자료는 전북, 제주, 서울로 나열되며 인구수 대비 전시자료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1점당, 4,011.19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점당 9.63명으로 나타났다. 관람인원에서는 인구수 대비 이용자수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유물 1점당 6,324.13명이 관람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물 1점당 3.39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물 1점당에 대한 관람인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1점당의 관람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적이기 때문이고 그 외적 변수로는 적은 수의 유물이라 하더라도 유물의 특이성 희소성 등에 따라 관람자의 수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의 예로 경남의 전시유물이 791점에 비해 이용자수는 5,002,390명으로 전국에서 최다 관람인원을 불러들였다. 그 이유는 2004년 11월에 경남고성군이 공룡박물관 개관과 “2006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주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성 탈박물관의 개관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1주년 기념인 2005년 11

월 까지 전국의 57만 명의 관람 기록을 세웠다.[33] 이런 한 관람유형이 이외의 다른 시설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되었을 것으로 본다. 한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설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표 3-9> 지방자치단체 미술관 현황

미술관	운영인력		시설현황								자료현황		관람인원 (명)
	합계 (명)	학예사 (명)	계(㎡)	전시실 (㎡)	수장고 (㎡)	연구실 (㎡)	세미나실 (㎡)	도서실 (㎡)	기타(㎡)	기타부지 (㎡)	소장자료 (점)	전시자료 (점)	
서 울	63	-	7,316	5,127	1,007	198	185	265	534	42,813	2,002	-	991,961
부 산	43	7	21,425	6,455	1,399	1,089	469	235	11,778	21,560	745	-	458,498
대 구	-	-	-	-	-	-	-	-	-	-	-	-	-
인 천	7	1	2,517.43	1,715.45	811.98	29.9	-	30.6	46.89	-	8,000	400	-
광 주	34	7	14,560.65	13,973.65	357	104	-	126	-	-	2,679	-	66,712
대 전	30	7	8,407.37	2,345	807		101	246	4,908.37	28,827.75	638	101	229,114
울 산	-	-	-	-	-	-	-	-	-	-	-	-	-
경 기	51	4	29,141	5,703.58	1,119.02	66	642	197	8,183.78	126,677	1,867	-	118,936
강 원	4	1(1)	684.26	263.35	67.95	32.34	123	32.59	288.03	17,833.06	466	457	20
충 북	17	3	4,533.22	1,638.04	143.33	249.52	442.15	43.4	2,016.78	14,547	1,531	567	227,964
충 남	-	-	-	-	-	-	-	-	-	-	-	-	-
전 북	20		7,371.43	1,769.87	387.2	351.86	515.19	127.94	4,255.87	14,548.02	622	250	308,574
전 남	11	1	2,698.54	1,815.8	239.5	168.9	27	46.2	400	22,554	8,059	-	565,23
경 북	8	1	1,670	814	109	65	115	130	544	11,011	835	365	562,234
경 남	73	8	21,915.88	9,096.51	1952.64	190.56	731.54	330.92	9,613.75	67,182.03	5,742	4,188	350,646
제 주	6	-	1,080	894	88	35	-	56	24	-	756	600	67,402
합 계	367	39	123,321	51,611	8,489	2,580	3,351	1,867	42,593	367,553	33,942	6,928	3,438,584

<그림 3-8> 미술관현황 및 이용자 수



33) www. museum.goseong.go.kr

<표 3-10> 지방자치단체 미술관 소장 자료 및 관람자수

미술관	인구수	소장 자료(점)	비율(명)	전시자료(점)	비율(명)	관람인원(명)	비율(명)
서 울	10,356,202	2,002	5,172.92	-	-	991,961	-
부 산	3,635,389	745	4,879.71	-	-	458,498	-
대 구	2,513,219	-	-	-	-	-	-
인 천	2,644,871	8,000	330.60	6,612.2	399.99	-	-
광 주	1,415,953	2,679	528.53	-	-	66,712	-
대 전	1,466,158	638	2,298.05	14,516.4	101.00	229,114	15.78
울 산	1,088,910	-	-	-	-	-	-
경 기	10,906,033	1,867	5,841.47	-	-	118,936	-
강 원	1,505,420	466	3,230.51	3,294.1	457.00	20	0.00
충 북	1,511,885	1,531	987.51	2,666.5	566.99	227,964	85.49
충 남	2,000,844	-	-	-	-	-	-
전 북	1,881,840	622	3,025.46	7,527.4	249.99	308,574	40.99
전 남	1,954,828	8,059	242.56	-	-	56,523	-
경 북	2,718,298	835	3,255.44	7,447.4	364.99	562,234	75.49
경 남	3,172,857	5,742	552.57	757.6	4,188.03	350,646	462.83
제 주	561,695	756	742.98	936.2	599.97	67,402	71.99

<표 3-10> 지방자치단체 미술관 소장 자료 및 관람자 수에서는 각 지역 미술관의 소장 자료 보유 면에서 전남 8,059점, 인천 8,000점, 경남 5,742점 순서로 나타났고, 인구수 대비 소장 자료가 1점당 5,841.47명인 경기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점당 242.56명, 전시자료는 대전, 전북, 경북 순으로 나열되고 인구 수 대비 전시자료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1점당, 4,188.03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1점당 101명으로 나타났다. 관람인원에서는 인구 수 대비 이용자수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작품 1점당 462.83명이 관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유물 1점당 0.0060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물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작품 1점당에 대한 관람인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1점당의 관람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적이고 그 외적 변수로는 작품의 특이성 희소성 등에 따라 관람자의 수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3-11> 문화기반시설의 인력현황

구 분	직 원	전문직	편차	%
도서관	8,050	2,787	5,263	34.62
박물관	999	109	890	10.91
미술관	367	39	328	10.62
문예회관	2,871	914	1,957	31.83
문화의집	335	0	0	0

<표 3-11>의 인력현황에서 도서관의 경우 직원 8,050명 중 전문직은 2,787명으로 직원과 전문직과는 5,263명의 차이를 보이고, 직원의 34.62%에 해당된다. 박물관은 직원 999명 중 전문직은 109명으로 890명의 차이가 나고 직원의 10.91%에 해당한다. 미술관은 미술관 인력 중 직원 367명, 전문직은 39명으로 차이는 328명, 이는 직원의10.62%에 해당되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문예회관은 직원 2,871명 중 전문 인력 914명으로 1,957명의 차이를 보이고 직원의 31.83%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과 전문직 수의 편차가 큰 순으로 나열하면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은 도서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이용이 용이하므로 가장 이용자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만큼 도서관 업무상 자료정리, 대출 등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다. 문화회관은 공연 등의 행사를 위주로 하는 업무로 기획, 홍보, 무대관리, 기기관리 공연진행 등에 많은 투입인력이 필요로 하며,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활동의 근간이 되는 문화의 집은 시설 활성화의 역할에 비해 직원 만 335명으로 전문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들의 문화욕구에 따라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따른 활용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전문 인력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2>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현황 (2006.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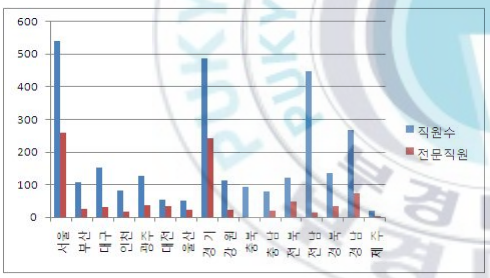
운영주체	연면적(㎡)	대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직원수	전문직원수	공연일수	전시일수	공연유료관객	총이용자수	연간운영비(백만원)	공연및대관수입(백만원)
		객석수	면적(㎡)	객석수	면적(㎡)	객석수	면적(㎡)									
서울	189,677	9,053	27,50	-	-	1713	4,757	5,362	541	259	2,968	2,851	829,480	2,430,544	61,350	9,364
부산	84,348	3,523	29,621	781	7,210	1,347	8,947	3,369	107	27	1,377	943	323,531	706,927	18,860	1,494
대구	46,638	4,744	1,4833.88	3,200	8,081	440	783.4	5,715.29	151	33	,1070	1,546	193,847	1,117,620	14,946	1,204
인천	53,570	4,789	9,174	1,504	6,049	1,909	5,310	3,252	81	20	1,142	623	423,672	685,922	17,675	516
광주	73,351	3,719	16,555.48	464	632	509	5,272.8	1,087.45	128	39	1127	692	240,429	610,258	1,4141	706
대전	44,227	1,546	3,291	-	-	855	1,818	307	54	35	195	133	107,380	266,992	8,172	1,455
울산	29,409	1,966	14,996	1,966	14,996	472	4,874	1,886	50	24	481	867	130,599	435,514	4,601	267
경기	354,676	20,016	110,905	2,178	17,448	5,799	27,564	10,173	486	244	3,780	3,103	1,165,906	4,105,391	75,502	12,457
강원	90,096	7,602	17,391.83	-	-	1784	2,225	4,886.6	112	25	1,279	1,269	190,148	1,040,546	9.96,243	107,158
충북	48,780	4,857	11,655	2,593	2,014	296	1,627	6,018	93	2	678	322	727,969	1,155,499	13,623	743
충남	58,599	8,435	16,049.73	8,398	16,352.53	1798	4,907.4	3,997.4	78	23	1,892	685	264,524	806,872	8,693	446
전북	114,089	13,645	34,981	2,576	17,098	1,341	6,915	10,767	121	49	1,371	1,477	325,419	1,076,837	10,163	2,053
전남	61,263	6,921	18,343	2,798	22,314	2,786	6,140	5,749	447	17	2,637	1,594	312,640	1,001,636	11,360	944
경북	100,406	11,201	25,566	1,427	3,908	1,898	3,118	5,363	134	35	1,858	1,636	343,065	1,286,545	20,739	1,768
경남	156,256	12,251	43,773	-	-	3973	14,873	6,656	268	76	1,757	1,825	434,183	1,502,698	14,485	2,118
제주	7,222	892	4,898	892	4,898	200	544	778	20	6	369	702	4,366	225,083	8,831	153
합계	1,512,587	115,140	374,783.92	28,777	121,000.53	27,120	99,675.6	75,366.74	2,871	914	23,981	20,268	6,017,158	18,454,884	1,299,384	142,846

<표 3-13>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총 이용자 수 및 유·무료관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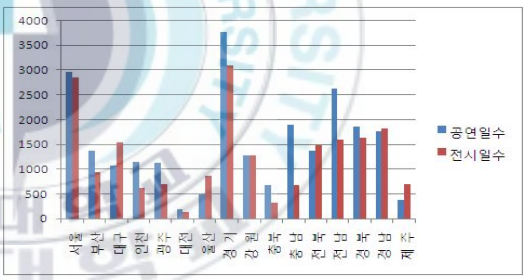
구 분	공연일수	총 이용자수	공연 1일 관객수	공연유료 관객	이용자수 비율%	공연무료 관객	이용자수 비율%
서 울	2,968	2,430,544	818.9164	829,480	34.12	1,601,064	65.87
부 산	1,377	706,927	513.382	323,531	45.76	383,396	54.23
대 구	1,070	1,117,620	1044.505	193,847	17.34	923,773	82.65
인 천	1,142	685,922	600.6322	423,672	61.76	262,250	38.23
광 주	1,127	610,258	541.4889	240,429	39.39	369,829	60.60
대 전	195	266,992	1369.19	107,380	40.21	159,612	59.78
울 산	481	435,514	905.4345	130,599	29.98	304,915	70.01
경 기	3,780	4,105,391	1086.082	1,165,906	28.39	2,939,485	71.60
강 원	1,279	1,040,546	813.5622	190,148	18.27	850,398	81.72
충 북	678	1,155,499	1704.276	727,969	63.00	427,530	36.99
충 남	1,892	806,872	426.4651	264,524	32.78	542,348	67.21
전 북	1,371	1,076,837	785.4391	325,419	30.21	751,418	69.78
전 남	2,637	1,001,636	379.8392	312,640	31.21	688,996	68.78
경 북	1,858	1,286,545	692.4354	343,065	26.66	943,480	73.33
경 남	1,757	1,502,698	855.2635	434,183	28.89	1,068,515	71.10
제 주	369	225,083	609.981	4,366	1.93	220,717	98.06

<표 3-13>에서 문예회관 총 공연일수에서는 가장 공연을 많이 한 지역은 경기도, 서울, 전남의 순으로 나타나고 이용자수는 총 이용자 수 대비 경기도, 서울, 경남의 순서로 관람이 이루어졌고, 총 이용자 수 대비 유료관객 점유율에서는 충북, 인천, 부산이며, 무료관객의 경우는 제주도 98.06%로 대구 82.65%, 강원도 81.72%이며 이러한 무료관람으로 인해 예산대비 수익측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제공적 차원에서는 다소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경남의 경우는 공연일수 대비 관람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획공연을 주로 하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제도의 거제문화예술회관, 창원시의 성산아트홀, 김해시에 새로 건립 개관한 김해예술의 전당이 그것이다.

<그림 3-9> 문예회관 직원·전문 인력



<그림 3-10> 문예회관 공연·전시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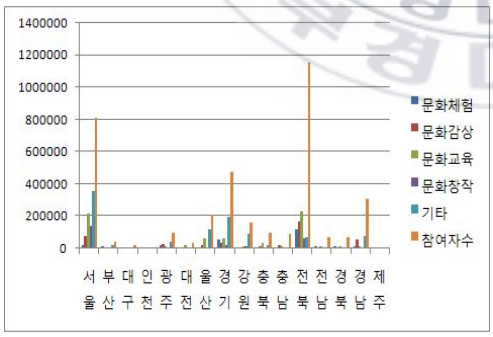


<그림 3-9>의 직원 및 전문 인력과 <그림 3-10>의 공연일수 및 전시일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그래프 상에서의 전국 16개 시·도 중 상위를 경기도가 차지했고 경기도의 경우는 신도시라는 장점과 교통 및 지리적 환경, 놀이문화, 문화기반시설의 신설건물과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유용한 공간들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등 지역의 많은 유동인구수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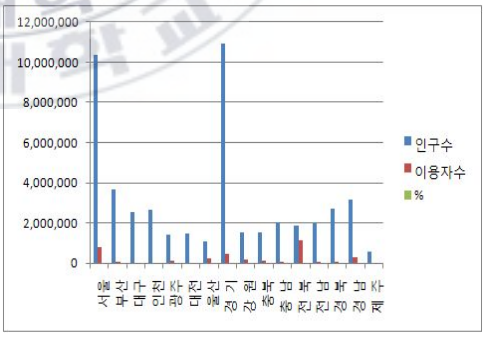
<표 3-14> 문화의집 현황 (2006. 12. 31 기준)

운영주체	연간 운영비 (백만 원)	운영 인력 현황	운영시설현황(단위 : ㎡)												운영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명)
			문화 관람실	문화 창작실	문화 사랑방	비디오 감상실	인터넷 부스	A/V 부스	CD 부스	자료실	휴게실 놀이방	안내 데스크	기타		문화체험 (명)	문화감상 (명)	문화 교육 명	문화 창작 명	기타 명	
서울	2,455.59	66	3,405.97	1,175.97	649.47	222.56	552.16	5,22.03	248.4	1,275.83	1,041.16	275.64	3,240.91		22,858	80,696	216,757	138,356	357,605	808,564
부산	719	14	316.64	273.06	138.34	-	218.48	113	29.87	45.96	266.92	45.61	417.95		11,204	7,223	6101	1,530	19,101	42,626
대구	23.5	1	125.66	73.07	50.4	-	30.69	26.32	33.01	12.3	94.5	11.9	647.32		1,650	4,296	2,160	660	120	16,920
인천	11	1	99	-	17	-	23	17	201	23	10	63	43		-	4,455	-	-	-	4,455
광주	328	9	428.2	104.95	93.74	103.9	198.06	88.3	-	31.12	150.57	31.86	491.46		22,750	30,871	18,587	8,437	43,782	94,054
대전	107	6	506.64	130.87	96.82	-	140.13	37.43	-	128.83	1,153.72	126.91	710.29		438	1,235	21,825	-	8,019	29,944
울산	301	15	731.367	293.49	142.377	19.15	196.137	88.235	229.521	77.243	367.592	104.258	3,497.72		571	19,338	67,680	4,339	117,285	209,213
경기	2,373.49	40	2,130.81	563.75	469.01	105.9	587.3	317.26	122.4	292.81	628.89	272.73	2,033.33		55,779	36,977	66,536	24,946	196,389	477,509
강원	542.1	27	2,330.58	611.49	568.06	90.93	657.95	166.81	261.76	286.39	782.21	68.79	280.35		9,907	9,614	18,906	1,2032	91,262	159,622
충북	280,213	18	512.89	172.12	110	30.16	189.73	110.57	64.7	96.4	72.81	24.17	815.75		10,427	1,7611	36,344	8,607	24,588	97,577
충남	583.9	26	1,078.38	242.29	279.85	14.3	174.14	160.29	65	244.41	458.49	70.28	586.11		3,288	20,565	14,095	3,100	7,150	88,275
전북	685.21	29	1,375.29	582	326.27	91.78	452.11	255.62	94.18	251.13	640.35	346.17	1,794.48		122,689	167,098	234,170	64,834	71,787	1,156,366
전남	725	17	916.66	370.03	269.72	-	325.64	216.78	287.38	311.48	962.38	408.91	212.22		16,091	10,064	15,595	5,112	8,033	65,491
경북	685.21	17	916.66	370.03	269.72	-	325.64	216.78	287.38	311.48	962.38	408.91	212.22		16,091	10,064	15,595	5,112	8,033	65,491
경남	123	49	2,702.77	515.42	550.41	30.33	351.71	285.05	109.66	522.53	303.65	301.78	1207		16,510	59,074	16,052	9,032	76,848.2	308,962
제주	-	-	-	-	-	-	-	-	-	-	-	-	-		-	-	-	-	-	-
합계	289,876	335	17,577.517	5,478.54	4,031.187	709.01	4,422.877	2,621.475	2,034.261	3,880.913	330,966.78	2,760.98	16,190.111		310,253	474,181	750,403	286,097	1,030,022	3,625,069

<그림 3-11> 문화의 집 현황



<그림 3-12> 문화의 집 이용자 수



<그림 3-12>와 <그림 3-13>은 각각의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자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고장답게 고장의 문화전통계승을 위주로 한 전북이 단연 우위를 차지했고, 이용자수에서는 경기도로서 아직까지는 신도시라고는 하나 기존의 전통을 중시하는 중·소도시들의 기득권

층이 두터운 지역으로 그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표 3-15> 문화의집 이용자 수

지역	인구수	이용자수	%
서 울	10,356,202	808,564	7.80
부 산	3,635,389	42,626	1.17
대 구	2,513,219	16,920	0.67
인 천	2,644,871	4,455	0.16
광 주	1,415,953	94,054	6.64
대 전	1,466,158	29,944	2.04
울 산	1,088,910	209,213	19.21
경 기	10,906,033	477,509	4.37
강 원	1,505,420	159,622	10.60
충 북	1,511,885	97,577	6.45
충 남	2,000,844	88,275	4.41
전 북	1,881,840	1,156,366	61.44
전 남	1,954,828	65,491	3.35
경 북	2,718,298	65,491	2.40
경 남	3,172,857	308,962	9.73
제 주	561,695		0

<표 3-15>의 문화의집 이용자 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인구대비 전북으로 총 인구수 1,881,840명 중 61.44%에 해당하는 1,156,366명이 이용을 하였고 2위는 총 인구수 1,088,910명 중 19.21%에 해당하는 209,213명이 이용한 울산이 차지했으며, 3위는 강원도로 10.60%가 이용을 했고, 최하위는 인천 총인구수 2,644,871명 중 0.16%의 4,45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은 총 이용자수 308,962명이고 9.73%의 이용으로 4위를 했고, 부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1.17%로 전국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이용에 대한 격차가 전북과 인천을 비교 했을 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역시 문예회관과 더불어 지역별의 특성과 환경, 각 시설의 위치 및 환경, 기능 외 운영체제와 지역민의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많을 것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우리전통 문화인 소리의 고장다운 면모를 통한 판소리에 대한 다양한 프로

그램 운영 및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의 좋은 표본이라 할 것이다. 문예회관과의 다른 점은 시·도별 홍보의 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자료의 양과 질에 따른 변수도 문화의 집 이용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많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6>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연 도	지자체 전체예산	문화예산		분야별예산			
			%	문예 진흥	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2002	855,501	17,427	2.0	8,547	685	4,510	3,684
2003	878,464	17,901	2.0	8,896	780	4,493	3,732
2004	974,302	22,950	2.4	11,686	838	6,213	4,213
2005	1,061,707	25,240	2.4	12,714	1,669	6,285	4,572
2006	1,177,253	24,748	2.1	13,578	1,756	5,902	3,512
※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도부터 문화관광 분야 재정 현황 및 추이에 따라 파악.							

<표 3-16> 지난 5년간 문화관광부 재정(예산+기금) 운용추이를 보면 2002년 1,78조원에서 2006년 2,31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하였으며, 이중 예산규모는 2002년 1,03조원에서 2006년 1,29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하였다. 기금은 2002년 0,75조원에서 2006년 1,01원으로 연평균 7.9% 증가 하였고, 문화예산 중에서 문예 진흥예산은 매년 평균 2%로의 증가율을 보이고, <표 3-15> 지난 5년간 문화관광부 재정 (예산+기금) 운용추이를 보면 2002년 1,78조원에서 2006년 2,31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하였고, 이중 예산규모는 2002년 1,03조원에서 2006년 1,29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하였다. 기금은 2002년 0,75조원에서 2006년 1,01원으로 연평균 7.9% 증가 하였고, 문화예산 중에서 문예 진흥예산은 매년 평균 2%로의 증가율을 보인다.

<표 3-17> 정부예산대비 문화관광부 예산<총규모> 점유율 변화 (단위 : 억 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증가율(%)
계(지출규모 기준)	17,826	18,891	19,043	21,234	23,073	6.7
예산	10,345	11,217	11,584	11,741	12,948	5.8
기금	7,481	7,674	7,459	9,493	10,125	7.9
【문화관광부 소관】	17,826	18,891	19,043	21,234	23,073	6.7
문화예술부문	7,051	8,115	8,671	9,697	10,562	10.6
관광부문	4,260	4,806	5,291	6,297	6,381	10.6
체육부문	4,942	4,190	3,207	3,376	4,090	4.6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573	1,780	1,874	1,864	2,050	6.8

※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2006년 12월 31일 폐지된 문화산업진흥기금(20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포함
※ 새로운 문화예산 분류별 따른 부문별 예산 규모임

<표 3-18>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단위 : 백만 원, %)

연도 / 구분	1973~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비중	비고
모금	241,170	28,791	38,293	48,434	53,582	7,943	267	71	418,551	24.2	
국고	134,722	50,000	-	-	-	-	-	-	184,722	10.7	
공익자금	155,907	3,000	2,000	1,583	2,000	1,700	1,100	-	167,290	9.7	방송발전기금
복권기금	-	-	-	-	-	44,584	50,406	53,770	148,760	8.6	
이자	261,522	46,368	37,552	29,721	26,570	28,376	28,909	25,972	484,990	28.1	
기타	228,664	8,381	6,580	18,525	14,372	13,158	15,988	18,597	324,265	18.7	
계	1,021,985	136,540	84,425	98,263	96,524	95,761	96,670	98,410	1,728,578	100.0	

※ 기타내역 : 건물대여료, 민간출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골프장수익금 등, 잡수입, 보건부기부금수입, 이월 설정사업 액

3. 문화기반시설의 향후 효율성에 의한 정책방향

문화는 인간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중의 하나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확립과 시스템구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의 시설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OECD기준을 제쳐두더라도 문예회관의 경우 인구수대비 서울이 13곳 이지만 실제 공연,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세종문화회관을 위시하여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 서너 곳에 불과하며, 부산의 경우도 2007년 해운대문화회관의 개관으로 5곳 이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은 부산문화회관 및 시민회관, 해운대문화회관의 3곳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시설 적 측면에서의 구·군별 특성에 맞추어서 건립되기는 했지만 지역 내에서의 공유체제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력 면에서 규모가 작은 구·군의 문예회관은 자체적으로 공연예술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실시 이후 구·군 공연장 간의 상호교류가 부족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운영상에 대한 인적자원, 재정자원 등의 이유가 가장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다소 지역적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시설로서의 효율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문화기반시설로서의 목적과 문예회관의 부족한 영역을 매워갈 소규모 극장들의 원론적인 목적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가 대규모극장으로의 편파적 현상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지역문화의 현실은 급격한 근대화와 불균형 성장정책에 기인한 지역경제 격차로 지역 간 문화의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경제·사회·교육 불균형과 맞물리면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역문화를 되살리고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여겨진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전 국민에게 문화 활성화 일환으로 저렴한 가격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었고 또한 운영 면에서는 각 시·도 소속의 시립예술단체를 두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전통문화계승 발전 및 시·도별 문화공유와 지역민들에게 문화로서의 혜택이 많이 제공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의 자율성을 통해 많은 기획물들에 의한 공연들과 전시 등이 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과의 비교우위를 차지하면서, 수입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선호, 유행에 의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문화향수 기회제공이 목적이었던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낮은 수익으로 인해 시설투자 및 확충, 예산대비 운영에 관한 역효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서울의 '예술의 전당'은 자체공연기획을 목적으로 수익적 측면에서의 해소와 시설로서의 합목적성 달성과 아울러 문화의 질적 수준들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의 운영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2000년 이후의 각 지방별 문예회관 건립의 목적은 예술단을 배제한 기획공연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시립예술단 인건비 예산대비 기획공연의 예산 지출이 합리적 이기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활성에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첫째, 각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확충에 있어서의 기능성이 떨어지며, 둘째, 각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들이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활성화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로 이어져야 하는데 운영상의 요인들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원래의 취지인 지역 간의 문화를 통한 화합에도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의 문제들로 인한 지역 간 문화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을 비롯한 국·공립시설들이 대부분 외곽으

로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는 거리상, 시간상의 문제가 발생하며, 문화의 집은 기존의 보유시설과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의 연계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앞서 시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 업무체제개선과 업무의 호환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 내에서의 문화전달과 보급을 통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의 발판이 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지역 내 화합과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해결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시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 인력의 보유와 운영이다. 예술교육 전문교육과정은 외형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으나, 교수인력 및 커리큘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장 밀착형 전문 인력 양성체계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지자체 예산의 2%선으로 주요선진국의(4%)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가예산(문화관광부)의 지방부문 투입비율은 현 43% 수준이나 특정지역 대상 국책사업에의 자금 집중화로 인한 지역 예산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별 공연장 및 문화시설의 규모나 시설설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지역의 인구수 생산 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시설의 수나, 시설의 전체 공간, 수용공간, 활용 공간, 확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문화산업 측면에서의 클러스터(Cluster) 즉 문화예술관련 집약적 연관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아 시설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시민참여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동기 및 기회부여를 통한 관심 유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건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건립에 따른 유효한 부가시설, 즉 시설 본래의 목적 외에 여가와 휴식의 공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노인층, 청소년들의 공간들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지 문화만을 즐기는 공간이라면 시설로서의 활용 측면과 실용적 측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글로벌 시대에 홍보는 마케팅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나아가 세계인을 향해서 국가의 상품과 능력을 마케팅 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활동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확충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다양한 연령대별, 장르별의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을 활용 문화구매를 설득시키는 기능까지 보다 폭 넓은 정책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시설과 이용의 주체인 지역민간의 다양한 방법의 정보공유를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방법과 정책을 통하여 더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에의 접근과 시설 이용을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

Ⅳ. DEA에 의한 문화시설 효율성 측정

1. 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이론

문화시설 효율성 성과평가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공공 서비스가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가.”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것이다.

효율성 성과평가는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서 평가 대상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성과의 개선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34] 특히 평가는 기관의 목적 달성 정도와 현존 활동에 대해 환류적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공헌하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조직의 성과평가에서 효율성(efficiency)은 산출과 투입의 비율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배분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35]으로 분류된다.

기술적 효율성은 일정량의 산출물을 생산 할 때 투입물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요소 벡터에 대한 모든 기업의 생산요소 벡터의 상대적 비율로 측정된다. 배분의 효율성은 생산요소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는 경우

---

34) D. N. Ammons (1995). Overcoming the inadequacies of performance in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libraries and leisure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1), 37~47; 박기관 (2001). 지방 정부의 행정 성과 평가 및 적용 모형에 관한 연구: 시·군성과 및 노력도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권 1호, 63~84; 박광덕 (2001). 사회 복지 정책의 평가 지표 체계 구성 사례 연구. 『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회 비전』. 서울: 한국행정학회, 521~541.

35) M. J. Farrell (1957). The Measurement of Productivity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20*, 253~290.

일정량의 산출물 생산을 위해 총 생산비용을 극소로 하는 생산요소의 배합을 말한다. 기술적 효율성은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규모효율성은 기업의 생산규모가 사회적으로 최적 규모 상태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순수기술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에서 규모효율성의 효과를 제거한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모형은 함수적 접근법, 생산성 지수 법, 비율분석법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에 DEA 측정 모형이 있다.

함수적 접근법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Cobb-Douglas 모형, 자수법(index approach)이 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결합 관계를 유도해 줌으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호관련성의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며 변수들 간의 종속관계의 성격을 알려주는 기법이며, Cobb-Douglas 모형은 총생산물지수의 함수형태인 $Q = a\ L^{\alpha} \cdot K^{\beta}$를 일반화한 모형이며, 지수 법은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단일지수 또는 종합점수로 나타내어 기업 경영의 양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부문 생산성 지수 법, 총 요소 생산성 지수 법, 총생산성지수별으로 대별된다.

생산성 지수 법은 생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것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 진 것과의 비율인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사용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산출량을 물량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금액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물적 생산성과 가치생산성으로, 투입물을 단일 생산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전체 생산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요소생산성과 총 요소 생산성으로 구분한다.

비율분석법 각 사업단위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파악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비율분석(ratio analysis)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모형이다. 대부분 회계자료를 이용한 재무비율분석 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 재무비율 분석은 보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비율분석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DEA 모형은 평가대상이 되는 모든 의사결정단위들이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의사결정단위들을 효율적 단위와 비효율적 단위로 판별 해 준다. 또한 비효율적 단위들이 효율적인 단위가 되기 위하여 모범으로 삼아야 할 벤치마킹 대상 조직(이를 준거집단 이라고 함)을 제시하고 비효율적 단위들이 효율적인 단위가 되기 위하여 감소 시켜야 할 투입요소의 양 또는 증가시켜야 하는 산출요소의 양을 기본적인 정보로 제공한다.

이모형의 핵심은 각각의 투입·산출변수에 대한 가중치의 선정과정에 있다. 가중치 선정이 이전에는 인간의 感이나 經驗에 의존했던 것을 자료(data) 자신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점에 DEA의 특징이 있다.

즉, 어떤 조직 혹은 기업에 대한 효율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비용 효율성(cost efficiency)과 수입(매출) 효율성(revenue efficiency) 등으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비용효율성 측정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측정값이 1이면 완전 효율적 기업이며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에서 비용효율성의 측정값을 뺀 차이는 향후 그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 향상은 최선의 경영 기술을 도입(기술적 효율성)하면서 또한 산출량과 투입물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투입물의 최적결합(배분적 효율성)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 측정은 주어진 경제여건과 환경 하에서 영업 중인 여러 기업 중 가장 효율적인 기업을 기준으로 각 기업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지수로 볼 수 있다.

최근에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전통적인 통계 방법보다 최근에는 DEA기법이 많이 활용된다. 이 기법에서는 어떤 기업의 영업 산출물(outputs)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이러한 산출물을 창출하는데 투입되는 요소(inputs)를 찾아냄으로써 어떤 기업의 회사별 투입요소가 산출물로 전환되는 효율성(efficiency)을 측정할 수 있다.

1978년에 샤렌스, 쿠퍼와 로드(Charnes, Cooper & Rhodes, 1978)[36]에 의

하여 다수의 투입요소를 사용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수식을 제안한다. 이들은 m개의 투입요소 Xj=(x1j, x2j, ..., xmj)T>0을 사용 s개의 산출물 Yj=(y1j, y2j, ..., ysj)T>0을 생산하는 n개 DMU의 투입·산출자료로부터 DMU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수리계획모형이다. DEA 모형을 투입요소에 초점을 두는가, 산출물에 초점을 두는가에 대하여 투입지향(input oriented)과 산출지향(output oriented)으로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샤렌스, 쿠퍼와 로드(Charnes, Cooper & Rhodes, 1978)[37]의 CCR모형과 뱅커, 샤렌스와 쿠퍼(Banker, Charnes & Cooper, 1984)[38]의 BCC모형이다.

CCR모형은 샤렌스, 쿠퍼와 로드(Charnes, Cooper & Rhodes, 1978)[39]이 제시한 모형으로 DEA 분석의 기본모형으로 모든 의사결정 단위들의 각각의 투입물 가중 합계에 대한 산출물 가중 합계의 비율이 1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각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가중치들은 0보다 크다는 단순한 제약조건하에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단위의 투입물 가중 합계에 대한 산출물 가중 합계의 비율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선형분수 계획모형(fractional linear programming model)으로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라는 가정 하에 모형이 도출되기 때문에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며 이모형은 다음과 같다.

---

36) A. Charnes, W. W. Cooper, & E. Rhodes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 435~437.

37) A. Charnes, W. W. Cooper, & E. Rhodes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 429~444.

38) R. D. Banker, A. Charnes, & W. W. Cooper (September, 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1078~1092.

39) A. Charnes, W. W. Cooper, & E. Rhodes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 429~444.

$$\text{Max } E_{jo} = \sum_{r=1}^{s} u_r \, y_{rjo}$$

$$\text{Subject to} \quad \sum_{i=1}^{m} v_i \, x_{ij0} = 1$$

$$\sum_{r=1}^{s} u_r \, y_{ri} - \sum_{i=1}^{m} v_i \, x_{ij} \leq 0, \; j = 1, \ldots, j_0, \ldots, n$$

$$u_r \geq \varepsilon > 0, \; r=1, \ldots, s,$$

$$v_i \geq \varepsilon > 0, \; i=1, \ldots, m,$$

BCC모형은 CCR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형으로 뱅커, 샤렌스와 쿠퍼(Banker, Charnes & Cooper, 1984)가 제시한 모형이다. 이모형은 CCR모형에서 가정하는 규모의 수익불변을 완화하여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이라는 가정을 적용하고, 볼록성 필요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이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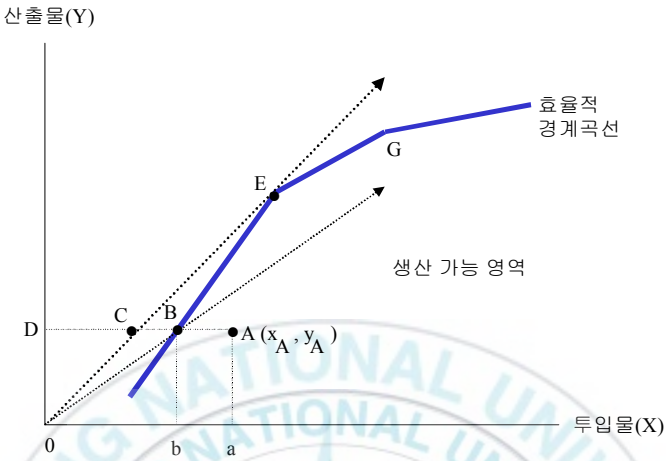
$$\text{Max } h_o = \sum_{r=1}^{s} u_r \, y_{ro} - \Theta_0$$

$$\text{Subject to} \quad \sum_{i=1}^{m} v_i \, x_{i0} = 1$$

$$\sum_{r=1}^{s} u_r \, y_{ri} - \sum_{i=1}^{m} v_i \, x_{ij} - \Theta_0 \leq 0$$

(모든 r & i에 대해 u_r , $v_i \geq 0$, j = 1,..., 0, ..., z)

<그림 4-1>에서 A를 현재 평가 중인 기업(혹은 조직)이라고 한다면 기업(혹은 조직) B는 산출물 규모는 같으면서 투입물이 적고(ob < oa) 효율적 경계선 상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단위를 표시한다. 그러나 기업(혹은 조직)E는 기업(혹은 조직)B처럼 효율적 경계선 상에 있으면서 평균생산비용이 가장 저렴(OE의 기울기가 OB의 기울기보다 크고 경계선 상의 어느 점의 기울기보다 큼)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물론 규모 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단위이다.



<그림 4-1> Technical 및 Scale의 효율성

이러한 효율성 개념 하에 CCR 및 BCC 두 개의 모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3 가지 유형의 효율성을 산출할 수 있다.

① CCR 모형: 기술 및 규모 전체효율성(technical and scale efficiency; TSE)

TSE = DC/DA ····· ①

② BCC 모형: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TE)

TE= DB/DA ····· ②

③ CCR / BCC :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 SE)

$$SE = \frac{CCR}{BCC} = \frac{DC/DA}{DB/DA} = DC/DB \quad \cdots\cdots \text{③}$$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효율성 측정

가. DEA에 의한 도서관의 효율성 분석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DEA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투입(Input)변수와 산출(Output)변수를 나눠야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에 관련한 자료를 정리한 자료 중에서 <표 4-1>과 같이 DEA분석을 위해 산출변수는 이용자수, 열람(권), 대출(권)을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는 도서관의 시설측면으로 건물(㎡) 면적, 열람석(석), 시청각실(㎡) 면적을 선정하였고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와 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인력 중 사서 직(명), 도서관의 운영예산(천원)을 선정하였다.

<표 4-1>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현황(DEA) 분석 자료용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건물(㎡)	열람석(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사서직(명)	운영예산(천원)	이용자수	열람(권)	대출(권)
서 울	284,613	25,383	438,336	5,866,302	19,498	305,544	466	59,329,790	32,404,579	30,280,489	11,483,422
부 산	64,822	13,316	2,055	2,637,927	51,953	173,468	162	25,744,048	11,385,596	14,143,488	4,716,655
대 구	78,796	12,042	2,651	1,972,313	3,733	175,899	127	19,484,446	7,507,169	5,758,725	3,036,596
인 천	44,731	11,251	1,820	1,667,607	2,743	79,567	115	14,841,154	8,465,148	7,270,816	3,524,609
광 주	66,536	13,064	1,666	1,438,789	711	56,601	85	18,874,725	4,548,412	4,242,844	2,060,005
대 전	63,405	10,239	1,814	1,547,752	2,401	122,609	101	14,110,218	5,552,867	4,745,097	2,577,165
울 산	14,677	5,239	940	650,804	1,693	64,212	52	6,516,105	3,527,956	3,561,472	1,768,383
경 기	294,334	48,102	2,530	8,166,247	14,123	549,520	405	87,388,093	36,643,527	39,141,061	18,288,064
강 원	126,100	25,687	5,222	5,039,915	9,020	196,464	222	23,089,401	9,594,773	8,782,911	5,349,010
충 북	89,784	7,107	1392	2,536,032	2,971	166,056	141	23,589,452	6,940,709	5,343,483	2,593,711
충 남	128,588	22,234	6,845	3,841,658	3,987	160,420	146	29,112,769	9,610,098	6,346,013	5,287,772
전 북	74,888	14,186	3,817	2,142,157	1,309	86,629	88	18,776,733	6,786,654	2,987,837	2,929,139
전 남	111,400	25,644	6,056	4,213,301	4,259	359,569	191	32,304,870	8,511,514	5,752,724	4,719,133
경 북	87,751	21,124	2,525	3,340,359	6,462	231,614	144	25,613,232	6,762,846	6,150,688	4,060,613
경 남	131,858	24,990	6,221	5,138,921	10,495	334,635	295	42,268,357	15,025,846	12,991,130	9,479,524
제 주	38,620	6,768	2,468	1,243,415	740	78,872	47	7,593,453	2,264,858	1,796,195	1,254,046

<표 4-2>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투입변수	건물(㎡)	14,677.00	294,334.00	106,306.44	78,735.01
	열람석(석)	5,239.00	48,102.00	17,898.50	10,845.37
	시청각실(㎡)	940.00	438,336.00	30,397.38	108,799.76
	도서자료	650,804.00	8,166,247.00	3,215,218.69	2,037,345.40
	간행물(종)	711.00	51,953.00	8,506.13	12,728.08
	시청각자료	56,601.00	549,520.00	196,354.94	133,844.60
	사서직(명)	47.00	466.00	174.19	120.03
	운영예산(천원)	6,516,105.00	87,388,093.00	28,039,802.88	20,446,850.10
산출변수	이용자수	2,264,858.00	36,643,527.00	10,970,784.50	9,717,425.36
	열람(권)	1,796,195.00	39,141,061.00	9,955,935.81	10,328,213.10
	대출(권)	1,254,046.00	18,288,064.00	5,195,490.44	4,430,259.30

<표 4-3>은 DEA분석에 사용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산출변수와 투입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건물(㎡)	열람석(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사서직(명)	운영예산(천원)	이용자수	열람(권)	대출(권)
투입변수	건물(㎡)	1.000								.954(**)	.912(**)	.923(**)
	열람석(석)	.852(**)	1.000							.805(**)	.788(**)	.905(**)
	시청각실(㎡)	.609(*)	.192	1.000						.590(*)	.525(*)	.383
	도서자료	.920(**)	.952(**)	.355	1.000					.866(**)	.837(**)	.928(**)
	간행물(종)	.247	.204	.229	.289	1.000				.386	.462	.330
	시청각자료	.824(**)	.902(**)	.224	.916(**)	.272	1.000			.805(**)	.793(**)	.889(**)
	사서직(명)	.950(**)	.802(**)	.653(**)	.913(**)	.379	.831(**)	1.000		.944(**)	.908(**)	.913(**)
	운영예산(천원)	.949(**)	.902(**)	.412	.928(**)	.322	.911(**)	.914(**)	1.000	.956(**)	.941(**)	.978(**)
산출변수	이용자수									1.000		
	열람(권)									.986(**)	1.000	
	대출(권)									.959(**)	.952(**)	1.000

* p≤ 0.05 ** p≤ 0.01 ** p≤ 0.001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이 규모에 대해 보수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CRS Input orientated DEA 모델(CCR모델)과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VRS Input orientated DEA 일명 BCC 모델에 의한 평가와 그리고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분석을 시행하였다. DEA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CCR 모델과 BCC 모델로 측정한 결과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 제주, 전남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4-4> 도서관 DEA 분석결과

구분	DMU	CCR	BCC	Scale(CCR/BCC)	참조DMU
서 울	1	1.000	1.000	1.000	1
부 산	2	1.000	1.000	1.000	2
대 구	3	0.810	0.811	0.999	10 4 8 7 2
인 천	4	1.000	1.000	1.000	4
광 주	5	1.000	1.000	1.000	5
대 전	6	0.811	0.827	0.980	8 12 4 7
울 산	7	1.000	1.000	1.000	7
경 기	8	1.000	1.000	1.000	8
강 원	9	0.887	1.000	0.887	9
충 북	10	1.000	1.000	1.000	10
충 남	11	0.937	0.946	0.990	12 7 8 4
전 북	12	1.000	1.000	1.000	12
전 남	13	0.741	0.764	0.970	8 12 4
경 북	14	0.697	0.711	0.979	7 8 15
경 남	15	1.000	1.000	1.000	15
제 주	16	0.949	1.000	0.949	16
평 균		0.927	0.941	0.985	

한편 <표 4-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투입량을 나타내었고, <표 4-6>은 효율성 달성을 위해 투입된 투입량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표

4-2>의 DEA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변수와 비교하면 된다.

<표 4-5> 도서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구분	DMU	건물(㎡)	열람석(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사서직(명)	운영예산(천원)
서 울	1	284,613.00	25,383.00	438,336.00	5866302.00	19,498.00	305,544.00	466.00	59,329,790.00
부 산	2	64,822.00	13,316.00	2,055.00	2,637,927.00	51,953.00	173,468.00	162.00	25,744,048.00
대 구	3	57,902.91	12,042.00	2,651.00	1,972,313.00	3,733.00	106,445.03	127.00	18,276,323.49
인 천	4	44,731.00	11,251.00	1,820.00	1,667,607.00	2,743.00	79,567.00	115.00	14,841,154.00
광 주	5	66,536.00	13,064.00	1,666.00	1,438,789.00	711.00	56,601.00	85.00	18,874,725.00
대 전	6	44,353.31	10,239.00	1,782.32	1,501,365.16	2,401.00	88,993.75	91.68	14,110,218.00
울 산	7	14,677.00	5,239.00	940.00	650,804.00	1,693.00	64,212.00	52.00	6,516,105.00
경 기	8	294,334.00	48,102.00	2,530.00	8,166,247.00	14,123.00	549,520.00	405.00	87,388,093.00
강 원	9	126,100.00	25,687.00	5,222.00	5,039,915.00	9,020.00	196,464.00	222.00	23,089,401.00
충 북	10	89,784.00	7,107.00	1,392.00	2,536,032.00	2,971.00	166,056.00	141.00	23,589,452.00
충 남	11	95,359.47	17,936.17	2,617.34	2,834,953.36	3,987.00	160,420.00	146.00	27,709,177.03
전 북	12	74,888.00	14,186.00	3,817.00	2,142,157.00	1,309.00	86,629.00	88.00	18,776,733.00
전 남	13	111,400.00	20,270.89	3,046.31	3,234,913.30	4,259.00	178,124.02	158.81	31,598,852.32
경 북	14	80,074.01	15,440.39	1,770.54	2,541,371.89	4,956.94	184,366.95	144.00	25,613,232.00
경 남	15	131,858.00	24,990.00	6,221.00	5,138,921.00	10,495.00	334,635.00	295.00	42,268,357.00
제 주	16	38,620.00	6,768.00	2,468.00	1,243,415.00	740.00	78,872.00	47.00	7,593,453.00

<표 4-6> 도서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구분	DMU	건물(㎡)	열람석(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사서직(명)	운영예산(천원)
서 울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산	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 구	3	20,893.09	0.00	0.00	0.00	0.00	69,453.97	0.00	1,208,122.51
인 천	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광 주	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 전	6	19,051.69	0.00	31.68	46,386.84	0.00	33,615.25	9.32	0.00
울 산	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 기	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강 원	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 북	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 남	11	33,228.53	4,297.83	4,227.66	1,006,704.64	0.00	0.00	0.00	1,403,591.97
전 북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남	13	0.00	5,373.11	3,009.69	978,387.70	0.00	181,444.98	32.19	706,017.68
경 북	14	7,676.99	5,683.61	754.46	798,987.11	1,505.06	47,247.05	0.00	0.00
경 남	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 주	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		5,368.96	1,019.63	532.81	187,960.7	99.94	22,031.02	2.75	220,318.2

나. DEA에 의한 박물관의 효율성 분석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DEA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투입(Input)변수와 산출(Output)변수를 나눠야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에 관련한 자료를 정리한 자료 중에서 <표 4-7>과 같이 DEA분석을 위해 산출변수는 박물관 관람인원(명)을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는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선정하였다. 박물관 운영의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사의 경우 파악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시설현황으로서 박물관의 전체 면적(㎡), 전시실(㎡) 면적, 수장고(㎡) 면적을 포함하였으며, 소장자료(점)도 투입변수로 선정하였다.

한편, 분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구, 인천, 울산광역시의 경우 관련 시설이 없거나 휴관 상태라서 제외하였다.

<표 4-7>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현황(DEA) 분석 자료용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관람인원(명)
서 울	120	81	30,054.00	10872	113,103	677,264
부 산	97	33,190.00	21,910.00	5,352.00	69,950	620,755
광 주	37	8,459	3,970	424	10,957	366,561
대 전	11	2,117	1,246	66	29,831	97,750
경 기	65	29,782	9,379	743	9,783	579,505
강 원	96	25,302.00	11,791.00	2,327	27,821	1,249,081
충 북	48	16,525	6,754	948	11,732	460,061
충 남	92	13,435.00	8,205	1,358	40,730	544,954
전 북	86	195,788.00	10,760.00	2,018	172,732	2,225,765
전 남	58	78,431	6,738	786	79,116	731,497
경 북	117	26,934	19,101	1,917	53,955	2,603,545
경 남	80	35,710	10,374	1,265	21,349	5,002,390
제 주	78	15,419	7,824	638	58,320	1,079,513

<표 4-8>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투입변수	운영인력(명)	11.00	120.00	75.77	31.37
	면적합계(㎡)	81.00	195,788.00	37,013.31	51,697.28
	전시실(㎡)	1,246.00	30,054.00	11,392.77	7,895.46
	수장고(㎡)	66.00	10,872.00	2,208.77	2,925.29
	소장자료(점)	9,783.00	172,732.00	53,798.38	47,081.39
산출변수	관람인원(명)	97,750.00	5,002,390.00	1,249,126.23	1,340,563.05

<표 4-9>는 DEA분석에 사용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산출변수와 투입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9>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관람인원(명)
투입변수	운영인력(명)	1.000					0.353
	면적합계(㎡)	0.108	1.000				0.295
	전시실(㎡)	0.835**	-0.056	1.000			0.136
	수장고(㎡)	0.637*	-0.111	0.910**	1.000		-0.073
	소장자료(점)	0.436	0.735**	0.443	0.474	1.000	0.098
산출변수	관람인원(명)						1.00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이 규모에 대해 보수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CRS Input orientated DEA 모델(CCR모델)과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VRS Input orientated DEA 일명 BCC 모델에 의한 평가와 그리고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분석을 시행하였다. DEA 분석결과는 <표 4-10>과 같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CCR 모델과 BCC 모델로 측정한 결과는 서울과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 대전광역시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4-10> 박물관 DEA 분석결과

구 분	DMU	CCR	BCC	Scale(CCR/BCC)	참조DMU		
서 울	1	1.000	1.000	1.000	1		
부 산	2	0.130	0.132	0.984	1	12	
광 주	3	0.307	1.000	0.307	3		
대 전	4	0.375	1.000	0.375	4		
경 기	5	0.253	1.000	0.253	5		
강 원	6	0.345	0.354	0.974	4	1	12
충 북	7	0.198	0.519	0.381	3	5	12
충 남	8	0.281	0.299	0.941	12	1	4
전 북	9	0.429	0.445	0.964	12		
전 남	10	0.235	0.240	0.979	12	4	
경 북	11	0.679	0.685	0.991	1	4	12
경 남	12	1.000	1.000	1.000	12		
제 주	13	0.498	0.527	0.946	4	1	12
평 균		0.441	0.631	0.776			

한편 <표 4-11>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투입량을 나타내었고, <표 4-12>는 효율성 달성을 위해 투입된 투입량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표 4-9>의 DEA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변수와 비교하면 된다.

<표 4-11> 박물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구분	DMU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서 울	1	120.00	81.00	30,054.00	10,872.00	113,103.00
부 산	2	82.82	33,190.00	11,765.94	1,944.49	27,838.66
광 주	3	37.00	8,459.00	3,970.00	424.00	10,957.00
대 전	4	11.00	2,117.00	1,246.00	66.00	29,831.00
경 기	5	65.00	29,782.00	9,379.00	743.00	9,783.00
강 원	6	63.87	25,302.00	8,909.71	1,398.82	27,821.00
충 북	7	48.00	16,278.85	5,902.08	584.91	11,732.00
충 남	8	43.48	13,435.00	6,718.15	1,358.00	33,728.90
전 북	9	80.00	35,710.00	10,374.00	1,265.00	21,349.00
전 남	10	52.43	22,289.61	6,727.36	786.00	24,737.55
경 북	11	72.01	26,934.00	10,594.49	1,917.00	30,907.74
경 남	12	80.00	35,710.00	10,374.00	1,265.00	21,349.00
제 주	13	39.33	15,419.00	5,122.87	638.00	27,211.96

<표 4-12> 박물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구분	DMU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서 울	1	0.00	0.00	0.00	0.00	0.00
부 산	2	14.17	0.00	10,144.05	3,407.50	42,111.34
광 주	3	0.00	0.00	0.00	0.00	0.00
대 전	4	0.00	0.00	0.00	0.00	0.00
경 기	5	0.00	0.00	0.00	0.00	0.00
강 원	6	32.12	0.00	2,881.28	928.17	0.00
충 북	7	0.00	246.14	851.91	363.08	0.00
충 남	8	48.51	0.00	1,486.84	0.00	7,001.09
전 북	9	6.00	160,078.00	386.00	753.00	151,383.00
전 남	10	5.56	56,141.38	10.63	0.00	54,378.44
경 북	11	44.98	0.00	8,506.50	0.00	23,047.25
경 남	12	0.00	0.00	0.00	0.00	0.00
제 주	13	38.66	0.00	2,701.12	0.00	31,108.03
평 균		15.73	17,932.05	2,234.06	451.62	25,600.05

다. DEA에 의한 미술관의 효율성 분석

다른 분야에 비해 미술관의 시설수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면서 소장가치가 더 해져 일반인들에게 자주 공개되지 않으며, 자체 기획 전시 기능으로서는 활발하나 지역작가들에게 사실상의 대여 전시실로서의 기능적 활용이 다소 미흡하다. 지역의 작가들 또한, 작은 수의 미술관을 통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일반 갤러리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미술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DEA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투입(Input)변수와 산출(Output)변수를 나눠야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에 관련한 자료를 정리한 자료 중에서 <표 4-13>와 같이 DEA분석을 위해 산출변수는 미술관 관람인원(명)을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는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선정하였다. 미술관 운영의 전문 인력 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

사의 경우 파악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시설현황으로서 미술관의 전체 면적(㎡), 전시실(㎡) 면적, 수장고(㎡) 면적을 포함하였으며, 소장 자료(점)도 투입변수로 선정하였다. 한편, 분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 관련 시설이 없거나 휴관 상태라서 제외하였다.

<표 4-13> 지방자치단체 미술관 현황(DEA) 분석자료용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관람인원(명)
서 울	63	7,316	5,127	1,007	2,002	991,961
부 산	43	21,425	6,455	1,399	745	458,498
광 주	34	14,560.65	13,973.65	357	2,679	66,712
대 전	30	8,407.37	2,345	807	638	229,114
경 기	51	29,141	5,703.58	1,119.02	1867	118,936
강 원	4	684.26	263.35	67.95	466	20
충 북	17	4,533.22	1,638.04	143.33	1531	227,964
전 북	20	7,371.43	1,769.87	387.2	622	308,574
전 남	11	2,698.54	1,815.8	239.5	8,059	56,523
경 북	8	1,670	814	109	835	562,234
경 남	73	21,915.88	9,096.51	1,952.64	5,742	350,646
제 주	6	1,080	894	88	756	67,402

<표 4-14>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투입변수	운영인력(명)	4.00	73.00	30.00	23.22
	면적합계(㎡)	684.26	29,141.00	10,066.95	9,511.85
	전시실(㎡)	263.35	13,973.65	4,157.98	4,124.98
	수장고(㎡)	67.95	1,952.64	639.72	614.68
	소장자료(점)	466.00	8,059.00	2,161.83	2,368.07
산출변수	관람인원(명)	20.00	991,961.00	286,548.67	281,870.04

<표 4-15>는 DEA분석에 사용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산출변수와 투입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5>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관람인원(명)
투입변수	운영인력(명)	1.000					0.492
	면적합계(㎡)	0.769**	1.000				0.033
	전시실(㎡)	0.665*	0.672*	1.000			0.049
	수장고(㎡)	0.916**	0.807**	0.532	1.000		0.367
	소장자료(점)	0.239	0.121	0.267	0.238	1.000	-0.140
산출변수	관람인원(명)						1.00

* p≤ 0.05 ** p≤ 0.01 ** p≤ 0.001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이 규모에 대해 보수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CRS Input orientated DEA 모델(CCR모델)과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VRS Input orientated DEA 일명 BCC 모델에 의한 평가와 그리고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분석을 시행하였다. DEA 분석결과는 <표 4-16>와 같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CCR 모델과 BCC 모델로 측정한 결과는 강원도,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역시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4-16> 미술관 DEA 분석결과

구분	DMU	CCR	BCC	Scale(CCR/BCC)	참조DMU
서 울	1	0.736	1.000	0.736	1
부 산	2	0.914	1.000	0.914	2
광 주	3	0.037	0.098	0.377	10 1
대 전	4	0.533	0.699	0.763	10 2 8
경 기	5	0.095	0.132	0.714	10 1
강 원	6	1.000	1.000	1.000	6
충 북	7	0.308	0.394	0.783	10 1
전 북	8	0.737	1.000	0.737	8
전 남	9	0.073	0.097	0.758	1 10
경 북	10	1.000	1.000	1.000	10
경 남	11	0.091	0.353	0.257	1
제 주	12	0.185	0.299	0.621	10 6
평균		0.392	0.589	0.638	

한편 <표 4-17>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투입량을 나타내었고, <표 4-18>은 효율성 달성을 위해 투입된 투입량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표 4-14>의 DEA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변수와 비교하면 된다.

<표 4-17> 미술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구분	DMU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서 울	1	63.00	7,316.00	5,127.00	1,007.00	2002.00
부 산	2	43.00	21,425.00	6,455.00	1,399.00	745.00
광 주	3	23.18	3,229.25	2,005.11	357.00	1,157.29
대 전	4	21.62	8,407.37	2,140.14	465.27	638.00
경 기	5	51.00	6,084.14	4,185.98	811.07	1,747.38
강 원	6	4.00	684.26	263.35	67.95	466.00
충 북	7	10.10	1,885.84	978.88	143.33	879.61
전 북	8	20.00	7,371.43	1,769.87	387.20	622.00
전 남	9	11.00	1,977.96	1,049.25	157.98	898.65
경 북	10	8.00	1,670.00	814.00	109.00	835.00
경 남	11	63.00	7,316.00	5,127.00	1,007.00	2,002.00
제 주	12	5.60	1,080.00	484.41	84.43	614.14

<표 4-18> 미술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구분	DMU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서 울	1	0.00	0.00	0.00	0.00	0.00
부 산	2	0.00	0.00	0.00	0.00	0.00
광 주	3	10.81	11,331.39	11,968.53	0.00	1,521.71
대 전	4	8.37	0.00	204.85	341.72	0.00
경 기	5	0.00	23,056.85	1,517.59	307.94	119.61
강 원	6	0.00	0.00	0.00	0.00	0.00
충 북	7	6.89	2,647.37	659.15	0.00	651.38
전 북	8	0.00	0.00	0.00	0.00	0.00
전 남	9	0.00	720.57	766.54	81.51	7,160.34
경 북	10	0.00	0.00	0.00	0.00	0.00
경 남	11	10.00	14,599.88	3,969.51	945.64	3,740.00
제 주	12	0.39	0.00	409.58	3.57	141.85
평 균		3.29	4726.58	1760.03	151.70	1203.84

라. DEA에 의한 문예회관의 효율성 분석

본 연구는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문화의 집'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차원에서 본 효율성을 DEA기법으로 측정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은 2007년 발표한 문화관광부의 "문화시설 현황"으로 부터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효율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DEA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투입(Input)변수와 산출(Output)변수를 나눠야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에 관련한 자료를 정리한 자료 중에서 분석을 위해 <표 4-19>과 같이 DEA분석을 위해 산출변수는 공연 유료관객(명), 총 이용자수(명), 공연 및 대관수입(백만 원)을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는 문예회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 관한 부분 즉, 직원 수(명) 및 전문직원수(명), 공연일수(일), 전시일수(일), 공

연장의 연면적(㎡), 총 객석 수(석), 그리고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연간 운영비(백만 원)를 선정하였다.

<표 4-19>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현황(DEA) 분석 자료용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직원수 (명)	전문 직원수 (명)	공연 일수 (일)	전시 일수 (일)	연면적 (㎡)	총객 석수 (석)	연간운영비 (백만원)	공연유료 관객(명)	총이용 자수 (명)	공연및 대관수입 (백만원)
서 울	541	259	2,968	2,851	189,677	10,766	61,350	829,480	2,430,544	9,364
부 산	107	27	1,377	943	84,348	5,651	18,860	323,531	706,927	1,494
대 구	151	33	1,070	1,546	46,638	8,384	14,946	193,847	1,117,620	1,204
인 천	81	20	1,142	623	53,570	8,182	17,675	423,672	685,922	516
광 주	128	39	1,127	692	73,351	4,692	14,141	240,429	610,258	706
대 전	54	35	195	133	44,227	2,401	8,172	107,380	266,992	1,455
울 산	50	24	481	867	29,409	4,404	4,601	130,599	435,514	267
경 기	486	244	3,780	3,103	354,676	27,993	75,502	1,165,906	4,105,391	12,457
강 원	112	25	1,279	1,269	90,096	9,386	996,243	190,148	1,040,546	107,158
충 북	93	2	678	322	48,780	7,746	13,623	727,969	1,155,499	743
충 남	78	23	1,892	685	58,599	18,631	8,693	264,524	806,872	446
전 북	121	49	1,371	1,477	114,069	17,562	10,163	325,419	1,076,837	2,053
전 남	447	17	2,637	1,594	61,263	12,505	11,360	312,640	1,001,636	944
경 북	134	35	1,858	1636	100,406	14,526	20,739	343,065	1,286,545	1,768
경 남	268	76	1,757	1,825	156,256	16,224	14,485	434,183	1,502,698	2,118
제 주	20	6	369	702	7,222	1,984	8,831	4,366	225,083	153

<표 4-20>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투입변수	직원 수(명)	20.00	541.00	179.44	164.97
	전문직원수(명)	2.00	259.00	57.13	77.82
	공연일수(일)	195.00	3,780.00	1,498.81	973.76
	연면적(㎡)	133.00	3,103.00	1,266.75	832.81
	총 객석 수(석)	7,222.00	354,676.00	94,536.69	83,419.88
	연간운영비(백만 원)	4,601.00	996,243.00	81,211.50	244,789.76
산출변수	공연유료관객(명)	4,366.00	1,165,906.00	376,072.38	298,726.57
	총 이용자 수(명)	225,083.00	4,105,391.00	1,153,430.25	949,519.52
	공연 및 대관수입(백만 원)	153.00	107,158.00	8,927.88	26,420.34

<표 4-21>은 DEA분석에 사용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산출변수와 투입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1>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직원 수(명)	전문 직원 수(명)	공연일 수 (일)	전시일 수 (일)	연면적 (㎡)	총 객석 수 (석)	공연 유료관객 (명)	총 이용자 수 (명)	공연 및 대관수입 (백만 원)
투입변수	직원 수(명)	1.000						.714**	.791**	-.006
	전문직원수(명)	.809**	1.000					.786**	.873**	.017
	공연일수(일)	.890**	.764**	1.000				.745**	.854**	.043
	연면적(㎡)	.862**	.851**	.869**	1.000			.674**	.876**	.112
	총 객석 수(석)	.742**	.873**	.829**	.848**	1.000		.840**	.957**	.107
	연간운영비 (백만 원)	.552*	.532*	.799**	.684**	.779**	1.000	.646**	.776**	.030
산출변수	공연유료관객(명)							1.000		
	총 이용자 수(명)							.903**	1.000	
	공연 및 대관수입 (백만 원)							-.056	.091	1.000

* p≤ 0.05 ** p≤ 0.01 ** p≤ 0.001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이 규모에 대해 보수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CRS Input orientated DEA 모델(CCR모델)과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VRS Input orientated DEA 일명 BCC 모델에 의한 평가와 그리고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소프트웨어는 Coelli(1996)가 개발한 DEAP Version 2.1이다.[40]

규모 효율성은 특정한 투입과 산출 배합 하에서 평균생산량이 최대로 되는 점과 현재의 산출 수준을 비교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40) T. J. Coelli (1996). *A Guide to DEAP Version 2.1: A Data Envelopment Analysis (Computer) Program* (CEPA Working Paper 96/8). Armidale, NSW Australia: Department of Econometrics, University of New England.

CCR 모형에서 얻어지는 총합 효율성 값을 BCC 모형에서 산출된 순수 기술효율성의 값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DEA 분석결과는 <표 4-22>와 같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회관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CCR 모델과 BCC 모델로 측정한 결과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가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 부산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4-22> 문예회관 DEA 분석결과

구분	DMU	CCR	BCC	Scale(CCR/BCC)	참조DMU
서 울	1	1.000	1.000	1.000	1
부 산	2	0.775	0.822	0.944	1 6 9 10 16
대 구	3	1.000	1.000	1.000	3
인 천	4	0.682	0.696	0.979	10 16 9
광 주	5	0.749	0.853	0.878	1 16 6 10
대 전	6	1.000	1.000	1.000	6
울 산	7	1.000	1.000	1.000	7
경 기	8	1.000	1.000	1.000	8
강 원	9	1.000	1.000	1.000	9
충 북	10	1.000	1.000	1.000	10
충 남	11	0.992	1.000	0.992	11
전 북	12	1.000	1.000	1.000	12
전 남	13	0.980	0.980	1.000	10 7 12
경 북	14	0.872	0.879	0.991	8 9 10
경 남	15	1.000	1.000	1.000	15
제 주	16	1.000	1.000	1.000	16
평 균	0.941	0.952	0.986		

한편 <표 4-23>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투입량을 나타내었고, <표 4-24>은 효율성 달성을 위해 투입된 투입량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표 4-20>의 DEA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변수와 비교하면 된다.

<표 4-23> 문예회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구분	DMU	직원수 (명)	전문직원수 (명)	공연일수 (일)	전시일수 (일)	연면적 (㎡)	총객석수 (석)	연간운영비 (백만 원)
서 울	1	541.00	259.00	2,968.00	2,851.00	189,677.00	10,766.00	61,350.00
부 산	2	99.48	27.00	660.14	516.54	49,287.25	5,651.00	18,860.00
대 구	3	151.00	33.00	1,070.00	1,546.00	46,638.00	8,384.00	14,946.00
인 천	4	81.00	2.68	627.67	385.40	41,975.80	6,798.95	13,712.06
광 주	5	83.27	22.80	653.21	692.00	36,021.77	4,692.00	14,141.00
대 전	6	54.00	35.00	195.00	133.00	44,227.00	2,401.00	8,172.00
울 산	7	50.00	24.00	481.00	867.00	29,409.00	4,404.00	4,601.00
경 기	8	486.00	244.00	3,780.00	3,103.00	354,676.00	27,993.00	75,502.00
강 원	9	112.00	25.00	1,279.00	1,269.00	90,096.00	9,386.00	996,243.00
충 북	10	93.00	2.00	678.00	322.00	48,780.00	7,746.00	13,623.00
충 남	11	78.00	23.00	1,892.00	685.00	58,599.00	18,631.00	8,693.00
전 북	12	121.00	49.00	1,371.00	1,477.00	114,069.00	17,562.00	10,163.00
전 남	13	92.82	16.72	811.87	684.30	61,263.00	9,554.31	11,360.00
경 북	14	134.00	27.25	1,001.81	612.48	80,704.24	9,858.57	20,500.66
경 남	15	268.00	76.00	1,757.00	1,825.00	156,256.00	16,224.00	14,485.00
제 주	16	20.00	6.00	369.00	702.00	7,222.00	1,984.00	8,831.00

<표 4-24> 문예회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구분	DMU	직원수 (명)	전문직원수 (명)	공연일수 (일)	전시일수 (일)	연면적 (㎡)	총객석수 (석)	연간운영비 (백만원)
서 울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산	2	7.52	0.00	716.85	426.46	35,060.75	0.00	0.00
대 구	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인 천	4	0.00	17.32	514.32	237.60	11,594.20	1,383.05	3,962.94
광 주	5	44.72	16.19	473.79	0.00	37329.22	0.00	0.00
대 전	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울 산	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 기	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강 원	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 북	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 남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북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남	13	354.17	0.28	1,825.12	909.69	0.00	2,950.69	0.00
경 북	14	0.00	7.74	856.18	1,023.52	19,701.75	4,667.43	238.34
경 남	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 주	1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평 균		26.98	2.75	291.27	172.47	6,885.39	597.73	278.99

마. DEA에 의한 문화의 집 효율성 분석

지방자치단체 문화의 집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DEA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투입(Input)변수와 산출(Output)변수를 나눠야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의 집에 관련한 자료를 정리한 자료 중에서 <표 4-25>와 같이 DEA분석을 위해 산출변수는 운영프로그램 참가자수(명)와 연간참여자수(명)를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는 문화의 집 을 운영하기 위한 연간운영비(백만 원), 문화의 집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인력(명), 문화의 집의 연면적(㎡)을 선정하였다.

<표 4-25> 지방자치단체 문화의집 현황(DEA) 분석자료용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연간운영비 (백만원)	운영인력(명)	연면적(㎡)	운영프로그램 참가자수(명)	연간 참여자수(명)
서 울	2,455.59	66	12,610	816,272	808,564
부 산	719	14	1,866	45,159	42,626
대 구	23.5	1	1,105	8,886	16,920
인 천	11	1	496	4,455	4,455
광 주	328	9	1,722	124,427	94,054
대 전	107	6	1,878	31,517	29,944
울 산	301	15	352,021	209,213	209,213
경 기	2,373.49	40	7,524	380,627	477,509
강 원	542.1	27	6,105	141,721	159,622
충 북	2,80213	18	2,199	97,577	97,577
충 남	583.9	26	3,344	48,198	88,275
전 북	685.21	29	6,209	660,578	1,156,366
전 남	725	17	4,281	54,895	65,491
경 북	685.21	17	4,281	54,895	65,491
경 남	1,239	49	6,880	177,516	308,962
제 주	490	25	8,382	49,638	203,252

<표 4-26> 투입 및 산출변수 요약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투입변수	연간운영비(백만원)	11.00	280,213.00	18,217.63	69,869.15
	운영인력(명)	1.00	66.00	22.50	17.45
	연면적(㎡)	496.00	352,021.00	26,306.44	86,917.38
산출변수	운영프로그램 참가자수(명)	4,455.00	816,272.00	181,598.38	238,636.16
	연간참여자수(명)	4,455.00	1,156,366.00	239,270.06	321,117.45

<표 4-27>은 DEA분석에 사용된 투입 및 산출요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산출변수와 투입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27> 투입 및 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연간운영비(백만원)	운영인력(명)	연면적(㎡)	운영프로그램 참가자수(명)	연간참여자수(명)
투입변수	연간운영비(백만원)	1.00			-0.087	-0.112
	운영인력(명)	-0.06	1.00		.746**	.660**
	연면적(㎡)	-0.075	-0.081	1.00	0.058	0
산출변수	운영프로그램참가자수(명)				1.00	
	연간참여자수(명)				.937**	1.00

* p≤ 0.05 ** p≤ 0.01 ** p≤ 0.001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의 집)이 규모에 대해 보수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CRS Input orientated DEA 모델(CCR모델)과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VRS Input orientated DEA 일명 BCC 모델에 의한 평가와 그리고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분석을 시행하였다.

DEA 분석결과는 <표 4-28>와 같이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의 집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CCR 모델과 BCC 모델로 측정한 결과는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 인천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표 4-29>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투입량을 나타내었고, <표 4-30>은 효율성 달성을 위해 투입된 투입량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표 4-26>의 DEA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변수와 비교하면 된다.

<표 4-28> 문화의 집 DEA 분석결과

구분	DMU	CCR	BCC	Scale(CCR/BCC)	참조DMU	
서 울	1	0.608	1.000	0.608	1	
부 산	2	0.227	0.279	0.815	12	4
대 구	3	0.427	1.000	0.427	3	
인 천	4	0.420	1.000	0.420	4	
광 주	5	0.679	0.857	0.793	4	12
대 전	6	0.306	0.322	0.949	4	12
울 산	7	0.721	0.730	0.988	4	12
경 기	8	0.475	0.550	0.865	1	12
강 원	9	0.271	0.272	0.998	12	4
충 북	10	0.417	0.488	0.855	12	4
충 남	11	0.142	0.153	0.929	12	4
전 북	12	1.000	1.000	1.000	12	
전 남	13	0.142	0.144	0.985	3	12
경 북	14	0.142	0.144	0.985	3	12
경 남	15	0.243	0.268	0.905	12	1
제 주	16	0.246	0.247	0.995	4	12
평 균		0.404	0.528	0.845		

<표 4-29> 문화의 집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

구분	DMU	연간운영비(백만원)	운영인력(명)	연면적(㎡)
서 울	1	2,455.59	66.00	12,610.00
부 산	2	172.68	7.72	1,866.00
대 구	3	23.50	1.00	1,105.00
인 천	4	11.00	1.00	496.00
광 주	5	155.68	7.01	1,722.00
대 전	6	107.00	4.99	1,309.47
울 산	7	301.00	13.04	2,953.35
경 기	8	1,048.91	36.60	7,524.00
강 원	9	542.10	23.06	4,996.34
충 북	10	211.98	9.35	2,199.00
충 남	11	347.10	14.96	3,344.00
전 북	12	685.21	29.00	6,209.00
전 남	13	401.62	17.00	4,021.57
경 북	14	401.62	17.00	4,021.57
경 남	15	704.23	29.40	6,277.76
제 주	16	490.00	20.89	4,554.86

<표 4-30> 문화의 집 효율성 달성을 위한 투입량과의 차이

구분	DMU	연간운영비(백만원)	운영인력(명)	연면적(㎡)
서 울	1	0.00	0.00	0.00
부 산	2	546.32	6.29	0.00
대 구	3	0.00	0.00	0.00
인 천	4	0.00	0.00	0.00
광 주	5	172.32	1.99	0.00
대 전	6	0.00	1.01	568.53
울 산	7	0.00	1.96	349,067.65
경 기	8	1,324.58	3.40	0.00
강 원	9	0.00	3.94	1,108.66
충 북	10	280,001.02	8.65	0.00
충 남	11	236.80	11.04	0.00
전 북	12	0.00	0.00	0.00
전 남	13	323.38	0.00	259.43
경 북	14	283.59	0.00	259.43
경 남	15	534.77	19.60	602.24
제 주	16	0.00	4.11	3,827.14
평 균		18,821.04	4.11	23,620.24

3. 분석결과의 의미

본 연구의 DEA 분석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전국 각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마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효율성 결과 비교는 현재의 투입량을 가지고 현재 산출량을 달성하고자할 때 현재의 양에서 차이 양을 뺀 최적투입 산출량만으로 현재의 양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효율 값을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 3-35>의 5,002,390명의 이용자에 대한 관람객 유치를 위한 운영인력에 있어 현 직원 수는 97명(현재투입량)이다. 분석결과가 82.82명(최적투입량의 인원수)으로 나타났고, 만약 0.00으로 나타났을 때는 효율적이지만 현재는 비효율적으로 최적투입량과의 차이는 불필요 인원 14.17명이 더 많은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결국 운영인력은 5,002,390명분에 대한 82명만으로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이 인원으로도 현재의 결과와 같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이며, 앞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체 문화기반시설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도시를 도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 DEA 결과분석을 토대로 한 효율성과,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의 여건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문화기반시설을 기반으로 기존의 시설확충과 건립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서울과 대응하는 지방도시이면서 비교적 큰 광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인 시립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문화기반시설과 부산의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기획공연을 바탕으로 하는 경상남도 문화기반시설은 지리적 여건과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특성화된 문화사업의 새로운 성공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 4-31>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도서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건물(㎡)	열람석(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사서직(명)	운영예산(천원)
서 울	현재투입량(A)	284,613	25,383	438,336	5,866,302	19,498	305,544	466	59,329,790
	최적투입량(B)	284,613.00	25,383.00	438,336.00	5866302.00	19,498.00	305,544.00	466.00	59,329,790.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산	현재투입량(A)	64,822	13,316	2,055	2,637,927	51,953	173,468	162	25,744,048
	최적투입량(B)	64,822.00	13,316.00	2,055.00	2,637,927.00	51,953.00	173,468.00	162.00	25,744,048.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 구	현재투입량(A)	78,796	12,042	2,651	1,972,313	3,733	175,899	127	19,484,446
	최적투입량(B)	57,902.91	12,042.00	2,651.00	1,972,313.00	3,733.00	106,445.03	127.00	18,276,323.49
	차이(A-B)	20,893.09	0.00	0.00	0.00	0.00	69,453.97	0.00	1,208,122.51
인 천	현재투입량(A)	44,731	11,251	1,820	1,667,607	2,743	79,567	115	14,841,154
	최적투입량(B)	44,731.00	11,251.00	1,820.00	1,667,607.00	2,743.00	79,567.00	115.00	14,841,154.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광 주	현재투입량(A)	66,536	13,064	1,666	1,438,789	711	56,601	85	18,874,725
	최적투입량(B)	66,536.00	13,064.00	1,666.00	1,438,789.00	711.00	56,601.00	85.00	18,874,725.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 전	현재투입량(A)	63,405	10,239	1,814	1,547,752	2,401	122,609	101	14,110,218
	최적투입량(B)	44,353.31	10,239.00	1,782.32	1,501,365.16	2,401.00	88,993.75	91.68	14,110,218.00
	차이(A-B)	19,051.69	0.00	31.68	46,386.84	0.00	33,615.25	9.32	0.00
울 산	현재투입량(A)	14,677	5,239	940	650,804	1,693	64,212	52	6,516,105
	최적투입량(B)	14,677.00	5,239.00	940.00	650,804.00	1,693.00	64,212.00	52.00	6,516,105.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 기	현재투입량(A)	294,334	48,102	2,530	8,166,247	14,123	549,520	405	87,388,093
	최적투입량(B)	294,334.00	48,102.00	2,530.00	8,166,247.00	14,123.00	549,520.00	405.00	87,388,09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강 원	현재투입량(A)	126,100	25,687	5,222	5,039,915	9,020	196,464	222	23,089,401
	최적투입량(B)	126,100.00	25,687.00	5,222.00	5,039,915.00	9,020.00	196,464.00	222.00	23,089,401.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 북	현재투입량(A)	89,784	7,107	1392	2,536,032	2,971	166,056	141	23,589,452
	최적투입량(B)	89,784.00	7,107.00	1,392.00	2,536,032.00	2,971.00	166,056.00	141.00	23,589,452.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 남	현재투입량(A)	128,588	22,234	6,845	3,841,658	3,987	160,420	146	29,112,769
	최적투입량(B)	95,359.47	17,936.17	2,617.34	2,834,953.36	3,987.00	160,420.00	146.00	27,709,177.03
	차이(A-B)	33,228.53	4,297.83	4,227.66	1,006,704.64	0.00	0.00	0.00	1,403,591.97
전 북	현재투입량(A)	74,888	14,186	3,817	2,142,157	1,309	86,629	88	18,776,733
	최적투입량(B)	74,888.00	14,186.00	3,817.00	2,142,157.00	1,309.00	86,629.00	88.00	18,776,73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남	현재투입량(A)	111,400	25,644	6,056	4,213,301	4,259	359,569	191	32,304,870
	최적투입량(B)	111,400.00	20,270.89	3,046.31	3,234,913.30	4,259.00	178,124.02	158.81	31,598,852.32
	차이(A-B)	0.00	5,373.11	3,009.69	978,387.70	0.00	181,444.98	32.19	706,017.68
경 북	현재투입량(A)	87,751	21,124	2,525	3,340,359	6,462	231,614	144	25,613,232
	최적투입량(B)	80,074.01	15,440.39	1,770.54	2,541,371.89	4,956.94	184,366.95	144.00	25,613,232.00
	차이(A-B)	7,676.99	5,683.61	754.46	798,987.11	1,505.06	47,247.05	0.00	0.00
경 남	현재투입량(A)	131,858	24,990	6,221	5,138,921	10,495	334,635	295	42,268,357
	최적투입량(B)	131,858.00	24,990.00	6,221.00	5,138,921.00	10,495.00	334,635.00	295.00	42,268,357.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 주	현재투입량(A)	38,620	6,768	2,468	1,243,415	740	78,872	47	7,593,453
	최적투입량(B)	38,620.00	6,768.00	2,468.00	1,243,415.00	740.00	78,872.00	47.00	7,593,45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4-31>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도서관의 투입변수의 차이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분석한 결과, 효율적으로 나타난 시·도는 11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이고.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시·도는 5개 시·도(대구, 대전, 충남, 전남, 경북)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시·도를 나열해 보면 투입량의 8개 항목 중에서(건물, 열람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 시청각, 사서 직, 운영예산) 경북이 6개 항목(건물, 열람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 시청각)에서 과다 투입 되었으므로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나타났고, 대구는 투입량의 5개 항목(열람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 사서직)에서 과다 투입 되었고, 대전 3개 항목(열람석, 간행물, 운영예산)과 충남 3개 항목(간행물, 시청각, 사서직)으로 같은 위치에 있고, 전남은 2개 항목(건물, 간행물)에서 과다투입된 것으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중 가장 비효율적인 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16개 시·도 중 5개 시·도만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기반시설 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기반시설 중 도서관의 경우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울러 무료이면서 많은 도서자료들을 통한 정보와 지식습득의 대표적 장으로서 기능과 자율적인 이용환경,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의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여 진다. 또한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건전한 여가활용의 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가족의 화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4-32> 부산광역시 도서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건물(㎡)	열람석(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사서직(명)	운영예산(천원)
현재투입량(A)	64,822	13,316	2,055	2,637,927	51,953	173,468	162	25,744,048
최적투입량(B)	64,822.00	13,316.00	2,055.00	2,637,927.00	51,953.00	173,468.00	162.00	25,744,048.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4-32>의 전국의 16개 시·도 효율적으로 나타난 11개 시·도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도서관을 살펴보면,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성 비교를 통

하여 2006년도에 11,385,596명의 이용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의 도서관에는 DEA 분석 상으로 현재의 투입요소는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의 효율성은 가장 우수한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으로 현재의 인력, 면적, 자료, 운영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의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순위로는 도서1권당 4.31명으로 5위를 차지하였으나 열람에 있어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원인으로는 주이용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과 연결 되어질 수 있다.

<표 4-33> 경상남도 도서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건물(㎡)	열람석(석)	시청각실(㎡)	도서자료	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사서직(명)	운영예산(천원)
현재투입량(A)	131,858	24,990	6,221	5,138,921	10,495	334,635	295	42,268,357
최적투입량(B)	131,858.00	24,990.00	6,221.00	5,138,921.00	10,495.00	334,635.00	295.00	42,268,357.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4-33>의 경상남도 도서관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성비교를 통하여 2006년도에 15,025,846명의 이용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의 도서관에는 DEA 분석 상으로 현재의 투입요소는 변화가 없었다. 부산광역시의 도서관 DEA의 분석과 일치된다. 경남의 경우는 효율적으로 나타난 시도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전국 순위에서 이용자면에서 9위를, 열람 9위, 대출은 5위를 차지했다. 대출 부분에서의 순위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의한 작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밀집 형 대도시의 형태와 달리 중·소도시는 시내를 제외 하고 군·구·면 단위 이동간의 거리와 그에 따른 시간상의 제약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실제 열람보다는 대출의 형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표 4-34>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박물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서 울	현재투입량(A)	120	81	30,054.00	10872	113,103
	최적투입량(B)	120.00	81.00	30,054.00	10,872.00	113,10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부 산	현재투입량(A)	97	33,190.00	21,910.00	5,352.00	69,950
	최적투입량(B)	82.82	33,190.00	11,765.94	1,944.49	27,838.66
	차이(A-B)	14.17	0.00	10,144.05	3,407.50	42,111.34
광 주	현재투입량(A)	37	8,459	3,970	424	10,957
	최적투입량(B)	37.00	8,459.00	3,970.00	424.00	10,957.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대 전	현재투입량(A)	11	2,117	1,246	66	29,831
	최적투입량(B)	11.00	2,117.00	1,246.00	66.00	29,831.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경 기	현재투입량(A)	65	29,782	9,379	743	9,783
	최적투입량(B)	65.00	29,782.00	9,379.00	743.00	9,78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강 원	현재투입량(A)	96	25,302.00	11,791.00	2,327	27,821
	최적투입량(B)	63.87	25,302.00	8,909.71	1,398.82	27,821.00
	차이(A-B)	32.12	0.00	2,881.28	928.17	0.00
충 북	현재투입량(A)	48	16,525	6,754	948	11,732
	최적투입량(B)	48.00	16,278.85	5,902.08	584.91	11,732.00
	차이(A-B)	0.00	246.14	851.91	363.08	0.00
충 남	현재투입량(A)	92	13,435.00	8,205	1,358	40,730
	최적투입량(B)	43.48	13,435.00	6,718.15	1,358.00	33,728.90
	차이(A-B)	48.51	0.00	1,486.84	0.00	7,001.09
전 북	현재투입량(A)	86	195,788.00	10,760.00	2,018	172,732
	최적투입량(B)	80.00	35,710.00	10,374.00	1,265.00	21,349.00
	차이(A-B)	6.00	160,078.00	386.00	753.00	151,383.00
전 남	현재투입량(A)	58	78,431	6,738	786	79,116
	최적투입량(B)	52.43	22,289.61	6,727.36	786.00	24,737.55
	차이(A-B)	5.56	56,141.38	10.63	0.00	54,378.44
경 북	현재투입량(A)	117	26,934	19,101	1,917	53,955
	최적투입량(B)	72.01	26,934.00	10,594.49	1,917.00	30,907.74
	차이(A-B)	44.98	0.00	8,506.50	0.00	23,047.25
경 남	현재투입량(A)	80	35,710	10,374	1,265	21,349
	최적투입량(B)	80.00	35,710.00	10,374.00	1,265.00	21,349.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제 주	현재투입량(A)	78	15,419	7,824	638	58,320
	최적투입량(B)	39.33	15,419.00	5,122.87	638.00	27,211.96
	차이(A-B)	38.66	0.00	2,701.12	0.00	31,108.03

<표 4-34>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투입변수의 차이로 전국 16개 시·도 중 대구, 인천, 울산의 3개 시·도는 휴관중이거나 보수 중에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 되었고 총 13개 시·도를 분석한 결과, 효율적으로 나타난 시

·도는 5개 시·도(서울, 광주, 대전, 경기, 경남)이고,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시·도는 8개 시·도(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이다. 도서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투입변수의 차이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효율 시·도로 나타난 8개 시·도에서 과대 투입된 부분 중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전시실, 운영인력, 소장 자료, 수장고, 면적합계 순으로 나타났고, 8개시도의 비효율적 부분의 평균은 전시실 3,371.04㎡, 운영인력에서는 23.75명, 소장 자료 38,628.64점, 수장고 681.46㎡가 과대 투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구성상 대도시는 가용면적이 적은 반면 중·소도시로 가면서 가용 면적이 많아 면적상의 구애를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문화기반시설의 특징 중 하나가 건물에 비해 면적이 많은 것은 공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원성격으로 조성된 공간은 수목, 잔디보호 목적으로 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들에 대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또한 박물관의 확충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에서의 이용자 수가 낮은 것은 박물관의 특수성 즉 한번 유물이 전시되면 장기간 지속적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지 못하는데 즉 실제 유물 중 비록 희소성이 높은 유물이라 해도 한두 번의 관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또한 박물관은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쉽게 변화를 주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 유물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전시장에 전시되어 관람되어지기도 하지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유물을 관람할 수 없는데서 오는 원인도 있을 것으로 본다. 간혹 년 중 기획전으로 이러한 유물들을 관람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관람객의 이용수도 많아진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유물을 통하여 역사를 알리고 우리의 우수성 또한 박물관을 통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변화 가능한 전시를 위해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새로운 방법에 의한 박물관 운영, 지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지역민들이 원하는 볼거리들을 제공한다면 지금의 관심도에서 보다는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4-35> 부산광역시 박물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현재투입량(A)	97	33,190.00	21,910.00	5,352.00	69,950
최적투입량(B)	82.82	33,190.00	11,765.94	1,944.49	27,838.66
차이(A-B)	14.17	0.00	10,144.05	3,407.50	42,111.34

<표 4-35>의 부산광역시의 박물관의 경우는 2006년도에 620,755명이 관람하였다. 이정도 규모의 관람객을 유치하기위하여 부산광역시의 박물관에는 DEA 분석 상으로 운영인력은 직원 수의 효율성을 보면 2007년 현재 투입량의 경우 직원 수는 97명이지만, 82.82명, 강원도는 96명에 63.87, 충남은 92명에 43.48명으로 부산광역시가 효율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보이나 이 인원으로도 현재의 결과와 같이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박물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시실의 경우에는 21,910㎡가 투입되었지만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1,765.945㎡로 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절반에 가까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차를 많이 보이는 강원 충남 경북은 기대에는 미흡하나 부산광역시와 비교에서는 다소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광역시 박물관 소장 자료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장품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소장품보다 약 1/3에 가까운 소장품만으로도 2006년도의 관람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 자료를 쉽게 구입 또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 분석과 같이 산출변수는 고정하고 최적의 산출을 위한 투입변수의 변화량을 예측하지 않고, 이와는

반대로 투입변수 량을 고정하고 최적의 산출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향후에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표 4-36> 경상남도 박물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현재투입량(A)	80	35,710	10,374	1,265	21,349
최적투입량(B)	80.00	35,710.00	10,374.00	1,265.00	21,349.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표 4-36>의 경상남도의 박물관은 2006년도에 5,002,390명이 관람하였다. 이정도 규모의 관람객을 유치하기위하여 경상남도의 박물관에는 DEA 분석상으로 운영인력은 직원 수의 효율성을 보면 2007년 현재 투입량의 경우 직원 수는 80명에 80.00명의 투입으로 부산광역시가 효율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경상남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박물관의 면적이나 소자자료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시실의 경우에는 10,374㎡가 투입되었지만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374㎡로 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절반에 가까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차를 많이 보이는 강원 충남 경북은 기대에는 미흡하나 부산광역시와 비교에서는 다소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술에서 박물관 활성화 측면에서 밝힌바 지역민들과의 여론조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박물관 자체로서의 존재가치에서 벗어나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려 간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4-37>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미술관 투입량과의 차이

구 분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서 울	현재투입량(A)	63	7,316	5,127	1,007	2,002
	최적투입량(B)	63.00	7,316.00	5,127.00	1,007.00	2002.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부 산	현재투입량(A)	43	21,425	6,455	1,399	745
	최적투입량(B)	43.00	21,425.00	6,455.00	1,399.00	745.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광 주	현재투입량(A)	34	14,560.65	13,973.65	357	2,679
	최적투입량(B)	23.18	3,229.25	2,005.11	357.00	1,157.29
	차이(A-B)	10.81	11,331.39	11,968.53	0.00	1,521.71
대 전	현재투입량(A)	30	8,407.37	2,345	807	638
	최적투입량(B)	21.62	8,407.37	2,140.14	465.27	638.00
	차이(A-B)	8.37	0.00	204.85	341.72	0.00
경 기	현재투입량(A)	51	29,141	5,703.58	1,119.02	1867
	최적투입량(B)	51.00	6,084.14	4,185.98	811.07	1,747.38
	차이(A-B)	0.00	23,056.85	1,517.59	307.94	119.61
강 원	현재투입량(A)	4	684.26	263.35	67.95	466
	최적투입량(B)	4.00	684.26	263.35	67.95	466.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충 북	현재투입량(A)	17	4,533.22	1,638.04	143.33	1531
	최적투입량(B)	10.10	1,885.84	978.88	143.33	879.61
	차이(A-B)	6.89	2,647.37	659.15	0.00	651.38
전 북	현재투입량(A)	20	7,371.43	1,769.87	387.2	622
	최적투입량(B)	20.00	7,371.43	1,769.87	387.20	622.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전 남	현재투입량(A)	11	2,698.54	1,815.8	239.5	8,059
	최적투입량(B)	11.00	1,977.96	1,049.25	157.98	898.65
	차이(A-B)	0.00	720.57	766.54	81.51	7,160.34
경 북	현재투입량(A)	8	1,670	814	109	835
	최적투입량(B)	8.00	1,670.00	814.00	109.00	835.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경 남	현재투입량(A)	73	21,915.88	9,096.51	1,952.64	5,742
	최적투입량(B)	63.00	7,316.00	5,127.00	1,007.00	2,002.00
	차이(A-B)	10.00	14,599.88	3,969.51	945.64	3,740.00
제 주	현재투입량(A)	6	1,080	894	88	756
	최적투입량(B)	5.60	1,080.00	484.41	84.43	614.14
	차이(A-B)	0.39	0.00	409.58	3.57	141.85

<표 4-37> 전국 문화기반시설 미술관 투입량과의 차이에서는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는 관련 시설이 없거나 휴관 상태라서 제외 하였고 효율적 시도는 5개 시도로 (서울, 부산, 강원, 전북, 경북)순이고, 비효율적 시도는 7개 시도로(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남, 제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 도시 중의 내용상 부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과 평균은 전시실 1,624.64㎡, 소장 자료 1,111.24점으로 같고, 운영인력 3.03명, 면적합계 4,363.00㎡, 수장고 140.03㎡로 평균수치 만큼 과대 투입 된 것이다.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이용자수의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데 미술관은 생각과 달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미술관 역시 박물관과의 내용상, 성격상 유사한 점 중 하나가 희소가치와 소장가치, 혹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고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소장에 따른 비공개의 즉 사회적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소지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적 취향의 일부분으로서 많은 이들이 공유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지지 않고 있다. 유물(미술품 포함)을 그나마 개인이 자유로이 공개 하는 것은 방송의 유물 감정 프로그램에서나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유명인들의 작품과 희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실제 미술관이 없는 시·도가 있는 것도 원인에 대한 결과 일수도 있다.

이미 미술품은 앞서의 원인들로 인한 문제점들도 있지만 작가와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대중과의 상호 작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분야이기도하다. 이는 작가의 정신세계와 철학적 혹은 사상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원인해결 방안으로 우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제로 앞서의 문제들이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지역민들의 지적 수준과 환경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통한 시각적인 측면에서와 사고에 대한 이해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경험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 준다면 지역민들에게서 관심의 대상으로 미술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38> 부산광역시 미술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현재투입량(A)	43	21,425	6,455	1,399	745
최적투입량(B)	43.00	21,425.00	6,455.00	1,399.00	745.00
차이(A-B)	0.00	0.00	0.000	0.00	0.00

<표 4-38>의 부산광역시 미술관을 살펴보면, 2006년에 458,498명의 관람객을 동원하였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성비교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의 미술관에는 DEA 분석을 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비교적 우수한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7년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적투입량과 현재투입량은 차이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경상남도 미술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운영인력(명)	면적합계(㎡)	전시실(㎡)	수장고(㎡)	소장자료(점)
현재투입량(A)	73	21,915.88	9,096.51	1,952.64	5,742
최적투입량(B)	63.00	7,316.00	5,127.00	1,007.00	2,002.00
차이(A-B)	10.00	14,599.88	3,969.51	945.64	3,740.00

<표 4-39>의 경상남도의 미술관을 살펴보면, 2006년에 350,646명의 관람객을 동원하였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성비교를 통하여 경상남도의 미술관에 DEA 분석을 하면 경상남도의 경우 비교적 낮은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7년의 투입량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최적투입량과 현재투입량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 면에서도 현재 투입량의 운영인력이 73명이지만 63명의 인원으로도 현재의 결과와 같이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40>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문예회관 투입량과의 차이

구분		직원수 (명)	전문직원수 (명)	공연일수 (일)	전시일수 (일)	연면적 (㎡)	총객석수 (석)	연간운영비 (백만원)
서 울	현재투입량(A)	541	259	2,968	2,851	189,677	10,766	61,350
	최적투입량(B)	541.00	259.00	2,968.00	2,851.00	189,677.00	10,766.00	61,350.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 산	현재투입량(A)	107	27	1,377	943	84,348	5,651	18,860
	최적투입량(B)	99.48	27.00	660.14	516.54	49,287.25	5,651.00	18,860.00
	차이(A-B)	7.52	0.00	716.85	426.46	35,060.75	0.00	0.00
대 구	현재투입량(A)	151	33	1,070	1,546	46,638	8,384	14,946
	최적투입량(B)	33.00	1,070.00	1,546.00	46,638.00	8,384.00	14,946.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인 천	현재투입량(A)	81	20	1,142	623	53,570	8,182	17,675
	최적투입량(B)	81.00	2.68	627.67	385.40	41,975.80	6,798.95	13,712.06
	차이(A-B)	0.00	17.32	514.32	237.60	11,594.20	1,383.05	3,962.94
광 주	현재투입량(A)	128	39	1,127	692	73,351	4,692	14,141
	최적투입량(B)	83.27	22.80	653.21	692.00	36,021.77	4,692.00	14,141.00
	차이(A-B)	44.72	16.19	473.79	0.00	37329.22	0.00	0.00
대 전	현재투입량(A)	54	35	195	133	44,227	2,401	8,172
	최적투입량(B)	54.00	35.00	195.00	133.00	44,227.00	2,401.00	8,172.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울 산	현재투입량(A)	50	24	481	867	29,409	4,404	4,601
	최적투입량(B)	50.00	24.00	481.00	867.00	29,409.00	4,404.00	4,601.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 기	현재투입량(A)	486	244	3,780	3,103	354,676	27,993	75,502
	최적투입량(B)	486.00	244.00	3,780.00	3,103.00	354,676.00	27,993.00	75,502.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강 원	현재투입량(A)	112	25	1,279	1,269	90,096	9,386	996,243
	최적투입량(B)	112.00	25.00	1,279.00	1,269.00	90,096.00	9,386.00	996,24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 북	현재투입량(A)	93	2	678	322	48,780	7,746	13,623
	최적투입량(B)	93.00	2.00	678.00	322.00	48,780.00	7,746.00	13,62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 남	현재투입량(A)	78	23	1,892	685	58,599	18,631	8,693
	최적투입량(B)	78.00	23.00	1,892.00	685.00	58,599.00	18,631.00	8,69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북	현재투입량(A)	121	49	1,371	1,477	114,069	17,562	10,163
	최적투입량(B)	121.00	49.00	1,371.00	1,477.00	114,069.00	17,562.00	10,163.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 남	현재투입량(A)	447	17	2,637	1,594	61,263	12,505	11,360
	최적투입량(B)	92.82	16.72	811.87	684.30	61,263.00	9,554.31	11,360.00
	차이(A-B)	354.17	0.28	1,825.12	909.69	0.00	2,950.69	0.00
경 북	현재투입량(A)	134	35	1,858	1636	100,406	14,526	20,739
	최적투입량(B)	134.00	27.25	1,001.81	612.48	80,704.24	9,858.57	20,500.66
	차이(A-B)	0.00	7.74	856.18	1,023.52	19,701.75	4,667.43	238.34
경 남	현재투입량(A)	268	76	1,757	1,825	156,256	16,224	14,485
	최적투입량(B)	268.00	76.00	1,757.00	1,825.00	156,256.00	16,224.00	14,485.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 주	현재투입량(A)	20	6	369	702	7,222	1,984	8,831
	최적투입량(B)	20.00	6.00	369.00	702.00	7,222.00	1,984.00	8,831.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4-40> 전국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투입량과의 차이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 효율적으로 나타난 시도는 11개 시도로는(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이다. 비효율적 시도는 5개 시도로 (부산, 인천, 광주, 전남, 경북)순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 도시 중의 내용상 부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과 평균은 공연일수 877.252일, 전문인원수 8.306명과 전시일수 519.454일, 연면적 20,737.18㎡이고, 직원 수는 81.282명, 총 객석 수 1,800.234석이고, 연간운영비 840.256백만 원 순이다. 이는 평균수치 만큼 과대 투입 된 것이다. 문예회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중의 하나로 이미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 주도적 역할과, 지방자치 분권으로 인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이기도하다. 대체적으로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나타난 결과로 특히 이용자수가 많은 분야들은 도서관, 문예회관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예회관은 도서관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 두 시설의 공통점은 첫째, 개인적 취향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둘째, 유물이나 미술품처럼 특별한 지식이나 학문이 수반되지 않아도 지적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며 셋째, 다양한 필요 방법적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와 달리 부담을 들어주고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연의 장점은 시·청각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공연문화 뿐 아니라 외국의 공연문화를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이러한 공연에 대한 자율적 선택의 용이하다는 것이다.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특이한 점은 창작의 부분이다. 미술 작품이나 박물관의 유물은 더 이상 진화 하거나 발전하지 않는다. 반면 공연은 같은 작품이면서 다양한 방법의 연출이 가능하고 다른 장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창작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조의 기본적 가치가 또 다른 창조를 낳는 셈이다.

이러한 공연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서 서기 때문에 타 기반

시설에 비해 관심이 높은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정부 주도적 문화시설관리 체제로 인해 다수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외국의 경우는 문화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공급, 수요의 매개자 또한 공공기관, 자자체가 추제이므로 자율성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안정적 재정을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반면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 재정 마련의 방법들을 통한 자체 능력의 개발과 역량강화를 통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야한다. 둘째, 문화예술회관의 시립예술단공연들을 살펴보면 일회성의 공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 혹은 장르별 특화 프로그램운영으로 보편성 결여와 차후 유통의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원인으로 보여 지며 공연의 기획단계에 있어서 부터 내부 혹은 외부의 프로덕션 스텝의 운용 및 홍보 마케팅의 인력활용으로 공연에 대한 질적, 품질을 철저히 검토하여 레퍼토리화를 목표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마니아층 개발에 저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지속적인 인력양산 체제를 갖추고 지역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세계를 목표로 하는 지역공동문화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전문직들의 권한 행사에 있어 예산집행, 결정권한 등 업무전반의 환경개선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나은 공연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화의 진출에 걸 맞는 많은 작품들이 배출 될 것이다. 셋째, 문화의 세기를 맞이한 만큼 그에 걸 맞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최근의 공연작품들 중에는 대규모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은 이미 평균 20여년의 노후화된 시설로 외부 공연유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하였고 또한 문화생활화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충족요건에 대한 변화요구와 시설의 목적과 기능상의 변화 또한 요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현재 건립중인 문예회관과의 시설별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간

상에 있어 정보공유, 지식습득, 만남의 장, 지역예술인의 창작 공간,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노인편의시설과 건전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공간들이 등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넷째, 관람객들에 대한 문제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은 공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토요상설무대', 주부들을 위한 '11시 콘서트', '영화감상' 등과 특정요일을 목표로 한 '화요 콘서트' 등과 특정일(크리스마스, 제야음악회)의 특수성을 위한 공연 들이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들은 중앙에서 운영되어지는 공연들에 대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각 지방에서도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을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연추진으로 각 시·도별의 호응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 지역에서의 성공이 다른 지역에서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지역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문화환경에 맞는 공연문화의 연구가 필요하며 결국 공연의 주체는 관람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하며 '문화세기'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과제이다.

<표 4-41> 부산광역시 문예회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직원수(명)	전문직원수(명)	공연일수(일)	전시일수(일)	연면적(㎡)	총객석수(석)	연간운영비(백만원)
현재투입량(A)	107	27	1,377	943	84,348	5,651	18,860
최적투입량(B)	99.48	27.00	660.14	516.54	49,287.25	5,651.00	18,860.00
차이(A-B)	7.52	0.00	716.858	426.46	35,060.75	0.00	0.00

<표 4-41>의 부산광역시 문예회관을 살펴보면, 직원 수의 효율성을 보면 2007년 현재 투입량의 경우 직원 수는 99.48명이 있어도 현재의 결과와 같이 산출할 수 있는데 현재 고용된 직원이 107명으로 7.512명의 인력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원수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조직의 인력감축이 요구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공연일수는

716.858일, 전시일수 426.460일이 차이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공연일수와 전시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양으로써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연면적도 35,060.751㎡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총 객석 수나 연간운영비는 충분히 이용되어 현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문예회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고용되어 있는 직원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연과 전시일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운영해야 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방법은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주기 때문에, 정서적 판단이 많이 필요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적용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을 위한 과학적, 정량적 판단자료로써 이용해야 할 것이다.

<표 4-42> 경상남도 문예회관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직원수(명)	전문직원수(명)	공연일수(일)	전시일수(일)	연면적(㎡)	총객석수(석)	연간운영비(백만원)
현재투입량(A)	268	76	1,757	1,825	156,256	16,224	14,485
최적투입량(B)	268.00	76.00	1,757.00	1,825.00	156,256.00	16,224.00	14,485.00
차이(A-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4-42>의 경상남도 문예회관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성비교를 통하여 2006년도에 1,502,698명의 이용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문예회관에는 DEA 분석 상으로 현재의 투입요소는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문예회관의 효율성은 가장 우수한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으로 현재의 직원 및 전문 인력, 공연일수, 전시일수, 면적, 연간운영비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3>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 시·도별 문화의 집 투입량과의 차이

구분		연간운영비 (백만원)	운영인력(명)	연면적(㎡)
서 울	현재투입량(A)	2,455.59	66	12,610
	최적투입량(B)	2,455.59	66.00	12,610.00
	차이(A-B)	0.00	0.00	0.00
부 산	현재투입량(A)	719	14	1,866
	최적투입량(B)	172.68	7.72	1,866.00
	차이(A-B)	546.32	6.29	0.00
대 구	현재투입량(A)	23.5	1	1,105
	최적투입량(B)	23.50	1.00	1,105.00
	차이(A-B)	0.00	0.00	0.00
인 천	현재투입량(A)	11	1	496
	최적투입량(B)	11.00	1.00	496.00
	차이(A-B)	0.00	0.00	0.00
광 주	현재투입량(A)	328	9	1,722
	최적투입량(B)	155.68	7.01	1,722.00
	차이(A-B)	172.32	1.99	0.00
대 전	현재투입량(A)	107	6	1,878
	최적투입량(B)	107.00	4.99	1,309.47
	차이(A-B)	0.00	1.01	568.53
울 산	현재투입량(A)	301	15	352,021
	최적투입량(B)	301.00	13.04	2,953.35
	차이(A-B)	0.00	1.96	349,067.65
경 기	현재투입량(A)	2,373.49	40	7,524
	최적투입량(B)	1,048.91	36.60	7,524.00
	차이(A-B)	1,324.58	3.40	0.00
강 원	현재투입량(A)	542.1	27	6,105
	최적투입량(B)	542.10	23.06	4,996.34
	차이(A-B)	0.00	3.94	1,108.66
충 북	현재투입량(A)	2,80213	18	2,199
	최적투입량(B)	211.98	9.35	2,199.00
	차이(A-B)	280,001.02	8.65	0.00
충 남	현재투입량(A)	583.9	26	3,344
	최적투입량(B)	347.10	14.96	3,344.00
	차이(A-B)	236.80	11.04	0.00
전 북	현재투입량(A)	685.21	29	6,209
	최적투입량(B)	685.21	29.00	6,209.00
	차이(A-B)	0.00	0.00	0.00
전 남	현재투입량(A)	725	17	4,281
	최적투입량(B)	401.62	17.00	4,021.57
	차이(A-B)	323.38	0.00	259.43
경 북	현재투입량(A)	685.21	17	4,281
	최적투입량(B)	401.62	17.00	4,021.57
	차이(A-B)	283.59	0.00	259.43
경 남	현재투입량(A)	1,239	49	6,880
	최적투입량(B)	704.23	29.40	6,277.76
	차이(A-B)	534.77	19.60	602.24
제 주	현재투입량(A)	490	25	8,382
	최적투입량(B)	704.23	29.40	6,277.76
	차이(A-B)	0.00	4.11	3,827.14

<표 4-43> 전국 문화기반시설 문화의 집 투입량과의 차이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 효율적으로 나타난 시·도는 4개 시·도로(서울, 대구, 인천, 전북)이고, 비효율적 시·도는 12개 시·도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다. 비효율적 도시 중의 내용상 부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과 평균은 운영인력은 5.16명이고, 연간운영비 23,618.57백만 원, 연면적 29,641.09㎡ 순이다. 평균수치 만큼 과대 투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화시설의 의의에서 밝힌 바 문화의집 목적은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 지역민이 생활권역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문화 마인드를 높이도록 조성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며,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노인층의 여가 활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교류의 장이면서, 소규모의 문화 활동을 통한 각 지역 간의 문화정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다. 단순히 보고 듣는 수동적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능동적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생활문화공간이다.

문화의 집은 지역 특성에 따른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이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향유하고, 자율적 운영으로 문화민주주의를 체험케 함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뿌리 내리도록 하는 주민 밀착형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개개인의 창의성 함양과 자율성을 모태로 하는 문화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집은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의 축소판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이다. 즉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기능을 함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집은 농어촌 소재 소외계층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방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기여했고, 또한 결혼 이주 여성 프로그램은 문화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의 올바른 관계형성과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소외감 해소로 이주여

성과 지역, 문화 사회와의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새터민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개 지역에서 5000여명이 참여 새터민과 지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문화생활의 기본적 기능역할에 있어 활용 면이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 운영 면에서는 다른 문화기반시설에서 보다 인력 과용현상이 두드러진다.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문화기반시설 중 문예회관의 공연자료 및 소규모 공연 팀의 공연과 미술품전시 등을 유치하여 보다 문화기반시설 간의 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면에서의 운영으로 제한적 환경에 의한 문화 소외계층에 균형적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차이가 많은 시·도는 경남으로 현재투입량 49명에 최적투입은 29.40명으로 19.60명이 과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충남으로 현재투입량 26명에 최적투입은 14.96명으로 11.04명이 과대 투입되었으며 세 번째 도시는 충북 현재투입량 18명에 최적투입은 9.35명으로 8.65명이 과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중·소도시의 특징으로 도시와 군, 면 단위별로의 운영 면이나 인구수대비 인력 면에서의 차이인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44> 부산광역시 문화의 집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연간운영비(백만원)	운영인력(명)	연면적(㎡)
현재투입량(A)	719	14	1,866
최적투입량(B)	172.68	7.72	1,866.00
차이(A-B)	546.32	6.29	0.00

다음으로 <표 4-44>의 부산광역시 문화의 집을 살펴보면,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성비교를 통하여 운영비가 719백만 원이 연간 지출되고 있

는데, 부산광역시의 문화의 집에는 DEA 분석 상으로 172.68백만 원을 투입하여도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줄일 수 있는 비용은 546.32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직원 수의 효율성을 보면 2007년 현재 투입량의 경우 직원 수는 7.72명이 있어도 현재의 결과와 같이 산출할 수 있는데 현재 고용된 직원이 1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6.29명의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부산광역시 문예회관에서도 같은 유사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연면적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의 집 1,866㎡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문화의 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영비의 절감한 현재까지 고용되어 있는 직원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운영비에는 상당한 비효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표 4-25>의 지방자치단체 문화의 집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18,217.63백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나 부산의 3배 수준의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산출 값은 부산의 20여배에 달하는 서울특별시에 비하면 비효율적으로 산출되었다.

<표 4-45> 경상남도 문화의 집 투입변수의 차이

구분	연간운영비(백만원)	운영인력(명)	연면적(㎡)
현재투입량(A)	123,9	49	6,880
최적투입량(B)	704.23	29.40	6,277.76
차이(A-B)	534.77	19.60	602.24

<표 4-45>의 경상남도 문화의 집을 살펴보면,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성비교를 통하여 운영비가 123,9백만 원이 연간 지출되고 있는데, 경상남도 문화의 집에는 DEA 분석 상으로 704.23백만 원을 투입하여도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줄일 수 있는 비용은 534.77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직원 수의 효율성을 보면 2007년 현재 투입량의 경우 직원 수는 29.40명이 있어도 현재의 결과와 같이 산출할 수 있는데 현재 고용된 직원이 49명으로 2.5배에 가까운 19.60명의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경상남도 문화의 집에서도 같은 유사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연면적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의 집 6,880㎡는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남도 문화의 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영비의 절감한 현재까지 고용되어 있는 직원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운영비에는 상당한 비효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표 4-25>의 지방자치단체 문화의 집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18,217.63백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나 부산광역시의약 1.7배의 다소 높은 예산으로 대단위의 기획공연 대비 수익적 측면을 계산해 보면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방법은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주기 때문에, 정서적 판단이 많이 필요한 운영프로그램 참가자수와 연간참여자수가 동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 판단을 위한 과학적, 정량적 판단자료로써 이용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1. 연구요약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특성의 가치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여 문화기반시설 및 수용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며, 각 지방 자치제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세계화로의 기틀을 만련 하고자 하였고, 1970년을 계기로 문화예술에서 문화정책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로의 탈바꿈을 통하여 실질적인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건립 되어져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이용자 분석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와 기반시설의 분포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하여 2006년을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에 대해 범위를 설정하고 고찰한다.

우리나라는 강제적 문화정책에서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문화기반시설의 내실을 다지지 못한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목적에 의한 시설 활용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와 화합, 상호교류, 첨단문화의 산업화, 우리문화의 보존과 발전, 세계 속에 우리문화정착 등 문화시민과 문화국민으로서 문화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미래학자 나이스비트(Naisbitt)는 '메가트랜드(Megatrends)'라는 책에서 하이테크시대에는 인간적인 하이터치(high touch) 문화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41] 정부는 최근 문화산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다양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문화정책 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요구에 대한 문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41) 박제두 역 (1985), 『탈산업사회의 새 조류』. 법문사. p39-52.

위해서는 정책과정 초기부터 시작되는 사전 예방적이고 쌍방향적인 문화정책으로 변환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소수만이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광의의 문화' 정책분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문인 의식주와 생활문화, 민족문화, 공간문화, 여가문화의 활성화와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불우청소년, 재소자,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화권 신장 등 목적에 의한 시설의 확충과 예산지원, 아울러 문화 생활화 추진에도 정책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42]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지역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문화들을 발굴하고 이에 창조적 개념을 통하여 작게는 지역의 화합과 문화국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고, 넓게는 세계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성이란 각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며, 활용 면이나 이용면의 가치 등과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전국현황과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투입-다수산출의 생산구조를 갖고 있고 비용함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의 특성 때문에 여러 학설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기존의 실증분석에 관한 검토 작업을 거쳐 투입과 산출에 대한 특정함수의 설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되어져 있고 실제 운영되어지는 문화기반시설 상호간의 효율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資料包烙分析) 모형을 채택하였다.

---

42) 문화관광부 (2006).『문화청백서』. 제3장 문화정책. 제1절 문화정책 기본방향, 161

DEA에 의한 방법은 비용함수 등과 같이 특정함수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표본 집단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단을 찾아내고 그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집단의 어느 요소가 얼마나 투입되고 얼마나 투입대비 산출 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에 입각하여 전국 지방자체단체의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효율성 여부를 DEA 모형에 의해 측정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의 시사점

지역의 문화예술을 정책으로서의 개발과 발전을 전개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개념은 의식주의 해결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삶에 대한 여유가 생성될 때 개인은 심리적, 정신적 충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 각 지역별 경제침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실정에서, 특히 여유의 결과물과도 같은 인간 기본 활동의 최종 단계인 문화를 '지역육성정책'의 관심사로 도출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DEA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면 우선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이용률 현황에서 도서관의 이용률은 경기도, 서울, 경남, 박물관의 순으로 나타났고, 박물관 관람 이용률은 경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술관은 서울, 경북, 부산, 경남, 전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예회관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총 이용자 수는 경기도, 서울, 충북이며, 문화의 집의 경우는 운영프로그램 참가자 수와 참여자 수에서 서울, 전북,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다. 총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 집중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타 지방

자치단체와 효율성 비교를 통하여 2006년도의 각 분야별 인력, 면적, 자료, 운영예산 등 DEA 분석 상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투입요소에 대한 결과로 각 지역별, 분야별,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의 위치, 기능, 목적, 홍보 등의 제반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러한 전국의 각 시·도별 문화기반시설에서 각 분야별의 결과물들에서 많은 수의 차이가 나타났고, 투입대비 결과적 부분인 이용률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인구수 대비 각 분야별 관심도에 따라 다소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의 경우 예외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각 시·도별의 지역홍보 및 광고의 영향과 지역 특성화 사업의 추진, 관광 상품화의 결과에 따른 그 지역의 시설에 대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분석에서와 같이 지역 간의 문화격차는 결국 근대화 추진에 있어서 불균형적 성장정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초래 했다고 벌 수 있고, 특히 이러한 격차는 시·군·구 단위로 갈수록 더욱 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배려에서 설립된 지역문예회관 역시 지자체의 쟁점 적 지원과 열악한 환경이 문제시되었고, 공연 전문 인력의 수급 및 운영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지역주민의 시설 활용 적 측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문예회관과 문화접근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전통문화의 외면이나, 외래문화의 수입, 적극적인 창작 활동의 자원 부족이 지역문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탈바꿈으로 인해 창의와 문화가 지역사회의 중심 가치로 부상하면서 민·관의 특색이 있는 협력적 체제구축, 지역의 문화시설, 전문인을 통한 발전적 노력의 필요성이 현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쌍방향성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 지역민의 문화창조 참여욕구가 확대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지역민들의 문화기반시설 참여 기회를 확대 시키는데 많은 비중을 두어야하고, 이

를 통해 참여 형 지역문화 활동 및 지역문화 개발과 관련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지역분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방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자원과 산업부문의 접목을 통한 '21세기형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문화적 혜택에서 다소 소외받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절대다 수 지역민들에게 균형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다.

특히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창의적 문화 복지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첫째, 일상생활에 손쉽게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양질의 프로그램과 이를 기획, 경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운영, 둘째, 국민 스스로의 표현에 대한 창작환경의 조성이 필요로 하며 아마추어 예술 활동과 인디문화(independent cultural)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평생 문화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의 연계, 문화공간의 교육기능 확대, e-learning 문화학습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조건의 문화지식이 제공 되어야한다. 넷째, 문화기반시설은 소수의 혜택이 아닌 국민 모두가 지리적 제약이나 사회, 경제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3]

결국 이러한 요소의 충족으로 인해 지식과 창의가 경제력 및 사회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지식중심 사회에서 '문화'가 지니는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대중매체의 쌍방향성 미디어 기술과 통신의 혁명으로 국민의 평등욕구가 정치·경제 등의 고전적 영역 뿐 아니라, 주체적 문화 활동인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이념에 입각한 진정한 문화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3)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학도서, p35, 36.

3. 연구한계

한계점으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및 관주도적 정책 추진으로 지역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중앙 주도적 역할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 및 정책 개발과 아울러 시설의 다양성 등에 대한 1지역 1문화시설 건립 등 형식적인 형평성과 동일선상의 정책 현실이 지역별 특색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시설확충, 운영 등 많은 부분이 기존의 문화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문화정책 시행 시 문화예술인 등 지역주민 참여 미흡으로 지역에 적합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각 지방자치 단체들 간에의 경쟁우위로 인해 자료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성 측정에 대한 한계점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에 대한 부풀리기 식 통계들로 인해 실제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끼워 맞추기식의 수 계산으로 인한 통계분석 및 자료 분석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도 많이 있어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OECD 국가와 비교 되는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는 지역특성과 지역민들에 대한 요건성립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 둘째,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시설의 수와 시설의 공간적 부분으로 대도시에 건립된 문화기반시설에서는 대체적으로 인구수 대비 시설수와 이용에 있어서 협소한 공간, 기타 부수적인 문화지식기반으로서의 공간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시설들의 노후화와 시설확충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시설투자 및 활용 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도시는 반대로 인구수에 비해 공간이 너무 많아 시설 활용 적 이용의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은 지역민들과 지역의 전문인들의 여론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정부정책과 지원을 통한 합리적 문화 전문기능의 활성화와 주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며, 이는 가장 사람들이 쉽게 찾는 문화기반시설 중 문예회관을 예로 제시했으나, 문예회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이다.

셋째, 홍보·마케팅의 문제로 아무리 좋은 시설 환경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제 시설 이용에 지역민들의 참여 없이는 목적을 가지는 시설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시설에 대한 목적적 정의와 시설 활용 및 이용에 있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 운영주체로서 홍보와 마케팅의 운용여하에 따라 문화향유에 대한 범위와 지적 수준의 가치 활용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운영과 다양한 정보 매체의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의 방안을 마련, 누구나가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참여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의 부족현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인 각 시설별의 전문 인력의 운영인데 여러 가지 기존의 정해져 있는 업무상의 제약과 앞 서에 언급된 각 문화기반시설의 분야별 인원현황에서처럼 전문 인력의 부족한 현상이다. 특히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중·소도시나 농촌 사회에서 우수한 인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 전문 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리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이 고향이나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 되는 문화복지 관련 전문가의 양성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인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개발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운영 자율성 보장 등의 문제해결을 모토로 문화의 세기에 걸 맞는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제시된 부분을 극복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나은 문화기반시설정책의 효율적 측면에서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참고문헌

국내문헌

문화관광부 (2001). 『문화정책백서 2001』.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2003). 『문화정책백서 2003』.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2004). 『문화정책백서 2004』.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2004). 『새예술정책 2004』.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2005). 『문화정책백서 2005』.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2006). 『문화정책백서 2006』.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2007). 『문화정책백서 2007』.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

문화관광부 (200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박광국 (19990). 『문화정책 상황론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한국정책학회보, 8권 1호, 서론.

박광국 최상일 주효진 (2000).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 行政論叢, 38권 2호, 서론.

박광국 최상일 주효진 (2000). 『지역문화정책의 영향요인 평가』. 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1권 3호, 서론.

박제두 역 (1985). 『탈산업사회의 새 조류』. 법문사.

박진수・구문모・신창호 (2001). 『문화산업단지 추가지정 및 운영계획 보고』.

이근형 (2000). 『국정 홍보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인 (1986). 『문학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임학순 (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학도서.

정홍익 (1993). 『문화정책의 가치론 접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 제5집

조석현·강병근 (1990). 『지역문화시설의 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권 2호.

주수현・유영명・원광해 (2001). 『부산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88). 『정부 PR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9~10.

홍기원 (2004).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문화예술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측정』. 한국정책학회보. 3권. 3호 203.

해외문헌

Charnes, A., W. W. Cooper, & E. Rhodes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 429~444.

Charnes, A., W. W. Cooper, & E. Rhodes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 435~437.

Charnes, A., W. W. Cooper, & E. Rhodes (June, 1981). Evaluating Program and Managerial Efficiency: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Program Follow Through. *Management Science, 27*(6), 668~697.

Coelli, T. J. (1996). A Guide to DEAP Version 2.1: A Data Envelopment Analysis (Computer) Program (CEPA Working Paper 96/8). Armidale, NSW Australia: Department of Econometrics, University of New England.

Farrell, M. J. (1957). The Measurement of Productivity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20*, 253~290.

Globerman, S. (1983). Cultural Requlation in Canada, Montreal, *Institute for Research in Public Polict.*

Rifkin, J. (2000). The Age of access, New York: *Penguim Putnam Inc., 3-15*

부록 1 : 문화시설의 종류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1조의2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을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나.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

다.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나. 문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5. 문화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기타 문화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별표 1의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24조제5항관련)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록 2 :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변화추이

2004년 지역별 문화시설 현황 (2004. 12. 31기준)

시·도	합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박 물 관				미 술 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170**	**487**	**250**	**223**	**14**	**397**	**328**	**101**	**133**	**94**	**69**	**15**	**52**	**2**	**132**	**154**
서 울	**185**	44	16	22	6	104	84	15	45	24	20	1	19	0	7	30
부 산	**43**	24	10	12	2	12	9	2	0	7	3	1	1	1	4	3
대 구	**27**	13	0	12	1	6	6	1	2	3	0	0	0	0	7	1
인 천	**23**	11	3	8	0	6	3	1	1	1	3	0	3	0	5	1
광 주	**30**	12	7	5	0	11	7	3	0	4	4	1	2	1	4	3
대 전	**35**	15	13	2	0	15	13	4	3	6	2	1	1	0	2	3
울 산	**13**	5	1	4	0	1	1	0	0	1	0	0	0	0	2	5
경 기	**174**	70	59	8	3	68	55	15	31	9	13	1	12	0	19	17
강 원	**79**	39	17	22	0	19	17	8	4	5	2	1	1	0	12	9
충 북	**57**	25	10	15	0	18	15	5	4	6	3	1	2	0	7	7
충 남	**81**	38	19	19	0	27	23	7	11	5	4	0	4	0	9	7
전 북	**81**	36	18	17	1	19	16	6	4	6	3	2	1	0	12	14
전 남	**84**	44	25	19	0	16	11	5	4	2	5	2	3	0	14	10
경 북	**109**	51	23	28	0	33	31	14	6	11	2	0	2	0	14	11
경 남	**101**	42	18	24	0	27	25	12	10	3	2	2	0	0	13	19
제 주	**48**	18	11	6	1	15	12	3	8	1	3	2	1	0	1	14

2005년 지역별 문화시설 현황 (2005. 12. 31 기준)

시·도	합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박 물 관				미 술 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298	526	275	224	27	457	364	125	140	99	93	25	65	3	150	165
서 울	217	62	25	22	15	113	86	17	44	25	27	3	23	1	13	29
부 산	52	25	10	12	3	18	15	6	0	9	3	1	1	1	5	4
대 구	28	13	0	12	1	7	7	1	3	3	0	0	0	0	7	1
인 천	23	11	3	8	0	6	3	1	1	1	3	0	3	0	5	1
광 주	31	12	7	5	0	10	6	3	0	3	4	1	2	1	5	4
대 전	35	15	13	2	0	15	13	4	3	6	2	1	1	0	2	3
울 산	14	6	2	4	0	1	1	0	0	1	0	0	0	0	2	5
경 기	218	80	67	8	5	98	77	28	38	11	21	3	18	0	22	18
강 원	79	39	17	22	0	19	17	8	4	5	2	1	1	0	12	9
충 북	64	25	10	15	0	25	20	7	5	8	5	2	3	0	7	7
충 남	86	40	21	19	0	28	24	9	11	4	4	0	4	0	10	8
전 북	87	38	20	17	1	20	17	8	3	6	3	2	1	0	15	14
전 남	85	46	26	20	0	16	11	5	4	2	5	2	3	0	13	10
경 북	116	52	23	28	1	36	27	11	5	11	9	5	4		16	12
경 남	106	42	18	24	0	29	27	14	10	3	2	2	0	0	15	20
제 주	57	20	13	6	1	16	13	3	9	1	3	2	1	0	1	20

2006년 지역별 문화시설 현황 (2006. 12. 31 기준)

시·도	합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박 물 관				미 술 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431	572	315	227	30	534	431	155	169	107	103	24	75	4	155	170
서 울	230	69	32	22	15	122	91	13	49	29	31	3	26	2	13	26
부 산	53	26	11	12	3	18	15	6	0	9	3	1	1	1	5	4
대 구	31	16	2	12	2	7	7	1	3	3	0	0	0	0	7	1
인 천	24	12	4	8	0	6	3	1	1	1	3	1	2	0	5	1
광 주	32	13	8	5	0	10	6	3	0	3	4	1	2	1	5	4
대 전	39	15	13	2	0	19	16	3	6	7	3	1	2	0	2	3
울 산	16	7	3	4	0	2	2	1	0	1	0	0	0	0	2	5
경 기	248	99	82	10	7	109	86	31	43	12	23	4	19	0	22	18
강 원	100	42	20	22	0	33	29	15	8	6	4	1	3	0	13	12
충 북	69	26	11	15	0	28	23	9	6	8	5	2	3	0	8	7
충 남	99	43	23	20	0	34	30	14	12	4	4	0	4	0	12	10
전 북	91	38	20	17	1	24	21	11	4	6	3	2	1	0	15	14
전 남	91	48	28	20	0	20	13	7	4	2	7	2	5	0	13	10
경 북	120	52	23	28	1	39	35	18	6	11	4	1	3	0	16	13
경 남	122	45	21	24	0	39	34	18	12	4	5	3	2	0	16	22
제 주	66	21	14	6	1	24	20	4	15	1	4	2	2	0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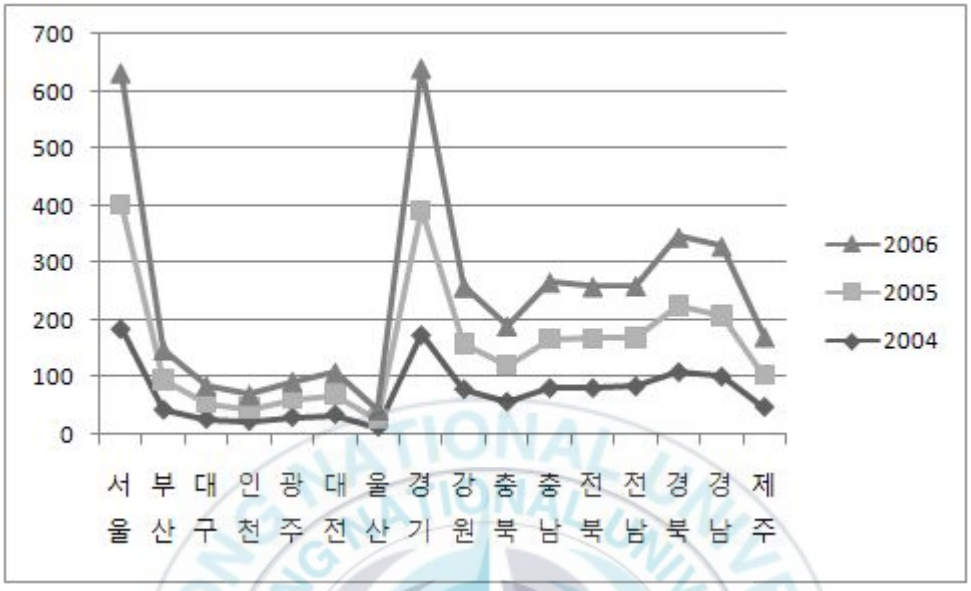
※ 2004~2007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통계자료 기준

2006년 문예회관건립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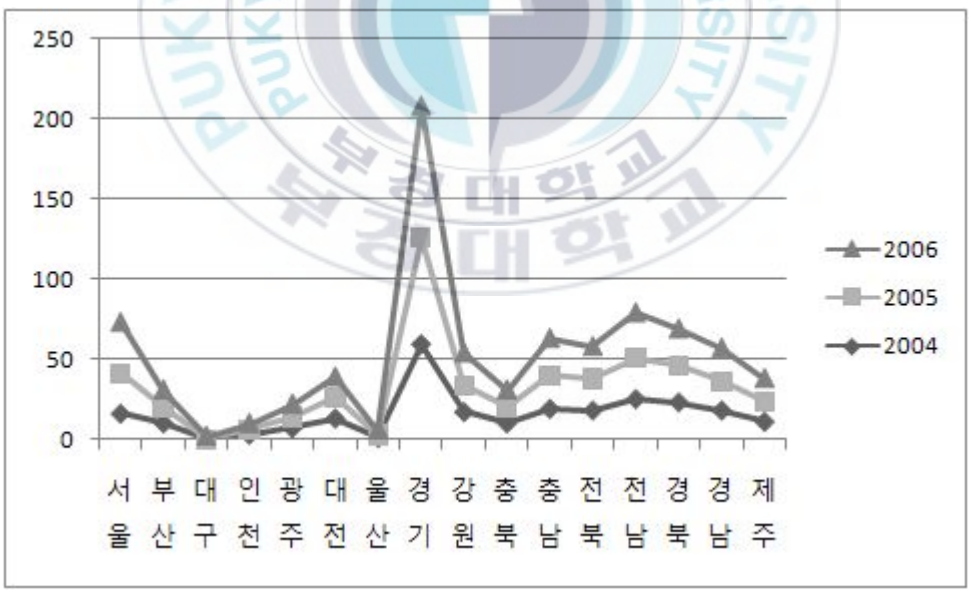
시도	계	2004	2005	2006	비고
서 울	2,500(4)	1,500(2)	500(1)	500(1)	
부 산	3,000(4)	1,500(2)	1,000(1)	500(1)	
인 천	-	-	-	-	
대 구	500(1)	-	-	500(1)	
광 주	2,000(2)	1,000(1)	1,000(1)	-	
대 전	-	-	-	-	
울 산	1,000(1)	-	1,000(1)	-	
경 기	913(2)	500(1)	-	413(1)	
강 원	2,000(3)	1,000(1)	700(1)	300(1)	
충 북	2,800(4)	1,000(1)	1,200(2)	600(1)	
충 남	3,500(4)	3,000(3)	500(1)	-	
전 북	3,500(4)	2,500(3)	1,000(1)	-	
전 남	3,700(5)	1,500(2)	200(1)	2,000(2)	
경 북	8,750(9)	3,000(3)	4,000(4)	1,750(2)	
경 남	5,164(8)	1,100(2)	2,300(3)	1,764(3)	
제 주	3,460(4)	1,000(1)	1,260(2)	1,200(1)	
총 계	42,787(55)	18,600(22)	14,660(19)	9,527(14)	

※ ( )안의 숫자는 지원 문예회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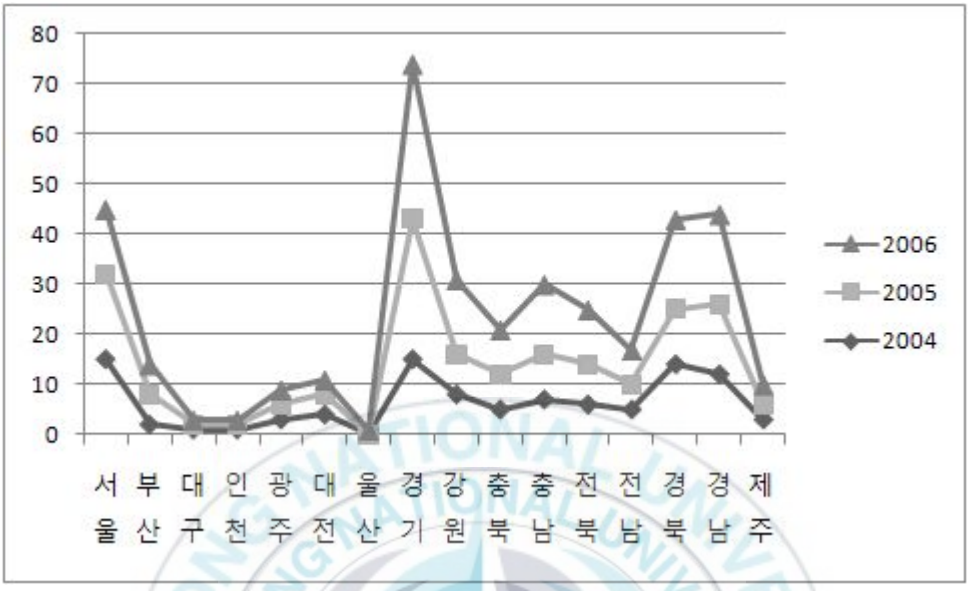
2004 2005 2006년 지역별 총 문화시설 현황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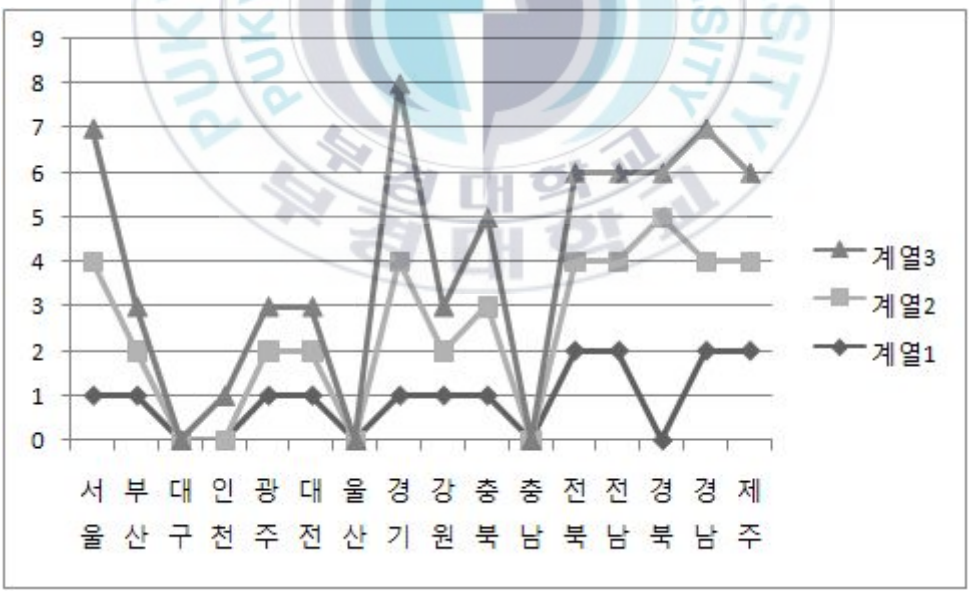
2004 2005 2006년 지역별 총 문화시설 현황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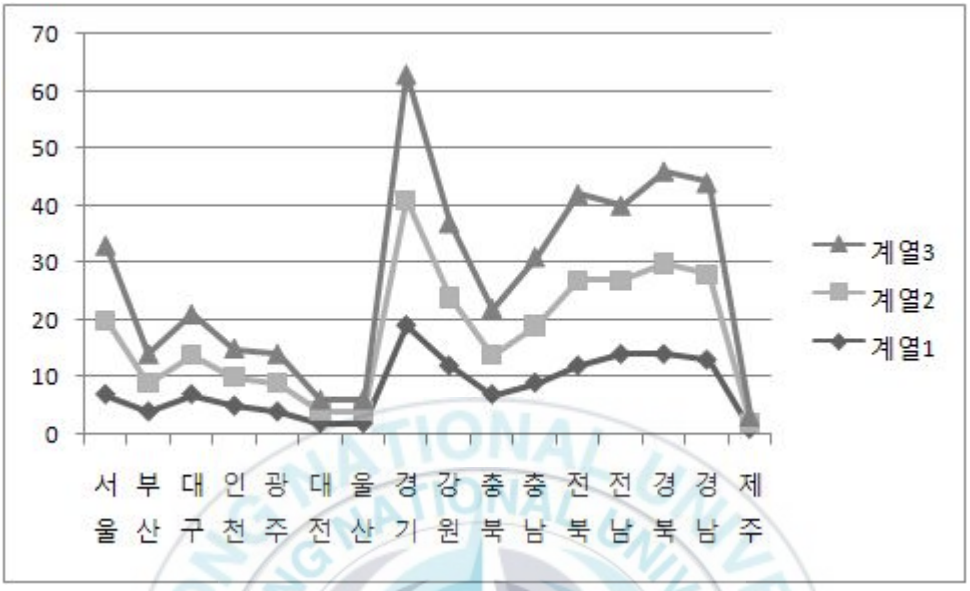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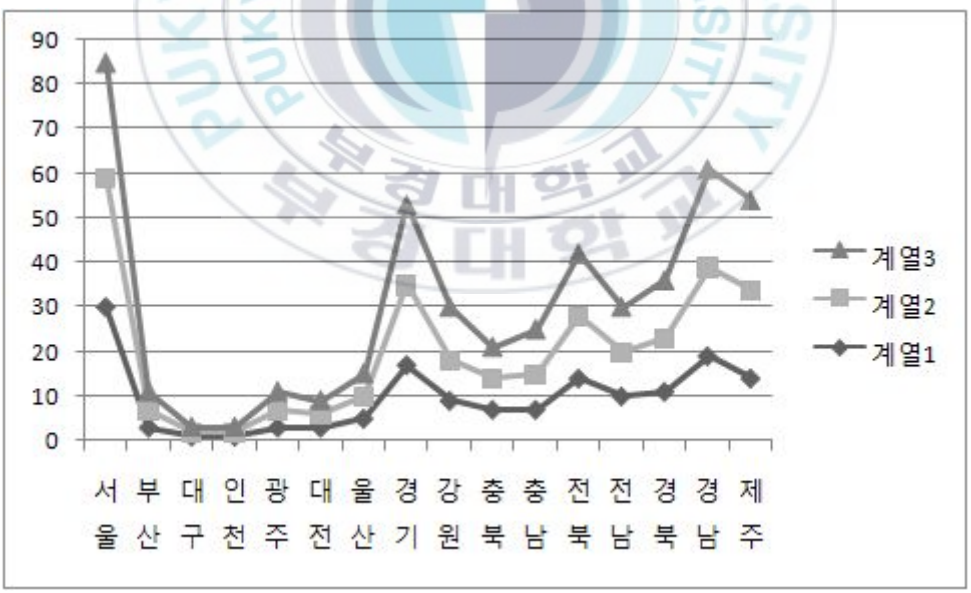
2004 2005 2006년 지역별 총 문화시설 현황 (박물관)



2004 2005 2006년 지역별 총 문화시설 현황 (미술관)



2004 2005 2006년 지역별 총 문화시설 현황 (문예회관)



2004 2005 2006년 지역별 총 문화시설 현황 (문화의 집)